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태백·정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태백 · 정선 -

2005년 12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태백 · 정선 -

제출일: 2005년 12월 10일

연구진

책임연구원 : 원기준 (소속: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공동연구원 : 김창완 (소속: 고한사북남면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정운환 (소속: 정선지역발전연구소장)

조용일 (소속: 강원랜드 노동조합 전 사무국장)

보조연구원 : 김동찬, 박미애, 채지연 (소속: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일러두기

- 1) 사건명은 신문기사 제목 또는 공안당국의 명명(命名) 수준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내며 사전 등재 항목으로도 적절하도록 선정하였다.
- 2) 단체명을 비롯한 모든 약칭은 정식 명칭을 기입하고 ()에 약칭을 적는 것으로 한다.
- 3) 날짜, 관계자 등의 사실이 자료마다 다를 경우 전부 기입하였다.

* 입력 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

일련번호-사건명

사건발생일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관련 사건

<단체>

일련번호-단체명

약칭

소속 단체

존속 기간

주요 활동 지역

법적 상태

조직 체계

강령

결성 과정

주요 활동

주요 활동가

관계 단체

관계 자료

목 차

일러두기	1
목 차	2
I. 작업 진행 경과	3
II. 태백·정선 지역 사건·단체항목 목록	5
1. 연도별	5
1) 사건항목 목록	5
2) 단체항목 목록	6
2. 분야별	8
1) 사건항목 목록	8
(1) 노동운동 관련사건	8
(2) 재야 민주화운동 관련사건	8
(3) 인권 관련사건	8
2) 단체항목 목록	8
(1) 노동운동 관련 단체	8
(2) 종교재야운동 관련 단체	9
(3) 재야운동 관련 단체	9
(4) 문화운동 관련 단체	9
(5) 정치운동 관련 단체	9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11
IV. 단체항목 기초조사	92

I. 작업 진행 경과

1. 연구 참가자

책임연구원 : 원기준(소속: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공동연구원 : 김창완(소속: 고한사북남면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정운환(소속: 정선지역발전연구소장)

조용일(소속: 강원랜드 노동조합 전 사무국장)

보조 연구원 : 김동찬, 박미애, 채지연 (소속: 광산지역사회연구소)

2. 연구 자문위원

3. 작업 진행 과정

- 2005.5.30 연구용역 계약체결
- 2005.6.10 연구자 1차 모임 - 자료수집에 대한 방법 및 역할분담
- 2005.7.1 연구자 2차 모임 - 자료 수입의 문제점 협의
- 2005.7.24 연구 및 저술 분야별 역할분담

김창완 : 1980.사북항쟁, 86, 87, 88.탄광파업, 동노개추

정운환 : 고한, 삼탄, 민중당, 정선농민회, 전교조

조용일 : 도계, 인민노련, 현장조직, 민중당, 광노협

원기준 : 공개조직, 성기사, K, 인권위, 태백EYC, 한보

- 2005.8.29 지역별 단체, 사건 과제 상세 분류

지역	단체	사건
사북	· 노동문제상담소 · 전교조 정선지회 · 말뚝이 · 택시 연합노조 · 사북항쟁동지회(2000.결성) · 동노개추 · 농민회 · 동원보건원 노조 · 박상만 목사(사무실)	· 사북항쟁 ·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미수사건 · 박영희 간첩사건 · 전교조 결성 사건 · 87.파업 · 88.파업 · 89.파업
고한	· 삼노개추 · 민중당 정선지구당 · 카톨릭노동청년회 · 광산노동자상담소	· 87.삼탄 파업(1,2차) · 87.성동탄광 파업(유종원) · 88.삼노개추 원종주씨 노조위원장 당선 · 89.삼노개추 김연철씨 위원장 당선 · 90.민중당 정선지구당 결성 · 91.민중당 성희직 도의원 당선 · 92.민중당 정운환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출마 낙선 및 민중당 해체 · 92.김낙중 간첩사건 연루 정운환 위원장 연행
태백	· 인권위 · 사회선교협의회 · 광산노동자협의회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 전교조 태백지회 · 광산지역사회연구소 · 강노개추(강우회) · 한노개추(한보) · 민주쟁취 국민운동 태백시지부 ·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강원동남부 위원회 · 도노개추 · 도계 가톨릭노동인권상담소 ·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 성기사 · 민중당 · 태백마당 · 태백시민회 · 황재형화백 · 장노개추 · 한민노추(한성) · 강원동남부 · 경노개추	· 85.장성광업소 파업 · 86.경동파업 · 86.보안대 납치사건 · 87.대파업 (장성, 강원, 한성, 동해) · 87.민주화대행진(국본 결성, 단식투쟁) · 88.성완희 열사 분신 · 89.광산노동자 대회 · 89.성완희 침탈사건 · 89.전교조 태백지회 결성 · 90.장성 파업 · 90.한보파업(막장농성) · 90.광산노동자협의회 침탈사건 · 91.태백민중당 결성, 지자체 선거 출마 · 91.광부 수입 반대 운동 · 92.국회의원 민중당 배진 출마 · 92.김낙중 간첩사건 연루 배진 연행 · 92.박영희 간첩사건 연루 호남향우회 연행 사건

- 2005. 9. 개별 정리, 원고 작성
- 2005.10. 9 원고 열독회 (광산지역사회연구소)
- 2005.10. 23 원고 수정 교환
- 2005.11. 25 최종 수정 보완
- 2005.11 .30 파일 정리 전송

4. 면담 일지

5. 단체 방문 일지

현재 존속하는 단체가 없으며 단체 관련 인사들 대부분이 외지로 이주하거나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임.

6. 연구과정 상의 문제점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지 못한 관계로 중요한 자료의 분실과 유실이 많으며 이를 채워줄 관련 인사들도 모두 지역을 떠난 상태이고 연결이 되지 않아 충실한 사실 복원이 어려움.

II. 태백 · 정선 지역 사건 · 단체항목 목록

1. 연도별

1) 사건항목 목록

- 1-80년 사북 노동항쟁, 1980.4.21 ~ 24
- 2-미스유니버스 대회 폭파 미수사건, 1980.7.
- 3-85년도 장성광업소 파업, 1985.
- 4-광산노동자 살해기도 사건 (보안대 프락치 공작), 1987.
- 5-경동탄광 파업, 1986.
- 6-87년 강원탄광 파업, 1987.8.10 ~ 25
- 7-87년 동해탄광 파업, 1987.7.16 ~ 18
- 8-87년 동원탄광 파업, 1987.
- 9-87년 태백지역 민주화대행진 (국본결성, 단식투쟁), 1987.
- 10-87년 광산프락치사건, 1987.
- 11-1987년 삼척탄좌 1, 2차 파업, 1987.8.8 ~ 12
- 12-강원탄광 성완희 열사 분신투쟁 , 1988.6.29
- 13-89년 동원탄좌 파업 1989.5.20 ~ 6.14
- 14-전교조태백지회 결성 1989.06.08
- 15-제 1회 광산노동자대회 1989년 7월 8일
- 16-성완희열사기념사업회 및 인권위 침탈사건 1989.7.22
- 17-광산노동자협의회 침탈사건 1990.3
- 18-90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파업, 1990
- 19-한보탄광 막장농성 1990.7.7
- 20-민중당 정선군 지구당 결성, 1990.10.28
- 21-광부수입반대운동, 1991.2.28
- 22-91년 태백시민단체 시국농성, 1991.5.10
- 23-태백민중당 결성, 지자체 선거 출마, 1991
- 24-민중당 후보 성희직씨 강원도의원 당선, 1991.
- 25-김낙중 간첩사건 연루 배진, 정운환 고문사건, 1992.9.
- 26-박영희 간첩사건 연루 호남향우회 연행 사건, 1993.

2) 단체항목 목록

- 1-태백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태기청), 1977.3.10
- 2-카톨릭 광산 노동상담소 1985
- 3-태백선린교회, 1985

- 4-태백마당, 1985
- 5-광산노동자상담소, 1986.4.
- 6-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태백지회(태백K), 1986.
- 7-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1987.3.
- 8-도계가톨릭노동인권상담소, 1987.
- 9-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태백시지부, 1987.
- 10-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광산사선), 1988.3.29
- 11-삼척탄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삼노개추), 1987.8
- 12-강원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강노개추), 1988.9
- 13-동원탄좌 노동조건개선투쟁위원회(동노개추, 일명 '함께가자'), 1988.
- 14-성완희기념사업회(성기사), 1988.10.23
- 15-장성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장노개추), 1989.12.
- 16-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한노개추), 1989.12.
- 17-함백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함노개추), 1989.12.
- 18-도계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도노개추), 1989.
- 19-경동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경노개추), 1989.
- 20-한성탄광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한민노개추)
- 21-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선지회, 1989.
- 22-동원보건원 노동조합, 1989.
- 23-사북지역 문화패 말뚝이, 1989.
- 24-광산사회복지연구회, 1989.
- 25-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태백지회, 1989.
- 26-광산노동자협의회(광산노협), 1990.3.
- 27-민중당 정선 지구당, 1990.10.20
- 28-광역의회 선거를 위한 태백지역 범민주단체 연대회의, 1991.4.29
- 29-민중당태백시지구당, 1991.
- 30-광산지역사회연구소, 1991.5.6
- 31-광산지역산업재해문제연구소(광산문연), 1991.
- 32-태백시민회, 1991.
- 33-진보정당추진위원회 태백시지부(진정추), 1992.
- 34-정선지역발전연구소, 1992.5.
- 35-사북항쟁동지회, 1999

2. 분야별

1) 사건항목 목록

(1) 노동운동 관련 사건

- 1-80년 사북 노동항쟁, 1980.4.21 ~ 24
- 2-85년도 장성광업소 파업, 1985.
- 3-경동탄광 파업, 1986.
- 4-87년 강원탄광 파업, 1987.8.10 ~ 25
- 5-87년 동해탄광 파업, 1987.7.16 ~ 18
- 6-87년 동원탄광 파업, 1987.
- 7-1987년 삼척탄좌 1, 2차 파업, 1987.8.8 ~ 12
- 8-강원탄광 성완희 열사 분신투쟁, 1988.6.29
- 9-89년 동원탄좌 파업 1989.5.20 ~ 6.14
- 10-제 1회 광산노동자대회 1989년 7월 8일
- 11-성완희열사기념사업회 및 인권위 침탈사건 1989.7.22
- 12-광산노동자협의회 침탈사건 1990.3
- 13-90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파업, 1990
- 14-한보탄광 막장농성 1990.7.7

(2) 재야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 1-미스유니버스 대회 폭파 미수사건, 1980.7.
- 2-87년 태백지역 민주화대행진 (국본결성, 단식투쟁), 1987.
- 3-전교조태백지회 결성 1989.06.08
- 4-민중당 정선군 지구당 결성, 1990.10.28
- 5-광부수입반대운동, 1991.2.28
- 6-91년 태백시민단체 시국농성, 1991.5.10
- 7-태백민중당 결성, 지자체 선거 출마, 1991
- 8-민중당 후보 성희직씨 강원도의원 당선, 1991.

(3) 인권 관련 사건

- 1-광산노동자 살해기도 사건 (보안대 프락치 공작), 1987.
- 2-87년 광산프락치사건, 1987.
- 3-김낙중 간첩사건 연루 배진, 정운환 고문사건, 1992.9.
- 4-박영희 간첩사건 연루 호남향우회 연행 사건, 1993.

2) 단체항목 목록

(1) 노동운동 관련 단체

- 1-카톨릭 광산 노동상담소 1985
- 2-광산노동자상담소, 1986.4.

- 3-도계가톨릭노동인권상담소, 1987.
- 4-삼척탄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삼노개추), 1987.8
- 5-강원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강노개추), 1988.9
- 6-동원탄좌 노동조건개선투쟁위원회(동노개추, 일명 ‘함께가자’), 1988.
- 7-성완희기념사업회(성기사), 1988.10.23
- 8-장성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장노개추), 1989.12.
- 9-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한노개추), 1989.12.
- 10-함백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함노개추), 1989.12.
- 11-도계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도노개추), 1989.
- 12-경동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경노개추), 1989.
- 13-한성탄광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한민노개추)
- 14-동원보건원 노동조합, 1989.
- 15-광산노동자협의회(광산노협), 1990.3.
- 16-사북항쟁동지회, 1999

(2) 종교재야운동 관련 단체

- 1-태백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태기청), 1977.3.10
- 2-태백선린교회, 1985
- 3-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태백지회(태백K), 1986.
- 4-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1987.3.
- 5-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광산사선), 1988.3.29
- 6-광산지역사회연구소, 1991.5.6

(3) 재야운동 관련 단체

- 1-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태백시지부, 1987.
- 2-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선지회, 1989.
- 3-광산사회복지연구회, 1989.
- 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태백지회, 1989.
- 5-광역의회 선거를 위한 태백지역 범민주단체 연대회의, 1991.4.29
- 6-광산지역산업재해문제연구소(광산문연), 1991.
- 7-태백시민회, 1991.
- 8-정선지역발전연구소, 1992.5.

(4) 문화운동 관련 단체

- 1-태백마당, 1985
- 2-사북지역 문화패 말뚝이, 1989.

(5) 정치운동 관련 단체

1-민중당 정선 지구당, 1990.10.20

2-민중당태백시지구당, 1991.

3-진보정당추진위원회 태백시지부(진정추), 1992.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1. 사건명 : 80년 사북 노동항쟁

발생일 : 1980.4.21 ~ 24까지 4일간

관련 일지 :

- 79.4.4 동원탄좌 6대 노조 지부장에 이재기 당선
- 79.5.9 전국광노, 당선무효 및 직무대리 선임
- 79.11.3 이재기씨 재투표 당선(제주도/간접선거)
- 80.4.16 이원갑씨등 반대파 광노에 상경하여 농성
- 80.4.21 조합원들 노조 사무실에서 농성, 감시하던 경찰 지프가 광부2명 치어 중상 야간, 성난 광부들 사복읍 시가지 완전 점거 후 지서 및 노조사무실, 직원숙소 파괴, 무기고 점거, 야간 횃불시위 등
- 80.4.22 2,500명 광부와 가족 집단 시위, 지부장 부인 납치
경찰 투입, 광부들의 강력한 반격으로 사망, 부상발생
- 80.4.23 협상 시작, 이원갑씨 공식 대표로 합의, 협상은 실패
분위기 격앙, 사택별 마을별 집결 6,000명 가세
- 80.4.24 광부대표 70명, 협상 타결
납치된 이재기 지부장 부인 석방, 무기고 경찰 인계
- 80.5.5 계엄 합수부, 합의 깨고 사북항쟁 주도자 검거시작
지도부 13명등 80여명 연행, 고문과 폭행
- 80.8.6 계엄 군법회의, 28명에게 유죄 선고 (이원갑, 신경 28명 징역 1년6월~5년)

배경 :

사건의 표면은 어용노조에 대한 투쟁이 우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70년대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일하던 탄광노동자들의 쌓여있던 불만과 분노가 일시에 폭발한 것임. 매년 200명 이상 죽어나가던 탄광 막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수용시설 같은 광부사택, 도급제 같은 이중의 착취구조에 대한 광부들의 분노가 배경이 됨.

내용 :

어용노조 지부장 퇴진 요구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경찰의 지나친 개입 과정에서 경찰차가 광부들을 치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짐. 광부와 가족 6,000여명이 3 동안 사복읍 시가지를 완전 점거하여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태

가 지속되었으나, 광부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사수대 등이 무기고와 화약고 등에 대한 통제하는 등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이 수반됨. 3간의 투쟁이 끝나고 협상이 이뤄졌으나 이후 계엄 합수부에서 무차별 연행, 고문, 구타를 가하고, 언론에서는 ‘폭도’ ‘무법천지’ 등으로 보도함. 그 결과 당시 주도했던 40여명은 심각한 고문 후유증을 앓고 해고되는 등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채 대부분 타지역으로 떠나감.

이 사건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가짐. 즉 79.10.26 박정희 대통령 사망사건~80.민주화의 봄~80.계엄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 역사의 격변기에서, 열악한 노동현장의 실상을 전국민적으로 알리고 이후 파업투쟁이 촉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한달 전 벌어진 이 사건을 당시 집권음모를 꾸미던 신군부 세력이 ‘사회혼란상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확대, 왜곡하면서 집권의 명분으로 삼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도 함.

또한 이 사건은 당시 산업전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탄광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됨. 이 사건이후 탄광노동자들에 대한 사택제공, 복지시설 설치, 산업안전 시설 설치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기도 함.

90년대 들어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왜곡된 사북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2명의 명예회복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10여명에 대한 심의로 진행 중에 있음.

관계 인물 :

사북항쟁 동지회 명부

이름	비고	이름	비고
이원갑	회장/사북	이명규	원주
신 경	부회장/경주	신철수	원주
최돈혁	태백 철암	황분남	경주
오항규	서울 광장구	최석래	부천
전효덕	서울 노원구	신정자	정선 사북
강운호	울산	이태형	원주
김대연	대구	박근식	원주
윤병천	충무/정선 남면	양규용	전주
안재	경기도 광주	민기복	시흥
조행웅	*사망	박노연	정선 남면
신천수	인천	진복규	
노금옥	원주	윤광원	* 사망
정인교	정선 사북	최흥선	안산
황한섭	태백 금천동	문명옥	
김진하	정선 사북	신현이	* 사망
김분년	정선 사북	강신자	
윤원철	원주	최옥자	
이완성	원주	천철성	* 사망
박대성	정선 남면	이창식	* 사망
이명득	정선 사북	전선자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1980.4.사북」. 정선지역발전연구소. 2000.4.

「다큐멘터리 ‘먼지 사북을 묻다」.이미영 감독

「사북항쟁 기념식 자료」 (2000~2005)

2. 사건명 : 미스 유니버스 대회 폭파 미수 사건

발생일 : 1980년 6월 29일

관련 일지 : 황인오 씨 수기 자료

1980.5.8 사북사태 검거선봉을 피해 황인오씨 서울로 도피

1980.6.9 김종태 열사의 광주학살 진상규명 분신을 계기로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사건 결심

1980.6.26 폭파사건에 사용할 탄광용 폭탄 구입을 위해 사북도착

1980.6.29 대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서 미수사건으로 끝남

배경 :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 시나리오 진행과정에서 민심돌리기 차원으로 추진 중이던 미스 유니버스 서울대회장을 폭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이 사건은 사북 지역에서 탄광 일에 종사하던 황인오씨가 북한 간첩과의 연계 속에 탄광에서 사용되는 폭약을 훔쳐 미인대회장을 폭파하여 신군부 정권 집권 시나리오에 타격을 가하려 했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수사발표였음. 당시 서울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직접 다뤘던 것으로 황인오씨는 이 미수사건으로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년6개월간 옥고를 치렀음. 황인오씨는 ‘당시 사용하려고 했던 폭탄은 사제폭탄으로 사북 탄광의 폭약을 개조한 것이었고 폭파용이 아니라 진공탄 성격의 위협용이었다’고 함. 또한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그것도 유명 첼리스트인 로스트로포비치가 항의의 뜻에서 서울 내한공연을 취소한 마당에 세계적인 미인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 미국 CBS가 실황중계를 하는 점을 이용해 단상을 점거하여 광주민주화 운동의 실상과 김대중씨 석방, 국회해산의 부당성 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도로 계획했다’고 밝힌바 있음.

내용 :

관계 인물 : 황인오, 권운상(작고), 정구원

관계 단체 : 없음

관계 자료 :

「황인오의 사북항쟁기」 카페와 인터넷 신문게시판에 18회 연재

「80년 4월 사북사건 자료집」 정선지역발전연구소

관련 사건 : 80년 4월 사북노동항쟁

3. 사건명 : 85년도 장성광업소 파업

발생일 : 1985.

관련 일지 :

배경 :

장성광업소 노동조합의 어용화,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엄청난 폭력과 비리, 그리고 광업소측의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 그 배경에는 광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생활상의 문제가 깔려 있음. 정부가 사북 동원탄좌의 대규모 시위 이후에도 광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외면한 채, 고식적인 사건수습만 급급했고 광부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는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지속함.

내용 :

관계 인물 :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장성광업소 파업 진상보고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협의회, 1986

「광산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폭행경찰을 엄벌하라!」

관련 사건 :

성명서

광산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폭행경찰을 엄벌하라!

- 장성광업소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보는 우리의 입장 -

우리는 80년 4월 이후 사북광산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준 엄청난 충격과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80년 5·17 이후 현 정권의 물리적 탄압으로 잠재되었던 광산노동자의 생존권 문제가 최근 대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와 내용으로 벌어진 대규모 파업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큰 경종을 울렸다. 우리는 장성광업소 노동자의 투쟁과 승리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을 중지하고 근본적인 노동문제의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그 발단은 장성광업소 노동조합의 어용화,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폭력과 비리, 그리고 광업소측의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개입 등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광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생활상의 문제가 깔려 있음을 직시한다. 이는 정부가 사북 동원탄좌의 대규모 시위 이후에도 광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외면한 채, 고식적인 사건수습만 급급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아직도 광부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는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지속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도 광산노동자들은 여가와 오락은 생각도 할 수 없는 혹독한 근로조건과 노동강도에 못 미치는 저임금과 진폐증, 규폐증 등 광부 직업병의 만연, 또 해고, 감봉, 무단전철 등 불안한 고용상태의 지속, 그리고 산업재해의 빈발과 불충분한 보상 등으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부녀자들에게조차 무차별하게 가해진 현 정권과 그 하수인 경찰의 폭력성에 대하여 분노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어떠한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재삼 확인하였다. 또한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끌려가 가슴 등을 무수히 구타당하여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콩팥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아직도 병원에서 신음하는 노동자(강호진 35세 장성광업소 광부)가 있으며 한편 경찰을 폭력경찰의 색출은커녕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장성광업소의 사건은 표면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은 채 정부와 석탄공사는 노동자의 원성을 사고있는 광업소장과 지부장의 전보발령을 내어 기만적인 수습책만 내놓고 있으며 또 다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불씨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더욱 거세어 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그것은 이미 장성사건에 뒤이은 철암의 강원산업파업, 또 그 전에 일어나 어룡탄광 농성 등의 경우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장성광업소 노동자와 가족의 파업이 단순히 우발적인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현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이 야기한 필연적 사태였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정부가 내세우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현행 노동입법을 개폐하라

1.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폭력으로 탄압하지 말라.

1. 노동자의 원성의 대상인 광업소장(홍영표)과 지부장(김동철)을 즉각 파면하라.

(현재 서울본사와 장성광업소에서 각각 근무 중임)

1. 경찰에 의해 폭행당한 강호진씨의 치료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1. 폭행경찰관과 장성경찰서장을 구속하여 엄벌에 처하고 내무부장관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우리는 이러한 사항이 달성될 때까지 광산노동자의 의로운 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연대와 지원을 보낼것이며 책임있는 정당, 언론, 사회단체들도 광산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존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1985. 3. 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주·통일국민회의강원지부

4. 사건명 : 광산노동자 살해기도 사건(보안대 프락치 공작)

발생일 : 1986.11.7

관련 일지 :

배경 :

내용 :

강원도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운동가 박인균씨가 작년말경 기관원의 프락치로 보이는 자에 의해 절벽에서 떨어져 간신히 살아났다. 박인균씨는 강원대 성조기 소각시위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광산형장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하던 중, 기관원의 프락치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절벽으로 유인되었으며 그는 박인균씨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다행히 박인균씨는 죽음을 면했으나 심하게 다쳤으며 이를 기관원의 프락치에 의한 살해

기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노동운동가 살해기도 - 범인은 프락치로 추정

태백광산지역 노동운동가인 박인균씨(26세)가 지난 11.7 오후 5시 30분쯤 태백시 연화동 미인폭포근처에서 기관 프락치로 추정되는 장창국(29세, 가명 장익수)에게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수상당국은 오히려 박씨를 연행해 구타, 코에 고추가루물 붓기 등 모진 고문을 가하며 박씨를 폭력테러조직의 주모자, 공산주의자로 몰아부쳐 주위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살해기도

테러를 당한 박인균씨는 82.4.강원대 재학시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민은 들쥐와 같다”고 말한데 분개하여,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위를 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84.11.박씨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영등포 동일제강에 입사

85년 노조결성 때 위장취업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86년 6월에 박씨는 광부들의 어려운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태백시에 정착했다. 박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태백시 황지동 선린교회를 다니면서 광부들 모임을 조직해왔다.

사건이 일어난 11월 7일 장창국은 박씨에게 석탄공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테니 오후 2시에 연화다방에서 만나자고 해 박씨는 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씨는 오후 2시 점심식사관계로 약속시간보다 다소 늦을 것임을 전화로 알리고 오후 3시쯤 다방에 도착했다. 다방에는 장 혼자만 있고 친구들은 없었다. 장이 “친구들은 미인폭포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개구리를 잡고 있다. 함께 가보자”고 해 둘은 미인폭포에 오후 3시 30분쯤 도착, 주위를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에 장은 낙엽송 숲 앞에서 심각한 얼굴을 하며 “너는 나를 의심하고 있다. 나는 너를 믿고 있는데”라고 말해 박씨는 “형님 무슨 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고 응답했다. 장은 “네게 보여줄게 있다”며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 따라오라”고 해 박씨는 낙엽송 숲으로 100m정도 장을 따라가니 경사 70도 정도의 비탈이 나타났다. 장은 비탈 1m거리에 있는 나무 밑을 가리키며 박씨에게 “저 밑에 무엇이 있나 보라”고 해 다가가 보니 가로 40Cm, 세로 25Cm 정도의 남색가방이 놓여 있었다. 장이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해 가방을 갖다주자 장은 낙엽송 숲안으로 1m정도 옮겨 앉으며 가방 속에서 높이 25~30Cm 지름 10Cm정도의 쇠통을 꺼내어 박씨에게 넘겨주었다. 박씨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자 장은 “깡하는 것이다”고 대답했다. 박씨가 얼른 쇠통을 돌려주자 장은 놀라 두려움에 차 있는 박씨에게 쇠통을 가리키며 “이것은 폭파장치하여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지름 3~4Cm, 길이 13Cm정도의 다이나마이트 4~5개를 꺼내 “이것은 투척용”이라며 또 가방 속에서 1m정도의 도화선을 보여 주었다. 장은 계속해서 “나는 가다피가 좋다. 김포공항처럼 폭파해야 한다”고 해 박씨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빨리 문든가 하여 폐기하십시오. 누가 보면 큰 일납니다”하자 장은 일어서서 버랑을 따라가며 “너도 하나 만들어줄까?” 내가 집에서 숨길데가 마땅치 않다. 너희 집에 감추어 두자”고 했다. 박씨가 “그런 건 필요 없습니

다. 감추어 둘 곳도 없습니다. 노동운동이 폭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 있는 사람끼리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폐기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장이 그렇게 하겠다며 ”아까 온 곳으로 가자“고 해 처음 가방을 꺼낸 곳으로부터 20m정도 떨어진 계곡 끝에 함께 서 있었다. 이 때가 오후 5시 30분쯤으로 주위는 해가 다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씨가 폐기할 때를 기다리며 두려움과 불안, 걱정에 빠져 계곡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머리 뒤를 쇠몽치로 강하게 맞는 느낌과 더불어 박씨 몸은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박씨는 떨어지면서 ‘살아야 한다. 죽을 수 없다’고 생각, 손과 발로 바위와 풀 등을 긁으며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상체를 위로 올렸다. 다리가 바위에 걸려 더 이상 굴러 미끄러지지 않아 일어나 보니 온 몸이 피투성이로 얼굴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목덜미로 흘러내렸으며 다리에는 살이 손바닥만큼 떨어져 나가 피가 옷을 적시고 발바닥은 돌에 부딪혀 피가 검게 맺혀 있어 땅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 늦으면 죽는다. 계곡 위에서 바위나 폭탄을 던지면 죽는다’는 생각에 바위와 숲을 헤치고 부근 마을로 절뚝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 박씨는 전화로 도계성당 김창수 신부 등에 구명을 요청하고 강릉부모에게 전화해 도계성당으로 와달라고 말했다. 오후 6시쯤 강창수 신부가 도착해 같이 차를 타고 밤 7시쯤 도계성당에 도착했다. 밤 11시쯤 박씨 부모가 성당에 도착, 11시 30분쯤 진료를 받기 위해 태백시 김정형외과로 출발했다. 태백시로 가던 중 11시 50분쯤 통리검문소에서 완전 무장한 전투복차림의 사람들에게 검문을 당했다. 이들은 박씨가 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이놈이다“ 소리치고 M16소총으로 실탄장전 소리를 내며 박씨 가슴에다 총구를 들이대고 ”야 개새끼야 내려“라며 고향을 질렀다. 이들은 박씨 양팔을 뒤로 꺾어 뒷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하얀 끈으로 재갈을 물려 태백경찰서로 연행했다. 이 때를 전후로 하여 경찰은 원기준(26세, 전도사, 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 간사), 권오규(27, 석공장성광업소 광부, 태백 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등 10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8 새벽 1시 40분쯤 박이 거의 실신상태에 빠져 심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박씨를 태백시 장성병원에 입원시켰다. 8 오전까지는 면회가 가능했으나 오후부터는 통제되었다. 오후 3시쯤 박씨는 보안대원인 배천수 등 10여명의 사복들에 의해 병실에서 강릉보안대로 옮겨졌다. 또 박씨와 같이 활동을 했던 원기준씨 등 7명도 보안대로 연행됐다.

고문 용공조작

8일 오후 7시쯤 강릉보안대 지하실 방으로 끌려간 박씨는 15일 새벽까지 모진 고문에 시달리며 폭력테러조직의 주모자 또는 용공분자임을 실토하라고 강요당했다. 수사관은 8일 저녁 박씨에게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묻고 런닝과 팬티까지 벗겨놓고 “이 개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너 같은 빨갱이 새끼는 죽여 없애도 아무도 몰라” 하면서 박씨의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와 흉부, 옆구리를 발길질해 콘크리트바닥에 쓰러뜨리고 수십 번을 차고 짓밟았다. 수사관은 “폭탄은 네가 만들었지. 서울에서 폭탄을 만들어 갖고 내려와 미인폭포에 감춰두고 장창국을 불러내어 김포공항처럼 폭파할 것을 명령하자 장창국이 거부하여 박인균이가 주먹으로 먼저 장창국을 때려 싸움

이 되고 그러던 중 떨어지게 된 것이다. ……네가 홍병윤, 최진석에게 화약, 뇌관, 도화선을 구해오라고 명령한 사실을 흥과 최가 불었다”고 말하며 실토할 것을 강요해 박씨가 이를 부인하자 9일 새벽 1시부터 낮 12시까지 수십번 뺨과 얼굴을 강타하고 찬물을 온몸에 계속 부으면서 모진 고문을 계속했다. 수사관들은 8일 오후 4절지로 된 조직도표와 8절지 100페이지의 철 묶음을 보여주며 박씨에게 조직과 폭탄제조를 시인할 것을 강요했다. 이들은 밤 12시까지 박씨의 전신을 무수히 구타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를 꿰어 앉혀놓고 나무토막을 양 허벅지다리사이에 끼워 넣고 밟으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팔을 뒤로 제끼고 머리채를 잡으며 얼굴을 치켜 세워놓고 수사관 5~6명이 달려들어 고추가루물을 콧구멍 속에 집어넣으며 폭탄을 만든 것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11월 10일 50대초의 보안사요원이 나타나 “폭탄제조는 장창국이가 모조품으로 만든 것이 밝혀졌다”며 수사관들에게 “폭탄사건은 접어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때부터 수사는 방향을 돌려 박씨를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박씨에게 북한 방송을 청취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박씨가 이를 부인하자 다시 박씨의 허벅지, 가슴, 배,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15일 감호처분 해야겠다”며 협박을 가했다. 박씨는 고문을 당해낼 수 없어 몇 번 방송을 들었다고 허위 자백했다.

11월 11일에도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생산과 분배가 평등한 민중·민주국가를 건설하자”,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이고 이 보다 더 좋은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할 것을 강요해 박씨가 이를 부인하자, 복부, 뺨, 흉부 등을 수십 차례 구타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이 쭈시고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자포자기심정으로 없는 사실들을 인정했다.

박씨와 같이 연행됐던 사람들도 비슷한 종류의 모진 고문을 당했다.

11월 14일 수사관들은 석방의사를 비치며 진술서를 자기들이 요구하는데로 쓸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오후에는 “나가기 전에 장창 국을 한번 만나보라”며 장창국을 데리고 왔다. 장의 몸을 보았지만 고문당한 흔적은 없었다. 15일 새벽 박씨 등 8명은 태백 경찰서로 이송돼 박인규씨를 제외한 7명은 15 석방되었다. 박씨는 11월 17일 낮 12시쯤 김창수 신부가 신병인수 약속을 하고 석방됐다. 박씨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 태백시를 떠나 숨어 있고, 경찰은 최근 박씨를 다시 찾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을 수습 무마하기 위해 장창국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

장이 프락치임을 뒷받침하는 것

장창국은 평소 장익수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왔다고 한다. 장은 9월부터 11월 사건일까지 10여 차례이상 박씨에게 “우리의 상부조직이 어디며 연계 맺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해왔고 9월 5일쯤에는 태백시 상장동 장의 집에서 “태백과 도계지역에 삼척출신의 부부노동자가 있는데 너는 아느냐”, “혹시 네가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들이 우릴 위에서 조종한다”고 엉뚱한 말을 했다고 한다.

최진석(24세, 광부 선린교회교인)씨는 “박인규씨의 노선을 하도 캐어묻기에 민통련이다

라고 흘러가는 소리로 말하였는데 그것이 보안대 자료집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장창국이 평소에 한 말(예:상동의 미군부대 같은 것은 폭파해 버려야 한다)이 모두 문호나 인군이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방송을 안들어봤느냐 하며 좀 들어보라고 권유하면서 ‘재미있는 것이 많다’, ‘새벽에 노래 나오는 것도 재미 있다’라고 서슴없이 말한 것이 박인균이가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장창국이 본명이라는 것도 수사 받을 때 비로소 알았다고 하며 조사받을 때도 다른 사람의 것은 무척 캐물었는데 장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한다.

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 간사인 원기준씨는 “조사를 받고 있던 책상 위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4절 크기의 흰 종이 위에 이미 태백광산촌 불순테러분자 운운하는 조직표가 뽁뽁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인균의 전력사실과 ‘폭탄테러를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저와 연행된 사람 모두는 박인균의 조직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 수사 총지휘자 방으로 불러 올라가 심문을 받던 중에 우연찮게 책상 위에 있는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8절지로 된 크기에 타이프 글씨로 적힌 약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태백광산촌 불순 테러분자……’ 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밑에는 국군보안사라고 씌어져 있었습니다. 이 책은 손으로 씌어진 것이 아닌 인쇄된 것이었으므로, 저희들이 잡혀 오기 전에 이미 폭탄테러단 조직에 관한 수사는 종결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 박인균과 저는 함께 자취하면서 다 낡은 제이코 카세트라디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이라곤 KBS뿐 FM방송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고 녹음기는 고장난 고물이었다. 또한 단파라디오가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다는 북한 방송을 이러한 고무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취방에서 입수한 라디오를 증거물로 들어 북한 방송을 청취했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강요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밖에 장창국에 대한 의문점은 장이 개인적으로 박인균을 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보안사나 경찰에서 장창국에 대한 변명을 애써 하려 하고 있고 수사 마무리 때 장을 박인균씨와 화해시키려고 했던 것, 김창수 신부가 “작전완료” 운운하는 경찰의 말을 들었다고 한 점, 장이 소모임 활동에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집요하게 질문해 왔던 것, 사건전후로 소모임의 인원을 전원 사전 파악하여 연행한 점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광산노동운동가 살해기도 -범인은 프락치로 추정」, 『말』, 제9호, 1986.12.31

관계 인물 : 박인균, 원기준, 정문호, 권오규, 신성식, 김창수

관계 단체 : 태백선린교회, 도계성당,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관계 자료 :

「광산노동운동가 살해기도 -범인은 프락치로 추정」, 『말』, 제9호, 1986.12.31

관련 사건 :

성명서

광산노동자살해기도사건을 접하고

갈릴리의 가난한 민중 속에 오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온 우리 영동 인권선교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태백에서 있었던 광산노동자 살해 기도사건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다.

스포츠의 열기 속에서 감춰졌던 남미 아르헨티나의 독재 말기에 저질러졌던 무서운 납치, 살해극이 결코 강 건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불안감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어서 속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11.7 17시경(피해자에 의하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라고 함) 광산 노동자 박인균씨(26.선린교회) 김창국(가명 장익수 30세?, 본인은 함태광업소에 근무한다고 주장함)이, 태백시 연화동 소재 미인폭포 부근 절벽에서 사제폭발물로 추정되는 것을 제시하면서 “제2의 김포공항 사건”을 만들자고 제의하고, 박인균씨가 이에, 노동자들은 폭력적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둔기로 뒤통수를 후려친 후 30미터 가량의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려 하였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박인균씨의 진술에 의하며 김창국은 박인균씨가 주도하는 노동자 학습 모임에 함께 공부하면서 장익수라는 가명을 써 왔고(이는 사건 발생 후 가명임을 알아냈다), 평소 가끔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한번은 일반인이 구하기도 어렵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군 작전 지도가 자신에게 있으니 한번 보자고 권유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김창국이 노동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유인하여 절벽을 떨어뜨려 박인균씨를 살해하려 하였던 것이다. 박인균씨는 다행히 부상만 입고 인근 부락으로 피신하여, 도계성당에 구명을 호소, 신부님에 의해 성당으로 인도되어 보호되었다.

이어 연락을 받은 박인균씨의 부모님이 곧 성당으로 도착 응급치료를 하기 위해 황지의 김정형외과로 옮기던 중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태백경찰서로 연행, 새벽에 경찰에 의해 장성병원에 입원되었으나, 8 오후 3시경 강릉 보안사 배천규에 의해 신병이 인도된 것으로 추후 확인되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당일 밤 10시 이후 8 새벽 사이에 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박인균씨와 함께 평소 노동자 학습소모임에 참석하였던 광산노동자들을 10여명 가량 (확인 8명)연행 하였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억눌린 이권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은 구약시대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동하라는 명령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 왔다. 우리는 오늘 접한 이 소식에 대해 일단 엄밀한 진상을 조사, 규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프락치에 의한 계획적인 살해 음모인지, 아니 우발적인 사건을 확대하여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연행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그것이 분명해져야 한다.

이제까지 수집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사실임을

우리들은 믿으나 좀더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우리들은 당장이라도 살해 기도 사건의 피해자 박인균씨가 가족에게 인도되어 인도적 견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연행된 사람 전원의 가족에게 연행된 사람의 소재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연행된 사람들의 행위 내용의 실정법 저촉 여부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박인균씨의 경우 30여 미터나 되는 절벽 아래 둔기로 맞은 후 떠밀려 떨어져 중상을 입은 몸이고 장성병원에서도 계속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워 강릉 보안대로 넘겨졌다고 하는데, 이제까지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경우들처럼 치료도 못 받고 잔혹한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그 외 원기준(26세, 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 간사, 황지교회)씨, 권오규씨(27세, 장성광업소,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총무, 계산동교회), 유태호씨(24세, 선린교회), 정문호(24세, 선린교회, 함태광업소), 임성열씨(24세, 동해광업소), 최진석씨(24세, 선린교회), 홍병윤씨(24세, 황지교회)등은 살해 기도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박인균씨와 자주 만났고, 소위 의식화 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조차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는 또한 우려된다.

우리 영동 인권선교위원회는 그간 신호수, 심성수, 우종원씨 등의 의혹에 쌓인 실종 변사사건과 박인균씨 살해기도 사건이 같은 맥락에서 있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 속에 박인균씨 등 연행자 전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 하나의 사건이 조작되지 않기를 우려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해 아래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지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볼 것이다.

또한, 본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탄압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만일 지금 전국적으로 보여지는 노동 운동 등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음모이라면 야훼의 이름 아래 이에 대항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986. 11.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영동인권선교위원회

5. 사건명 : 경동탄광 파업

발생일 : 1986.9.9

관련 일지 :

*9월 8일

14시 : 새로운 집행부와 노사협약에 들어감. 이 협의에서 단체협약서 내용 중 16개 조항 개정키로 함. 그러나 이중에는 지난 7월 26일 합의된 6개 조항 중 가족수당(요구금액의 33%)이 제외됨.

23시 40분경 : 이 사실을 새로운 집행부가 병방 노동자들을 노무과에 소집시켜 발표. 이 때 노동자들은 가족수당이 협의에서 빠진 것을 듣고 회사측에 속았다며 술렁거리고 주동자 없이 자연스럽게 파업이야기가 나옴.

*9월 9일

15시 30분 : 을방 노동자들에게 취업회에서 단체협약합의 사실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인원이 병방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수당지급 문제에 대하여 제기하면서 술렁거림.

18시경 : 갑방 퇴근자 20여명과 장봉철, 이상태(지난 7.파업시 노동자대표)가 노조사무실에 와서 가족수당지급을 요구하며 노조에 지난 7.노동자와 회사의 합의사항을 계속 확보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 추궁함.

19시경 : 관리과 직원 출동하여 노동자들의 항의를 말로 무마하여 해산시킴.

20시경 : 노동자사택 22동 아파트 앞에 30여명이 운집하기 시작함.

21시 30분경 : 달전 건너편 도로상에 30여명의 부녀자들이 연좌하여 병방 출근 버스운행을 저지하고자 함.

22시경 : 아파트를 비롯하여 구사택, 희목사택, 3구사택 등의 가족들이 합세하여 150여명이 모여듦.

22시 20분경 : 회사사무실을 향하여 진입

23시경 : 안전등실 앞 보안감독실 앞에서 병방 출근 노동자의 입궐준비를 저지하면서 농성. 이 때의 요구사항은 가족수당 지급할 것과 이를 회사측에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노조위원장 물러가라는 등이었다.

* 9월 10일

00시경 : 사무실 부근에서 농성

02시 : 농성 인원 600여명으로 늘어남.

02시 20분 : 노조위원장이 당일 오전 다시 회사측과 협의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관철 못시킬 시 노조집행부 전원 사퇴할 것을 호언.

02시 30분 : 회사버스 7대 이용하여 해산하여 귀가함.

06시경 : 다시 모이기 시작함. 노조측에서는 지난 약속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음. 이 때 7.26 노사협정 시의 대표 이상태, 김윤길, 장봉철, 허광영, 김경자(여), 장순기(여)를 연행, 이 때의 요구사항은 가족수당 월 30,000원 지급, 퇴직금누진제 환원, 연행자 석방 등이었다.

07시 30분경 : 달전 도로상에 부녀자 70여명이 연좌농성으로 갑방 출근버스 차단

09시 30분경 : 달전 도로상에 부녀자 100여명 집결, 계속 농성

10시경 : 전투경찰 200여명 투입, 농성제지

11시경 : 농성자 150명으로 증가

11시 20분경 : 농성자 도계읍내로 진입. 가세된 인원까지 800여명이 도계문화관 앞 간선도로에서 신문지, 상자종이 등을 깔고 앉아 농성을 벌임. 이로 인해 도계-상덕간의

모든 차량운행이 중단됨. 이날 원주, 영월, 정선, 서울 등지에서 경찰병력이 계속하여 증원 파견되어 내려오고 있었다.

15시경 : 강원도경국장 도계도착

16시경 : 읍장, 도경국장, 노조위원장 등이 나와 농성자들에게 가끔 회유와 협박을 함.

17시 10분경 : 문화관 앞에서 농성을 하던 사람들 중 약 150명이 태백방향으로 약 2km 떨어진 영동선 흥전4리 철도건널목으로(속칭 피난선) 옮겨 레일 위 약 70m 가량 주저앉거나 누워서 농성. 이 때부터 농성이 두군데로 나뉘짐.

20시 30분경 : 전국광산노조연맹위원장 이성식이 문화관 앞 농성장에 와 11 10시까지 노사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야기 함.

21시 10분경 : 광산노조위원장 이성식이 흥전 건널목 농성장에 와서 문화관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해산을 종용하려 하자 농성노동자들이 “한 두번 속았느냐”며 물러가라고 요구. 광산노조위원장이 타고 온 도계읍사무소 소속 짚차에 둘러싸서 차를 넘어뜨리려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이루지 못하자 돌을 던져 차 앞 유리창을 박살 냄.

21시 50분경 : 광산노조위원장이 설득 실패, 40여분 간 승용차를 둘러싸고 실갱이만 하다가 광산노조위원장이 사태의 험악함을 알고 달아남. 여기저기서 회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옴. 이 때 농성자 50여명이 됨. 밤이 깊어지면서 농성자들은 부분적으로 귀가하고 경찰병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감.

* 9월 11일

00시 30분경 : 문화관 앞 농성자들 대부분 귀가. 또는 건널목 농성장에 합세.

03시경 : 경찰의 무장 시작

04시 20분경 : 도로차단농성은 해산되었고, 철도농성자들은 약 50명이 레일 위에 누워 있고, 주위에서 농성하던 광부·부녀자 등이 약50명 있었다.

04시 30경 : 경찰 400여명이 철도건널목 양편으로부터 압박해 들어오면서 메가폰으로 “5분만 여유를 줄테니 자진해산 할 것”을 요구하며 15분 정도 경과

04시 45분경 : 실갱이를 벌이다가 경찰병력이 투입되면서 강제 해산시킴.

05시 10분경 : 회사버스에 강제로 시었으나 농성자들이 승차를 거부하고 약 2km 떨어진 읍내 중심가 도계지서 앞까지 도보로 와서 해산

06시 30분경 : 광업소 앞 달전아파트 부근에 약 300명이 집결.

07시 20분경 : 회사사무실로 이동하여 연좌

09시 30분경 : 500여명이 연좌

10시 30분경 : 상덕광업소 노무과 앞 광장에 1천 3백여명이 집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조위원장 박진규, 광산노조위원장 이성식, 광산노조조직부장 남일선 등이 나와서 노조의 입장설명. “여러분의 행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행동이며 불법적인 것이다. 전국광산노조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 연맹은 전국광산노동자의 대표기관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잘 따라줘야 한다. 다소 맘에 안들더라도 잘 따라준다면 이번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협박을 통해 고조되어 있는 광산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키고 이 약화된 열기를 연맹의

지도아래 묶어두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회사측에 오히려 유리하도록 상황을 유도해 나감.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노조간부가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11시경 : 이성식 위원장이 나와서 전국 79개 광산노조위원장을 긴급 소집하여 이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기존의 노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탓으로 냉담한 반응을 받음. 또 이성식은 경동탄광이 전국광노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했으므로 앞으로 광산노조가 광부들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해하도록 하겠으니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함.

12시경 : 광노간부가 “협상을 해보아서 되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여러분의 의사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연맹을 믿지 않고 불신한다면 우리들은 떠나겠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라. 연맹이 협상하는 것을 한번 믿어 보라.”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연맹간부들이 회사측과 단체교섭에 들어갈테니 가서 불일들 보시고 집에서 쉬었다가 회의 끝날 때에 오라고 함.

12시경 : 10일 철도농성장과 문화관 앞 농성장에서의 이야기와는 달리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와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이 불신하고 있는 노조임원들로만 해서 협상에 들어감.

16시 35분경 : 협상의 위임을 자처한 광노연맹 간부들과 회사측간의 협상이 결려됨. 모여 있던 800여명의 농성자들에게 모두 농성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연맹임원, 노조대원 등을 포함해서 남자지원자 50명만 무기한 단식농성하자고 제의. 이 제의가 이때까지 농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부녀자들을 투쟁에서 소외시키고 1,000여명의 농성자를 서서히 해산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을 간파한 농성자들이 야유와 비난을 함. 그럼에도 실질적 지도부가 없는 노동자들의 농성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요, 굳이 단식농성을 감행함. 이에 노동자들은 200여명이 단식농성을 자원하여 농성에 돌입. 그러자 연맹에서는 단식농성자와 일반농성자를 줄을 쳐서 구분하여 투쟁은 단식 농성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일반부녀자를 비롯한 농성자를 투쟁의 대열에서 소외시켜 구경꾼으로 만들려고 끝없이 획책함. 또한 외부의 불순세력 침투 운운하면서 파업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겁을 주면서, 사전에 전혀 노조교육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전혀 모르는 노래를 틀어대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 감. 단식농성자 이외에는 해산할 것을 자주 종용하나 노동자들 반응 냉담.

17시경 : 회사버스 5대를 동원하여 농성자 해산 유도. 일부 버스에 승차하기도 했으나 부녀들이 버스 앞에 누워 농성자 해산시키는 것에 대해 항의, 다시 농성에 참여.

23시경 : 단식농성자 150여명. 일반농성자 300여명 등 500여명이 광산노조전국연맹 간부의 지도 아래 “회사측은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 중 지역노조위원장 5,6명 가세, 광노연맹측은 ‘흔들리지 않게’, ‘엄마야 누나야’, ‘선구자’, ‘세계노동가’, ‘잘살아보세’ 등을 스피커로 틀어 놓음. 또 농성자 주변 사택에 ‘경동탄광노동자 여러분!’ 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이 ‘경동탄광노동자 생존권 수호대책위원회’ 명의로 노조집행부 불인정, 가족수당지급, 퇴직누진제 적용, 임금 등이 석탄공사 수준으로 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뿌려짐.

***9월 12일**

00시 30분경 :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권오규씨 연행하여 농성장에 온 이유 등을 조사받고 03시경 풀려남.

03시 30분경 : 뿌려진 유인물을 연맹간부들이 읽어주고 연맹의 입장을 비호하는 이야기를 함.

09시 30분경 : 단식노동자 100여명, 일반농성자 200여명, 한진희 노동부차관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협상이 안되니 나를 믿고 대화를 나누자고 말해 박수까지 받은 뒤 이어 광업소속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이성식 광노위원장, 이재열 등 경동노조대표 17명과 복지회관 회의실에서 협상에 들어감.

11시 45분경 : 기관원 참석하여 노동자 강제해산에 항의하자 “아줌마가 철도에 누워있는 것을 우리 경찰관이 위협해서 옮겼다. 당신이 주동자냐”며 협박. 주동자 색출, 협상결렬, 노동자들이 노조대의원의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자 대표로 이재열(채탄부), 허광영(후산부) 등 9명을 2차 협정의 노동자 대표로 선임.

12시경 : 연맹위원장 이성식, 경동위원장 박진규 등이 안보, 불법적 행동 운운하며 박수로 자기들을 밀어줄 것을 강요하며 “여러분의 행위 책임 못 지겠다. 떠나겠다” 등의 말을 하며 공갈.협박을 함. 이 때 허광영씨가 위의 요구조건 100% 따내는 조건하에서 대표이니 협상 자체를 위임하는 박수를 치지말라고 이야기하자 조직부장 남일삼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할 대표권 없다고 들어가라 함.

12시경 : 2차 협상이 새로 선임된 노동자 대표들과 한진희차관 사이에 벌어짐.

16시경 : 협상결렬

18시경 : 신민당과 국민당 조사단 도착. 회사측과 협상했으나 결렬. 농성 계속. 이 과정에서 광산노조간부들은 협상시간 이외에 농성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9월 13일**

09시경 : 단식농성자 100여명, 일반농성자 300여명, 도계읍사무소에서 노동자대표 이재열, 허광영 등 9명과 한진희 노동부차관, 노동사무국장, 이성식 광노위원장, 박진규 경동노조위원장 등과 회사측 대표들과 협상.

13시 30분경 : 협상타결 봄

(협정사항)

1. 회사는 86.12.31 이전에 조합원에게 백미 1가마(80kg)를 지급한다. 단,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현물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는 87년부터 복지비로 24만원(분기별로 분할 6만원씩을 지급한다.)
3. 회사는 9.10부터 13까지 소용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4. 1,2항의 지급기준은 별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14시 40분경 : 경동탄광노조위원장 박진규가 타결된 협정사항을 농성장에 찾아와 발표.

김정남 민정당국회의원 - 이번 사태 유감이다. 불법적 행동은 보호하지 못한다.

한진희 노동부차관 - 이번 사건은 정부의 노력으로 타결된 것이다.

노총사무국장 - 노사분규는 노조를 통해 해야 한다.

이병길 경동탄광사장 -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번의 양보는 아시안게임도 바로 눈앞에 있고 해서 양보한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함.

15시 15분경 : 파업농성 해산

배경 :

내용 :

1. 발단

9월 9일에서 13일까지의 2차 파업투쟁은 7.25 ~26 1차 파업투쟁의 연장으로 먼저 1차 파업투쟁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경동탄광 파업투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1차 파업을 고질적인 저임금, 회사측의 과도한 부당착취, 사무 및 관리직 사원과의 심한 차별대우, 어용노조에 대한 불신 등 그 동안 축적되어온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폭발되었다. 직접적인 1차 파업의 발단은 7.25 사무관리직 월급날(노동자의 월급날은 매달 말일이다) 사무관리직 사원에게 6월분 임금과 상여금, 휴가비, 4~6.소급인상액까지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휴가가 끝난 후인 8월 2일로 임금 지급일을 미루고 소급인상임금과 후생복지비만 지불하였다. 임금인상단체교섭은 85년에는 전국 광노에 위임했으나 그나마 강한 교섭력(단위노조에 비해)에- 성가신 대한석탄협의회 등의 작용으로 86년에는 지역협의로 이관되었는데 17% 인상을 요구하다 7%로 타결한 것이다. 관리·사무직원들에게 그 동안 사업장에서 당해 온 수모와 임금지불, 휴가비 등의 차별에 강한 불만과 반발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경과

1차 파업은 7.25 격분한 광부부인 50여명이 회사측의 부당한 체불과 차별대우에 항의하기 위해 도계읍으로부터 광업소로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에 집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집결이후 잠깐 사이에 항의인원은 급속도로 불어났고, 일하고 있던 광부들도 합류하게 되었다. 이들은 광업소 현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도중에 있던 어용노조사무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광업소에 들어가서도 투석, 사무직원들을 내쫓고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 6시경 회사측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즉석에서 9개항의 요구사항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 1) 임금 즉시 지불
- 2) 정기보너스 기본급의 400%로 인상
- 3) 하기휴가보너스 100% 지급
- 4) 가족수당 45,000원 지급
- 5) 김장보너스 70,000원 지급
- 6) 복지후생비 잔여금 즉시 지급
- 7) 퇴직금 누진제 실시

8) 계장이하 사무직도 노조 가입할 것. (사무직원의 귀족화에 대한 반발)

9) 차별대우 철폐

등이었다. 이 요구들이 이틀에 걸친 투석과 농성 등 격렬한 투쟁 끝에 기업주와 노동부 등이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자들은 일단 해산하였다. 이때 노동자들은 노동부 관리들의 입회하에 회사측과 6개항의 합의협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 6개항은,

1)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평균임금의 200%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2) 연 70,000원의 김장보너스를 지급한다.

3) 가족수당은 익월 30,000원씩 지급한다.

4) 특별상여금은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5) 퇴직금은 1984년도 단체협약사항으로 환원한다.

6) 이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 등이다.

이 과정에서 농성과정 중에 나타났던 노조의 어용성이 철저하게 폭로되어 기존 노조집행부는 일괄 퇴진하고 8월 19일 박진규(45세, 비광부)를 위원장으로, 임영식(23세, 본궤 굴진 선산부)을 상덕지부장으로 하는 현 집행부를 구성했다. 그런데 신임노조위원장 박진규는 현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상덕광업소 하청연탄공장의 사장이었을 뿐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자재과 종구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박진규는 회사에서 적극 지원하여 노조위원장에 당선시켰다고 한다.

회사측과 노조측은 8월 21일 -22일의 노조사무집행회의와 8.23, 9.8의 노사회의를 통해 최종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바 이 협약은 회사측이 지난 7월 노동부 중재하에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 중 요구금액의 33%를 차지하는 가족수당부분에 대하여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16개 조항으로 협약서 내용을 갱신하였다. 즉, 회사측은 새로이 구성된 노조 집행부에게 지난 7월 26일 체결된 협정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물리적 폭력에 의한 불가피한 협정의 결과라는 등, 지난번의 합의는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대표와 체결된 협정이 아니어서 새로이 체결해야 한다는 등, 가족수당의 지급은 회사운영을 못할 정도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영탄광에서는 지급치 않고 있으므로 타 광산에 파격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경동탄광도 지급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면서 노사간의 7월 26일 협정에 반하는 노사합의사항 16개 조항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측에 속았다고 자연발생적으로 파업이 야기가 나왔다.

관계 인물 :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경동탄광 파업투쟁 보고서 (강원민주통일민족운동연합 등)

관련 사건 :

성명서

경동탄광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락하라!

9월 10일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경동탄광 노동자 1천여 명이 가족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영동선 철도 건널목과 국도를 점거하고 파업농성을 시작하였고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된 뒤 장소를 광업소 마당으로 옮겨 지금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월 25-26일 이틀 동안 파업투쟁을 통해 회사측과 합의한 6개항 중 가장 중요한 가족수당과 퇴직금 누진제를 회사측과 어용조합이 광산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일방적으로 파기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경동탄광노동자들은 수천길 지하에서 생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자 회사측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6개회사를 거느린 재벌로 성장했으면서도 경영난과 지난 7월 26일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합의가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군사독재정권은 1천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도계읍내를 에워싸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전국광산노조위원장 등 어용노조간부와 한진희 노동부차관, 기관요원 등을 파견하여 노동자들을 무마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광산노조와 경동탄광 노조는 그들의 어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무마시키며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그들은 “협약이 안되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며 공갈을 일삼고,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노동자 편인 양 동조농성을 가장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경동탄광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기점으로 덕우탄광 등 4개 탄광에서 파업투쟁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으며 이제 다시 경동탄광 노동자들이 선봉이 되어 회사측의 무한정한 착취에 대항하여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투쟁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노동자, 회사, 정부의 협의(노사정협)라는 미명 아래 총칼로 협박하는 한편 교활한 유화책을 구사하는 그들이 사태수습에서 민중을 착취하고 기만하여 회사측과 야합하는 반노동자적인 속성을 새삼 확인한다.

또한 전국광산노조를 비롯한 지부노조가 군사독재정권과 회사측의 하수인으로서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기만행위를 전국 광산노동자와 민중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우리는 경동탄광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의 댓가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그들의 파업농성은 정당한 것으로서 현 군사독재정권과 회사는 그들의 요구를 즉각 수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기관과 경찰의 파업농성 주동자 색출 및 엄벌처단 한다는 협박을 중지하고 연행된 노동자들의 석방과 부당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경동광업소는 매월 가족수당 3만원과 퇴직금 누진제도를 즉각 이행하라.

- 경동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 어용노조와 전국광산노조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라.
- 노동3권 보장하라.
- 노동자 생존권 압살하는 군사독재정권은 퇴진하라.

1986. 9. 15.

가톨릭광산인권문제상담소(도계)

가톨릭광산노동문제상담소(사북)

NCC 강원 인권선교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주화운동청년연합/강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6. 사건명 : 87년 강원탄광 파업

발생일 : 1987. 08. 10 ~25

관련 일지 :

배경 :

8월 8일 삼척탄좌, 도계석공 등에서 월급제를 요구하는 대파업이 일어나자 강원탄좌 노동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발생함. 8월 10일 오후 3시 20분경 을방 출근자 중 150여명이 회사와 노조의 협상결과를 듣기 위해 작업복을 입을 채 갱 입구에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입항하라고 설득하는 노조간부와 소장의 말을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함. 파업결과, 노동자들에게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도급제폐지, 어용노조 퇴진등 근본적인 문제에 노동자의 각성이 이루어졌음.

내용 :

관계 인물 : 성완희, 이기만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타오르는 광산」. 돌베개. 안재성. 1988

관련 사건 : 성완희 열사 분신투쟁 사건

7. 사건명 : 87년 동해탄광 파업

발생일 : 1987.7.16~18(1차), 1987.8.8~14(2차)

관련 일지 :

배경 :

내용 :

1987.7.16~18 1차 파업투쟁

<요구사항>

1. 임금인상 5.5%를 8%로 인상 / 2. 연탄 115장 지급 / 3. 복지비 연간 12만원을 15만원 인상 / 4. 만근공수 25공 / 5. 상여금 통임 250%를 평임 250% 지급 / 6. 정년 노무원 53세를 55세로 / 7. 특별 휴가 추석, 민속의 날 각 3일씩 실시 / 8. 간접부 만근 상여 직접부와 동일 지급

<타결사항>

1. 연탄 월 120장 지급 / 2. 복지비 연간 15만원 지급 / 3. 만근공수 월 25공 인정 / 4. 정년 노무원 55세 여자 48세로 인정 / 5. 특별휴가 중추절 민속의 날 하기 휴가 2일간 / 6. 상여금 통임 250%를 총 소득의 200% 지급

1987.8.8~14 2차 파업투쟁

<요구사항>

1. 퇴직금누진제 / 2. 상여금 통임의 400% / 3. 년차 휴가비 지급 및 휴가 인정 / 4. 가족 수당 배우자 1만원 부양 가족 5천원 / 5.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인정 / 6. 임금 10% 인상 / 7. 중식비 1일 1천원 지급 / 8. 각종 안전 장비 무상 지급 / 9. 최저 임금 보상 / 10. 직, 간접부 차등 대우 철폐 / 11. 어용노조 퇴진 / 12. 노조임원직선제 선출

<타결사항>

1. 퇴직금 구분 누진제 / 2. 상여금 통임의 400%를 분기별로 지급키로 타결하고 8.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집행부가 총퇴진하고 임원선출을 직선제로 규약 개정하고 조광조합을 분할키로 결의하였으며 9월 8일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규가 수습됨. 연맹 남일삼 기획실장 현지 수습지도함.

관계 인물 : 홍병운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제38차년도 사업보고서」,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1988, 87~88p

관련 사건 :

8. 사건명 : 87년 동원탄광 파업

발생일 : 1987년 5월, 1988년 4월

관련 일지 :

1987년 어용노조 퇴진(김형진 위원장 당선)

1988년 무능노조 퇴진(김형진 위원장 퇴진, 이재구 위원장 취임)

배경 :

1987년 동원탄좌 수갱에 근무하던 조합원들이 친목계 성격의 소모임을 하다가, 87년 민주화투쟁의 영향을 받아 어용노조 퇴진에 나서게 됨. 이들은 당시 가톨릭 노동문제 상담소의 지원을 받아 파업투쟁에 나섰고 당시 노조위원장이 물러나고 직선제를 통해 버스운전 기사였던 김형진씨가 노조위원장에 당선됨.

1988년 김형진 위원장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단협안을 받아들이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새로 만들어진 동원탄좌 우정회등이 결합하여 무능노조 퇴진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게 됨. 이 과정에서 사퇴했던 김형진 위원장이 감금과 폭행에 의한 사퇴임을 주장하고 나서 2차파업으로 이어짐. 노조위원장 폭행 여부로 공개대질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어 결국 김형진 위원장이 사퇴하고 새로 이재구 집행부가 들어서게 됨. 88년 파업의 주요 특징은 노조집행부가 공백상태가 되면서 주동자도 없는 파업상황이 일주일동안 지속된 점과 88년 국회의원 총선 직후여서 당선자(유승규 의원)와 낙선자(엄영달 전의원)이 경쟁적으로 파업현장에 참가하여 지지연설을 하였음. 별 성과없이 위원장의 교체로 매듭지어 졌으나, 초기 주도자에 대한 회사 측의 강경한 인사조치로 많은 광부들이 작업조 이동, 배치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패배의식과 무력감을 후유증으로 남겼음.

내용 :

관계 인물 :

김형진,홍금웅,이강선,신광수,곽진태,신언두,이상주,김성기,고희수,박열원,주홍진,안만호,
김영범,김기호,현종태,이점용,박일권,강동규,임영만 등

관계 단체 : 없음

관계 자료 :

「동원탄좌 내부 자료」, 88년 노사분규 상황일지

「농성주도자 명부」, 회사 내부자료

「엄영달, 유승규 의원 연설 내용 발췌본」, 회사 내부자료

관련 사건 : 없음

88년 파업당시 요구사항 - 내부 유인물

요구사항

1. 임금인상 14%는 총소득에 적용하라
2. 현재까지 파업기간을 유급처리하라
3. 국경일 유급처리
4. 민방위 예비군 교육기간 유급처리하라
5. 사택정비 미비, 확실히 하라
6. 합숙소 식사 및 환경 위생정비 확실히 하라

주요 쟁점사항

1. 임금인상 14%가 실제로 반영될 것인가? 현 도급단가에 적용하는 한 실질적 임금효과 없는 것 아닌가?
2. 유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4월 한달의 소득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종업원의 연차 휴가에 막대한 차질이 온다. 무슨일이 있어도 유급처리 되어야 한다.
3. 현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만

9. 사건명 : 87년 태백지역 민주화 대행진 (국본 결성, 단식 투쟁)

발생일 : 1987년 6월 26일 18시~20시

관련 일지 :

배경 :

사건 내용 : 민주헌법 쟁취 강원도민운동본부 태백지부 결성 및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태백지역 민주화대행진 개최. 평화대행진 (황지동 구종점에서부터 태백역까지 행진). 전국에서 민주화 대행진이 열렸는데 태백시에서도 진행됨. 유태호, 정문호 등 노동자들은 사전에 집회를 알리는 전단을 제작하여 태백시 곳곳에 붙임. 이날 6시 부터 60여 명의 시위대는 연도의 수백명노동자가 보는 가운데 황지교회에서부터 시청까지 500여 미터를 30여분 간 행진했는데 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내거나 물을 떠다 주게 됨.

관계 인물 : 신성식 목사 (태백선린교회), 류태호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상임총무)

관계 단체 :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10. 사건명 : 87년 광산프락치 사건

발생일 : 1987년

관련 일지 :

배경 :

내용 :

- 87년 1월 정선군 고한읍 세방광업소

세방광업소 해고노동자 구성모씨에 대해 경찰 프락치 이00씨가 ‘폭약을 구해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대형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던 사건이며, 세방광업소의 동료인 김00씨를 정선경찰서 현직 경찰 박00가 여관에 감금하여 구성모씨에 대한 프락치 역할을 강요한 사건.

- 87년 4월 정선군 고한읍 경일탄광

경일탄광 해고 노동자인 임규대씨에 대해 보안대와 회사가 동료인 진00씨를 시켜 동향을 감시 보고토록 하고 이에 대해 금전을 지급한 사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진00씨가 이를 폭로하자 관련된 4명의 노동자를 모두 해고하여 파업으로 이어졌던 사건임.

관계 인물 :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경일탄광 동료 여러분」 . 1987.4.25

「경일탄광 근로자 여러분」 .1987.4

「광산노동자에 대한 경찰당국의 압착이 행위를 규탄한다」 . 1987.1

관련 사건 :

11. 사건명 : 1987년 삼척탄좌 1, 2차 파업

발생일 : 1987.8.8

관련 일지 :

삼탄의 파업이 이루어지기까지 고한지역에서는 광산노동자상담소를 비롯하여 카톨릭 노동청년회, 사북 노동상담소, 천주교 사북 고한 성당, 남부교회, 고토일 교회 등 종교계와 재야세력이 힘을 합하여 전국적인 민주화와 고한지역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왔다. 6월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노동현장의 파업열기를 고한지역에서도 이어가기 위하여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현황을 알리고 삼탄과 고한지역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알리는 소식지를 성당과 교회 등에서 밤에 남몰래 인쇄하여 현장에 배포하곤 하였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도급제라는 불합리한 노동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삼탄 노동자들은 그 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외부 노동운동 소식을 접하고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는 정운환이 미처 조직적으로 파업을 준비하지 못한 채 발생함으로써 이후 파업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문제를 노출하며 한계를 보이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삼탄의 1차파업은 1987년 8월 8일 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고한역을 점거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구호는 “어용노조 몰아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도급제 철폐하고 월급제를 쟁취하자!”등 두 가지의 구호가 핵심이었는데 이는 회사측이 가장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했다. 당시 삼탄노동자들의 파업열기는 대단했으나 파업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열기를 담아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엄청난 파업참여자와 높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노조집행부의 사퇴와 몇 가지 합의사항을 얻어내면서 삼탄노동자들의 1차 파업은 5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는 당시 파업지도부중 정운환과 그이 부인인 임인자씨 등이 계속 파업을 이끌고 나가기가 역부족이었던 면도 있었고 또한

당시 파업지도부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윤임현씨등 밖에서 계속적으로 파업지도부와 교감을 가지고 함께 했던 운동지도부들이 “노동조건 개선 추진위원회”라는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니 이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중요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삼탄의 2차 파업은 1차 파업의 결과 얻어낸 1차 파업 당시 파업지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개추”가 노동조합을 대신해서 노조사무실을 접수하여 민주노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구 노조집행부, 광산노련 등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맞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역시 발생하였다. 1차 파업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현장의 분위기와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노개추 집행부가 자본측과 어용노조세력의 방해공작에 맞서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렇듯 2차 파업은 1차 파업에 비하여 노동자들의 참여도가 처음에는 낮았고 회사 또한 2차 파업을 노조간의 싸움으로 몰아붙였다. 이에 파업지도부는 노조간의 싸움이 아니라 회사와 노동자들의 싸움으로 분명한 전선을 그었고 차츰 파업참여 노동자들 숫자도 늘어났다. 장기파업을 준비하며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도하며 민주노조에 대하여 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하여 단련되어갔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파업노동자들을 회유, 분열, 탄압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활동했는데 당시 관제언론에 의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왜곡은 극치를 보였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관제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친 것은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다.

파업의 기간이 길어지자 장기파업에 대한 우려와 자본측의 집요한 지도부 교란으로 허약했던 파업지도부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회사와 경찰 등 자본측은 당시 학생운동출신으로 다른 사람의 명으로 취업해있던 정운환과 그의 부인을 빨갱이로 선전하며 파업지도부간의 갈등을 조장하였다. 일부의 지도부가 그러한 자본측의 분열공작에 넘어가서 노동자들의 배신하는 일도 있었다. 자본측은 구사대를 동원한 공격과 지도부간의 분열을 조장하다 그마저 잘 안 먹혀들자 9월1 새벽 약 3천 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사용하며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게 되는데, 삼탄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은 경찰투입 후 3에 걸쳐서 구사택 등지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지도부가 구속됨으로써 더 이상 파업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된다.

배경 :

내용 :

1962.대한교보로부터 삼척탄좌를 인수하여 당시 50여명으로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고한 지역, 삼척탄좌는 삼탄을 모태로 하여 13개사의 계열사를 거느린 삼천리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삼탄은 대부분의 탄광이 다 그랬듯이 귀족화 된 노조와 의식적인 노동운동세력의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불만을 참으면서 지내온다. 그러나 6.항쟁으로 촉발된 전국의 민주화 열기는 고한지역의 삼탄 노동현장에도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 삼탄 노동자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동안 억눌려 왔던 분노를 찾기 위

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 동안 경동탄광 등 인근 탄광에서의 파업과 철도점거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소식지로 만들어서 현장에 배포하는 등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소식지를 배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한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대학출신자들의 현장 투입이 고한의 삼탄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삼탄에는 당시 강원대학교를 중퇴하고 수도권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강원대 학생운동 출신자들과 함께 탄광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정운환이 김영민이라는 가명으로 삼탄에 취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에 목적 의식적인 부분이 결합되는데 이것이 삼탄 1,2차 파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요소 중의 하나이다.

관계 인물 :

정운환, 마진수, 이길종, 전백규, 홍구덕, 지춘기, 김중환, 박말배, 권태동, 이기림 등 15명

수배자: 임인자(정운환의 부인)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12. 사건명 : 강원탄광 성완희 열사 분신투쟁

발생일 : 1988.6.29

관련 일지 :

87.6.22 ~28 해고노동자 이기만씨 복직을 요구하며 강우회원들 단식투쟁

87.6.29 성완희씨등 노동자들이 농성하던 노조사무실에서 구사대 난입. “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산쟁이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성완희씨 분신. 불을 끄려던 윤두원씨 중화상

87.6.30-07.01 분신노동자 성완희형제 대책위 구성

87.07.02 철암에서 진상규명 및 규탄대회 개최

87.07.04 강원탄광 노동자 300여명 입궐거부

87.07.05 강원탄광정문 앞에서 300여명 농성. 동료노동자 박경규씨 고압선에 위에서 투신 (허리에 중상 입음)

87.07.08 성완희열사 끝내 운명, 원주기독병원에서 분향소 설치, 민주국민장으로 장례

식 결정

87.07.09 강원지역 학생대책위 원주기독병원에서 규탄대회 개최

87.07.10 강원탄광노동자 11명 단식농성

87.07.11 원주기독병원에서 2차 규탄대회, 500여명 참가. 강원탄광 참가. 강원탄광 노동자 100여명 입궐거부하며 파업

87.07.12 강원탄광노동자 150여명 침묵시위, 노조총사퇴요구

87.07.13 강원탄광조합원 500여명 파업, 비상총회개최, 노조위원장 사퇴서 받아냄.

원주기독병원에서 3차 규탄대회, 서울 강원산업 본사 앞에서 노동자, 학생 항의 시위

배경 :

내용 :

관계 인물 : 성완희(강원탄광 채탄후산부)

* 성완희 열사의 생애

1959.06.24 제천에서 목상을 하는 부친 성창락씨의 3남중 막내로 출생

1962 (4세) 부친별세

1964 (6세) 모친별세, 할머니 슬하에서 양육

1974 (14세) 국민학교 졸업후 서울에 올라와 봉제공장에 취직이후 14년간 공장노동자 생활

1986.10 (27세) 태백시 철암동 강원탄광에 채탄후산부로 입사

1987.08 (28세) 파업시 노동자대표로 선출되어 파업을 승리로 이끔

1987.12 공상을 당하고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가 투쟁으로 복직

1988.02 (29세) 경비직으로 부당전직 당했다가 투쟁으로 원직복귀

1988.02 “강원탄광 우정회:결성, 회장으로로서 노동운동에 앞장섬

1988.06.21 동료해고자 복직을 위해 강우회원과 유인물배포, 시위에 돌입

1988.06.29 노조사무실에서 5명이 단식 농성중 어용집행부의 각목습격에 맞서 온몸 휘발유 뿌리고 분신.

1988.07.08 원주 기독병원에서 운명

1988.07.26 민주국민장 18장으로 마석 모란묘안에 안장됨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신문 성완희 기고문 「체면치레 인금인상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한겨레』, 1988. 6. 2

관련 사건 :

성명서

우리는 강원탄광이 자행한 이기만씨에 대한 불법부당해고와 성완희씨 분신에 대한 악질기업 강원탄광의 비인간적인 악랄함에 치 떨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불법부당해고, 살인 만행을 규탄한다. 따라서 악질기업 강원탄광이 전 광산노동자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 할 때까지 끝까지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강원탄광 노동자 성완희(28, 채탄후산부)씨는 6.29 오후 12시 40분, 강원탄광 노조사무실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인권탄압 중지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산쟁이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며 육신을 불살라 절규하며 산화해 갔다. 진정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진정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세상을 학수고대하며 그토록 뜨겁게 살아왔던 우리의 성완희를 누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누가 성완희의 꽃다운 젊음을 앗아갔는가? “들어오지 마라” “우리의 정당한 단식투쟁을 방해하지 마라” “만약 들어올 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회사가 져라” 고 분신을 위협, 경고했지만 회사의 사주를 받은 대의원 박희묵은 이를 끝내 무시,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 갈 줄 아느냐 어디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 며 들어왔다. 이는 명백히 살인행위이며 인간 최소한의 도덕도 양심도 없는 저 파렴치한 악질기업 강원탄광의 정인욱(회장), 김지현(대표이사)와 노동자 팔아먹는 김병두(노조위원장), 박희묵(대위원)은 살인을 방조, 조종한 혐의로 즉각 처벌받아 마땅하다. 또한 경찰은 성완희씨의 분신을 타살로 사건조작 하려드는 간교한 기만적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분열시키려는 이간책동이며 성완희씨의 광산민주화에 대한 곳곳한 정신을 왜곡 조작하려는 날조행위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철천지한을 불살라 꽃다운 젊음을 받친 성완희의 마지막 절규를 듣는 광산노동자들이여! 단결하자! 투쟁하자!

성완희가 다시 우리들 곁으로 살아 돌아 올 것을 굳게 확신하며 광산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 투쟁하자.

성완희를 살려내라. 이기만을 즉각 복직 시켜라.

광산민주 쟁취하자. 정인욱, 김지현, 김병두, 박희묵을 즉각 처벌하라.

경찰은 왜곡 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988.6.30

광산지역 사회선교 협의회. 카톨릭 광산노동사목 협의회.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강원노회 광산선교 위원회. 가톨릭 광산인권문제 상담소. 정선지역 노동문제 대책위원회. 태백지구 기독교청년 협의회.

지난 6.29 있었던 성완희씨 분신행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성명서

민주 노동자 성완희를 살려내라!!!

우리는 오늘 지난 6.29 강원도 태백 강원탄광(대표:김지현)의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반대하여 분신으로 항거한 성완희형제의 병상을 지키며 이번 사건이 성완희형제의 개인의 무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들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강원탄광은 지난해 8.9.파업투쟁 때 노동자 대표였던 성완희씨(29세), 양시준씨(29세) 등을 4개월이 지난 12월에 보복 해고하여 문제가 된 바 있으나 노동 위원회 제소를 통하여 다시 복직되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1월에 역시 파업노동자 대표였던 이기만씨(29세)를 성완희, 양시준씨의 복직을 위해 호소문을 함께 나누어주었다는 이유로 한 달이 지난 1.31 갑자기 해고시킨 것이다. 이에 이기만씨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불복 소송을 제기 2.25와 6.15 두 차례에 걸쳐 복직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성완희씨를 비롯한 동료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의 비호, 방조속에 회사측과 구사대가 난입함으로써 이에 저항하여 성완희형제가 분신한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강원탄광의 부당해고와 경찰의 노동운동 탄압에서 기인하는 바 강원탄광의 대표자 및 구사대, 경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 분신 후 성완희형제가 말했듯이 이번 사태는 회사측의 비호아래 노동자의 전진을 방해하는 어용노조를 해체, 민주노조로 재구성해야 함을 강변해주고 있다. 이미 현재노조를 구성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으로의 피선이 확실시되었던 이기만씨를 부당해고한 후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수렴하지 못하는 어용노조를 구성함으로써(이는 성완희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농성을 현 노조대의원 정대식이 회사측과 야합하여 구사대로 난입함으로써 보다 분명해졌다.) 강원탄광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원탄광의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노동자들의 민주적 선거에 의한 민주노조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며,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을 저해하는 어떤 탄압, 기만 책동을 삼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또한 이 사건은 민주압살 체제인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한 현상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지난해 군사독재 정권은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6.29 거짓 민주화 선언으로 잠재우고 12.16 대통령 선거에서 컴퓨터를 동원한 부정선거를 통해 재집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재벌에서는 온갖 특혜를 다 주면서 민중의 생존권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민중의 최소한의 생존투쟁마저 공권력과 경찰을 통해 압살하는 군사독재의 지속에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은 고통받고 있다.

이는 성완희형제의 분신 당일인 6.29 농성상황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농성장을 둘러싸고 경찰과 회사측 구사대는 강제해산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완희형제가 구사대의 폭력에 대항하여 분신한 것이다. 또한 경찰과 회사측 관리들은 성완희형제가 분신하여 불길에 휩싸였는데도 불을 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치는 반인륜적인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분신 후 조사과정에서 “농성동료가 불을 붙였다.”며 사건을 조작하려 기도하였다.

이것은 군사독재 정권이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구사대를 비호, 방조하고 노동악법으로 노동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과 자신들의 비리를 조작, 은폐하여 탄압하는 반민중적 정권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민중노동자 성완희를 살려내라.
부당해고 복직거부 김지현을 처벌하라.
민주노조 방해하는 어용노조 해체하라.
민중생존 압살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통일염원 44.7.5

분신 노동자 성완희형제 강원도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분신노동자 고 성완희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6.29, 억압과 수탈의 질곡 광산노동 현실에 저항하며 참다운 민중의 새 세상, 노동해방의 참 세상을 염원하며 분신한 성완희형제가 7월8 오전 7시 20분, 4천만 민중의 쾌유 기원에도 불구하고 운명하였습니다.

가난과 억압으로 점철된 스물아홉살의 청춘으로 민중해방을 염원하며 산화한 민주열사 고 성완희형제의 영전에 공동대책위원 일동은 4천만 민중의 뜻을 한데 모아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성완희 열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군사독재와 독점자본의 파렴치한 반민중적 작태에 분노합니다.

진정 이 나라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로만 주권이 민중에게 있다고 떠들고,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군사독재와 독점재벌이 존재하는 한 성완희 열사의 비극은 반복될 뿐입니다.

노태우의 6.29 민주화 선언은 바로 독점재벌과 가진자들의 민주주의일 따름입니다.

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우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땀감을 생산해 내는 산업의 역군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조합조차 갖고 있지 못하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독재, 독점자본과 결탁한 어용노조에 의해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독점재벌의 부당해고, 군부독재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의해 노동자들이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합니다.

"우리에게 민주노조가 있었다면....." 죽음을 앞에 둔 성완희 열사가 애절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남긴 이 한마디는 이 땅의 노동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민중 형제여러분!

강원탄광은 민주노조 건설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복직판결조차 거부하는 가증스런 만행을 자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앞잡이인 어용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장에 난입함으로서 노동자의 대표가 아니라 독점재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폭로하였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 하는 경찰은 또 어떠했습니까?

고 성완희 열사를 비롯한 민주 노동자들의 정당한 농성을 어용노조와 손잡고 강제로 해산하려 기도하였고, 온 몸이 불길에 싸여 죽어가는 성완희 열사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도망가버렸습니다.

누가 노동자의 편에 서있습니까? 이런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란 말입니까?

우리는 "부당하고 철회하라" "인권탄압 중지하라" "광산쟁이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 보자"라고 절규하며 산화한 성완희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군사독재와 독점자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어용노조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한 생명의 숭고한 희생 앞에 우리는 분노와 애도의 뜻을 함께 표하며 이 땅에서 군사독재와 독점재벌을 몰아내고 4천만 민중이 주인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 열사의 뜻 이어받아 민주노조 쟁취하자!
- 어용노조 뿌리뽑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 대표이사 김지현, 노조위원장 김병두, 대의원 정대석을 처벌하라!
- 민중생존 압살하는 군사독재 몰아내자!

1988.7.9

분신노동자 성완희형제 강원도 공동대책위원회

강원탄광주식회사 직원에 드리는 글

강원가족 여러분께 알립니다.

강원탄광 근로자 분신사태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민주화와 정의사회 구현은 진실을 진실되게 알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금의 강원탄광 근로자 분신사태는 극소수의 독선적 자기기만에 의해 허위 날조되고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태를 주동하고 있고 6.22 극한 단식에 돌입한 이기만이라는 자는 일반 종업원으로는 전례가 없는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위장취업자로 '87.8월' 분급시에는 우리 종업원의 돈으로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슈퍼마켓 파괴 및 물품 탈취를 비롯하여 자재창고 및 차량방화, 탄광사무실 기자재 파괴 및 물품탈취, 직원합숙 파괴 및 약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법적 폭도 행위를 주도한 자로 판명되었으나 관대하게 포용하여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단체 행동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뼈뿔어진 사고방식에서 '87.12.10 "을"방 출근 시, 유인물을 배포하여 종업원 100여명을 선동하여 40여분 간 입항시간을 지연시켰으며, 동일 "병"방 출근 시 종업원 100여명을 선동한 사유로 징계하고 되었던 자로 해고일을 전후하여 수차에 걸쳐 학부출신이니 사무직이나 현장감독직으로 근무시킬 것을 회사측에서 확약하였으나 채탄 후산부를 고집한 자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은 물론 필시 불법 노동쟁의 및 불법노동운동이 주목적이며 이를 배후 조종하는 무리들의 소행이라 추정됩니다.

이기만의 극한 단식 후 분신자 외 5명은 이에 동조하여 유인물을 살포하여 회사의 항

입구에서 수차례 종업원을 선동하였으나 그들의 독선적 농간행동에 강원의 가족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7여의 선동행위가 강원가족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냉소와 질시의 시선으로 변하자 극열추종자 성완희외 5명은 스스로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으며, 급기야 6.29 인화물 및 분신에 필요한 기구를 휴대하고 07:40분경 청소하는 여직원을 밀어내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출입문에 캐비닛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무실 점거 후 단식중인 이기만은 한겨레신문 배달원에 의하여 노동조합 정문으로 이동되었으며 그 후 회사에 의해 십자병원에 입원조치 되었습니다.

동일 12:20분경 문제의 분신자 성완희는 불붙은 몸으로 사무실 상부 유리창을 깨고 뛰쳐나옴과 동시에 노조 사무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붙은 성완희를 구출키 위해 접근을 시도하려다 뒤따라 나온 동료들이 양손에 돌멩이를 집어들고 접근하면 죽인다고 하면서 손에 든 돌을 마구 집어던져 성완희의 구출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분신자는 장성병원을 거쳐 원주 기독교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점거된 노동조합 사무실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소문에 의하면 본인이 분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같이 점거하고 있던 동료의 실화였다는 미확인 이야기도 있으며, 평하는 소리와 동시에 “안돼!”하는 발악적인 괴성이 한동안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후 그들이 점거하였던 사무실을 살펴보면 사무실 바닥에는 인화물이 뿌려져 있었으며, 서로가 머리를 깎은 머리카락이 쌓여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그들은 각본에 의한 자가당착에 빠진 종말적 행위였습니다.

저들의 행위 결과는 누구의 동정도 명분도 얻을 수 없는 행위였으며, 이들은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동료도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극한적인 사고에 기인된 결과이며,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부 제3자에 돌리는 비인간적인 인격자들의 행위임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주동자들은 동료의 분신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간호는커녕 허위조작된 유인물을 살포하며 계속 종업원을 선동하였으나 현명한 강원가족은 그들의 선동을 외면하였습니다.

7월 5일에는 돌구지에서 종업원을 술에 만취케하여 선동함으로서 근로자 박경구라는 자는 회사 옆 고압전신주에 올라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추태를 자행케 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이러한 행동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항내외의 전원을 1시간동안 차단하여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도 전선아래에 매트리스를 깔고 담요로 안전대를 만들어 밑에서 바치고 있었으며, 엠블런스를 대기시키면서 비인간적인 난동자를 무사히 구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하여 봅시다. 7월 5일 “병”방 출근시의 사태가 회사의 긴급한 조치와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희생이 없었다면 난동자 본인은 고압전류에 생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며, 만일 희생되었다면 6.29 분신사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고 사실을 왜곡, 조작, 날조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태의 추이를 걱정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운동권 학생 및 불순 세력들에게 허위사실을 날조케하고 성완희의 죽음을 이용하여 그들이 목적을 달성코자 하며 우리의 생활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는 이 지역 누구의 불행과 파멸도 안중에 없는 단세포적인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들의 난동과 허위 조작된 선동이 다반사로 자행되고 어떠한 위험한 작태가 행하여질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서 7.6을 임시 휴무조치 하였으며 향후 강원탄광의 진로를 진지하게 숙고하여야 할 시점에 처하여 있습니다.

강원을 아끼시는 여러분!

저들의 행동으로 만일 강원탄광이 최악의 사태까지 발전한다면 강원에 몸을 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의 등불인 사랑스런 우리 자녀의 앞날을 저들 몇몇 철없는 무리들의 무책임한 선동 행위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현명하신 강원가족 여러분!

현 사태를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철면피인 그들의 어떠한 농간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절박한 처지의 강원탄광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988. 7. 12.

강원탄광주식회사

법률구조 및 진상조사 위촉

대한변호사 협회 협회장님 귀하

저는 1986.5.6 강원탄광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채탄후반부로 근무하던 중 1988.1.31.불법 해고를 당한 이기만입니다. 1997.8.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벌어졌을 때 저는 동료인 성완희, 양시준과 함께 분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인간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광원들의 이익을 위해 싸운 바 있습니다. 당시의 노사분규에 있어서 정부당국조차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노사간의 협상과정에서 회사측도 저희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분규이후 저희들은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작업에 임해오던 중 1987.11.21 성완희가 막장에서 동발을 메고 가던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는 산재를 당했는데 회사측은 부당하게 공상처리를 거부하였으며 저 역시 11.25 작업 중 왼쪽 넷째 손가락 끝이 잘리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는 해 주었으니 성완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상처리를 거부

하는 동안 성완희는 공상처리를 하기 위하여 노동부 등을 돌아다녔는바, 회사측에서는 12.5 성완희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성완희가 노사분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여 저는 12.10 회사 탈의실에서 성완희가 만든 “다친 것도 억울한 데 부당해고 웬말이냐?”라는 유인물을 광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원들이 성완희의 부당해고에 집단적으로 항의하자 회사측은 성완희를 복직시켜주었습니다. 한편 저는 손가락 끝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후 성실히 치료를 계속하여 1988.1.31 치료를 종결하는 데 회사측은 2.1자로 제가 1987.12.10 성완희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보복조치에 대해 저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노동부는 저의 진정을 받아들여 회사대표 김지현씨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하였으며 (태백지방 노동사무소, 태백 01254-2616 진정서 처리 중간회시 참조), 회사가 계속 저의 복직을 거부하므로 저는 춘천지방 영월지원에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과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88카 194 및 88가합 416호)

그런데 영월지원의 담당 재판장님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가처분 사건을 해고무효소송과 병합하여 한 달에 한번씩 재판을 열면서 저에게 가처분을 취하하라는 등 하며 억박지르기만 하고 심리는 제대로 진행도 하지 않은 채 4개월 쯤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저는 기다리다 못해 4.14 춘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춘천지노위는 6.15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저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88부노 11). 그런데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저를 복직시키기를 거부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중노위 3260-1457)

참다못한 저는 6.22 회사탈의실에서 단식농성을 하였는데 회사경비원들과 노조간부들에 의해 끌려나와 한겨레신문철암지국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중 6.29 성완희와 윤두원 등 강원탄광 광원들이 저의 복직을 요구하며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은 어용노조의 간부들과 경찰을 동원하여 그들을 끌어내려 하였고, 성완희가 만일 사무실에 들어오면 분신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어용노조대의 원인 정대식 등은 “어디한번 해볼테면 해봐라”하고 하며 이미 몽둥이로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완희는 들고 있던 휘발유를 자기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고 불을 끄려던 윤두원도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성완희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산쟁이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절규하며 뛰어나가 길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들과 경찰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동료들이 불을 끄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성완희는 이제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려는 저와 성완희 등을 탄압하려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은 4개월이 넘도록 회사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않고 질질 끌었으며 법원은 명백한 불법해고에 대해 구제를 하지 않고 역시 4개월 쯤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회사를 대변하는 어용노조는 경찰과 합세하여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원들을 탄압하였으며 분신을 한 성완희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작업조건과 생활환경속에서 노동을 하며 회사와 어용노조 경찰의 탄압을 받고 있는 저희 강원탄광광원들의 호소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회사측을 변호하면서 저희들을 외면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회사와 어용노조,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광원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상황을 철저히 조사, 공개하여 성완희의 죽음이 광원들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의 해고무효소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7.11이 재심기일임)에서 제가 꼭 복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88.7.2

강원노동자 이기만

강원도 태백시 황지 1동 59-20 2통 4반

13. 사건명 : 89년 동원탄좌 파업

발생일 : 1989년 5월 20일~6월14일(32일 간)

관련 일지 :

89.4.6 함께가자 1호 소식지 배포

89.5.5 임시총회 소집 요구 및 서명운동 전개

89.5.8 자연발생적인 입갱 거부투쟁에서 지도부로 등장

89.5.18 회사와 동원노조의 임금인상안 타결, 병방 근무자 태업

89.5.20 전면파업 시작. 파업지도부 구성, 임시총회 소집투쟁

89.6.14 회사와 합의로 파업 종료, 파업지도부 8명 구속

배경 :

- 87년부터 3년동안 어용,무능 노조 퇴진 투쟁이 계속되면서 민주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반면, 새로 들어선 노조 집행부들은 회사와 밀실협약, 일방합의 등 과거의 구태를 그대로 재연함. 특히 88년 말부터 현장 노동자들이 소모임으로 조직화 되고, 함께가자를 비롯한 교육선전물을 배포하면서 노조에 대한 불신과 퇴진 여론이 높아짐.

- 89년도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회사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에 일방적으로 합의하

고 이를 공고하자, 자연발생적으로 당일 야간작업부터 태업이 벌어지고 다음날부터 전면파업 양상이 벌어짐. 이 과정에서 그동안 유인물 배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진 함께가자(동노개추) 구성원들이 파업지도부로 나서게 되었고, 이후 32일동안 전면 파업 및 시가지 투쟁으로 전개되어 '제2의 사북사태'라는 위기감이 고조됨. 이 사건에 대해 서울노동청장과 정선군수등이 직접 중재에 나섰으나 어용노조 퇴진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장기화되었고,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89년 파업은 과거와 달리 4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일사분란한 조직된 투쟁을 벌였고, 시가지 투쟁과 결합되면서 큰 파장을 나타냄. 이 투쟁 이후 도급제와 복리후생제도의 대폭 개선, 노조내부의 민주화 등이 진행되었으나 89년말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회사의 하청을 통한 분리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냄.

내용 :

관계 인물 :

김창완,유상열,천삼용,강내원,이강민,민경찬,박열원,김성곤,권태수,조영균,김춘호,곽진태,경성현, 용정순, 유일권 등

관계 단체 : 사북 노동상담소, 말뚝이패, 성완희 기념사업회 등

관계 자료 :

「함께가자」 . 1호~51호. 1989.4~9.1

「파업투쟁 일지」 1989.9

「'동원탄좌 직장폐쇄신고서' 및 공권력 개입 요청서」 . 1989.

「'동원탄좌 분규 경과 및 대책추진」 . 1989. 정선군 외 다수

관련 사건 : 없음

<89년 동원탄좌 파업지도부 조직표 - 회사 내부자료>

- 파업지도부(김창완,유상열,박열원)
- 교육선전부(최영길,박병헌) - 조달부(강내원,김윤일)
- 홍보부(김성곤,민경찬) - 문화선전부(천삼용,김병구,김익필)
- 규찰대(이강민,조영균,권영성,곽진태,이강수,김정수,김상훈,이윤환,하종우,이철영,
이재만,김종찬,김재선,조창호,정영주,김희기,권태수 등)
- 부녀부(김옥순,양소연,서순자,민옥선,이현우,한정란,장영순 등)

<89년 동원탄좌 농성사태 부상자 명부 - 회사 내부자료>

- 입원(김용식, 박월복, 표성순, 장두성, 장경호, 이노수, 손도용, 이병철, 김구식, 서명호, 김재용, 김영래, 이종구, 정정열 등)
- 통원(장희봉, 신동주, 곽진태, 최종호, 이병우, 김재연, 김재겸, 김은경, 전진표, 김수기, 한상기, 허성헌, 김종철, 장광중, 최현식, 민병남, 이재선, 김춘호, 손영식, 김현기 등)
- 전경부상자(박병주, 정진훈, 민병남, 정영일, 김영기, 이원희, 안부엽, 이형재, 김형의)

14. 사건명 : 전교조 태백지회 결성

발생일 :

관련 일지 :

전교조 태백시 공동 대책위원회 투쟁일지

1989.06.08 선린교회에서 30여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여 전교조 태백시 지회 결성

1989.07.15 지회장 전인호(철암고교, 영어)고발

1989.07.25 한연숙(장성여중), 정연심(황지여상)고발

1989.08.01 한연숙(장성여중), 정연심(황지여상)직위 해제

1989.08.14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 모임

전인호 교사택(성완희 기념사업회, 인권위원회,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민주부인회 전교조 태백시지회)

1989.08.15 가두서명 및 선전

1989.08.26 오후 2시 전교조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 인권위 사무실에서 30여명의 단체대표와 회원(9개단체) 공동의장 송순오 목사, 김한기 신분

결성선언문채택

오후 3시-5시 : 가두선전(전교조자료, 결성선언문) 서명 300여명

1989.08.16 가두서명 및 선전

1989.08.28 오후 1시 35분(점심시간): 방송실에서 정연심교사의 징계내용들을 설명
학생들 운동장으로 집결시작 -이 과정에서 교감이 학생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마포자료를 학생들의 따귀를 때림

요구사항

- 정연심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 교원노조지시소명 1200명분 돌려달라
- 학생회 직선제

- 정교사 고발한 교장(김세현) 사과하라
- 운동부 중식을 라면에서 밥으로 해달라
- 폭력교사 사과하라
- 오늘 일로 학생들을 징계하지 말라

등을 요구하며 아침이슬, 교가, 진달래, 스승의 은혜 등의 노래를 부르며 운동장에서 1500여명 가량이 농성하다.

- 정교사방송으로 만나게 해주겠다.
- 교원노조지지서명은 소각하고 주동학생은 처벌하지 않겠다.
- 학생회 직선
- 정교사의 징계철회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운동부의 중식은 밥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교장의 발표를 듣고 오후 4시 30분경 해산했다.

1989.08.29 전교조 반대결의 대회가짐

- 태백시 학교어머니회 연합주최로 300여명의 어머니들 모임.
- 결의문 채택
- 황지국교에서 전교조사무실을 거쳐서 태백역 광장까지 시위
- 이 과정에서 공대위과 “공개토론회”을 제의했으나, 제의에 그침

황지여상 약속을 어기고 주동학생 5명을 4시간동안 자술서를 쓰게 하고 학부모를 모셔 오게 함

어머니교실, 월례회 등을 빙자하여 전교조를 비방하는 장학사의 설명회, 전교조발대결 의대회에 어머니들 동원.

1989.08.30 정연심교사 방송으로 학생으로 만나게 해주겠다던 약속 어기고 교장이 대표로 위임인사를 함
주동학생 4명 모두 각서 씀

사건 배경 :

사건 내용 :

관계 인물 : 전인호, 정연심, 권혁소, 최승룡, 한연숙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15. 사건명 : 제1회 광산노동자대회

발생일 : 1989년 7월 8일

관련 일지 :

배경 :

내용 :

1989년 7월 8일 성완희열사 추모 1주기를 맞아 황지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성완희기념 사업회 주최로 1000명의 탄광노동자들이 "성완희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광산노동자대회" 개최 ,태백역에서 황지국민학교까지 거리행진.

강사 - 원기준 (성완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관계 인물 :

관계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성완희 열사 분신투쟁

16. 사건명 : 성완희열사 기념사업회 및 인권위 침탈 사건

발생일 : 1989.7.22

관련 일지 :

<선교탄압 및 노동운동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일지>

*7월 22일

15시 40분경 80여명의 경찰병력이 차량 20여대를 동원, 압수수색영장 6매를 들고 와서 성완희 기념사업회 및 태백선린교회와 인권위원회 사무실 수색실시

압수수색 영장내용

- 사건명: 국가보안법 위반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 담당 판검사: 영월지청 이준훈검사, 박선주 판사
- 영장기한: 7월 22일-30일
- 내용: 용공이적표현물 제작보관 및 탄광노사분규에 제 3자 개입 혐의물건, 북한원전 및 용공이적 표현물,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 보조기구 등 일제압수
- 압수물품: 전동 타자기 2대, 복사기, 대형흑판, 비디오 테잎 17개, 브이티알 짝, 노래 테잎 140개, 서적(단행본) 500여권, 자료집 100여권, 노.운.협 기관지(노동운동)30여권, 노동자의 길 40여권, 대외신문(전민련, 노운협, 주간노동자신문, 전교조등 다수), 각 사업장 소식지, 성기사일지 자료, 케비넷 5개모두, 자료박스 5개, 잡기서류 5박스, 현수막 5개, 만장 20개, 깃발 4개, 걸개그림, 영정사진, 영정 걸개그림, 성기사 상징깃발, 추모시, 회의록등외 다수

17시 20분 압수수색 끝남, 사진 수십장 찍어감,
수색항의에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겠다” “입 다물고 입회만 하라”고 엄포
전화기 사용 못하게 하는등 난폭행위
이후 성기사, 인권위, 선린교회 주변에 잠복 근무하여 동태를 살핌
18시 대책논의, 선린교회에서 성명서채택, 실무자들간의 잠시 사무실 비움

* 7월 23일

11시경 주노신, 노운협, 서울 인권위, 한겨레, 중아일보, 동아일보 중앙에 상황알림
선린교회에서 3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 불법난입 및 선교탄압규탄 예배

20시경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 교회차원에서 항의 성명서 채택, 임시 상임위,

임시총회, 실무소위 구성논의, 항의농성에 관한 논의

* 7월 24일

9시 각 상임위원 연락 후
11시 상임위 회의-항의성명서, 규탄문 채택
12시부터 현수막 내걸고 농성 돌입
12시 춘천인권위 전화, 상황알림
14시 춘천진보련 전화 대책 및 사후 싸움알림
19시 성기사 회원비상총회

상임위원장 직무대행선출(배진), 성기사 비상시기 선포, 농성결의,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실무소위 발족

* 7월25일

12시 성기사, 인권위, 사선, 선린교회명의로 경찰서장, 영월지청 이준훈검사에 항의서 및 공개질의서 발송

한국기독교 장로회 강원노회 도경찰국 항의 방문

15시 전국인권위 사무국장, 인권위 사선 목회자들 도착. 대책회의 선교탄압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송순오 목사님) 공대위 발족에 참가기로 결정

16시 선탄대위 태백경찰서로 항의방문 출발

성완희 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신문 회의 발행

* 7월 26일 :농성계속

11시 경기남부노련과 접촉 : 연대투쟁의 계기마련

15시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광산지역 사회선교협의회, 성완희기념사업회, 강원목회 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춘천기독교청년협의회,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춘천인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강원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태백선린교회, 원주인권선교협의회등 11개단체가 선교탄압 및 노동운동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7월 27일 : 농성계속

11시 시새 전지역 항의 포스터 및 성명서, 속보배포 작업

배경 :

내용 :

관계 인물 : 원기준, 용정순, 유일권, 윤임현, 안재성

관계 단체 :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태백선린교회, 성완희기념사업회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광산노동자대회, 89년 동원탄좌 파업

보도자료

1. 현정권은 지난 18일 사북 가톨릭노동상담소, 고한 노동자상담소에 강제 압수수색을 하여 사무집기 일체와 사북상담소간사 유일권씨를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및 제 3자 개입금지협의로 구속하고 고한 노동상담소 윤임현소장을 사북상담소 용정순 간사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이어 7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태백의 성완희 기념사업회, 인권선교위원회, 태백선린교회, 간사숙소등 6곳을 60여명의 사복경찰과 1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강제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경찰들은 1000여권의 책과 각종자료 30박스, 복사기, 타자기등 건물만 남긴채 무분별한 압수를 자행했다. 또한 성완희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원기준(29)씨를 검거하기 위해 사복경찰들이 성기사, 인권위, 선린교회 등에 잠복 근무하여 감시하고 있다.

2. 최근의 현정권의 이러한 탄압행위들은 올해 상반기의 임금인상투쟁이후 성장하는 광산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위협을 느끼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현정권의 반 노동자적 탄압행위이며,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광산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온 양심적 교회와 선교단체들에 대한 선교탄압임이 분명하다.

4.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의 폭력행위에 맞서 단호히 대처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5. 우리의 요구

- 1) 현 정권은 노동운동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2)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 3) 교회와 선교단체에 대한 선교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4) 부당하게 압수해간 ‘물품을 즉각 반환하라!’
- 5)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1989.7.27

선교탄압 및 노동운동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광산지역 노동운동 탄압 음모를 규탄한다

독점재벌을 비호하는 독재정권의 민중운동 탄압의 마수가 드디어 광산지역을 비롯한 전 강원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노태우정권은 지난 22 태백의 성완희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인권선교위원회, 태백선린교회, 사복, 고한 노동상담소에 무차별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각종서류, 책자, 사무집기 등을 압수하고, 유일권(사복 가톨릭 노동문제 상담소) 간사를 국가보안법 및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완희 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원기준씨 외 3인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하는 등 현정권은 광산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조작된 수사를 규탄한다!!!

독재정권은 89.상반기 임금인상투쟁을 통해 끓어오르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주화 열기를 저지하기 위해 각 지역의 노동운동가를 비롯한 제민주단체에 대해 전면적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강원일보 7.28자 보도에 따르면 “4월부터 탄광노사분규 특별수

사 본부를 설치하여 탄광노사분규에 대한 배후 조종세력에 수사력을 기울여 왔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민중운동 탄압임을 알 수 있다.

폭압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현정권은 압수수색 과정에 개인의 일기장을 비롯한 영장 내용과 무관한 사무집기, 교회의 선교에 대한 목록(성서 해석집 등) 성완희 열사의 영정과 유품까지 무차별 압수를 자행하는 등 자신들의 본질인 폭력성과 비도덕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날 압수당한 장소가 “광산쟁이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며 독점재벌과 독재정권에 맞서 분신, 산화해 가신 고 성완희 열사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라는 점과 교회 및 선교단체라는 것을 볼 때 현 노태우 군부독재정권의 폭력적 탄압이 노동운동을 비롯한 제민주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중운동 탄압방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독재정권은 불법조직인 “탄광지역 노사분규 특별수사본부”라는 발표에서 “계급혁명에 이론적 기초를 둔 좌경폭력 불순세력” “광산분규 배후조종 주동 좌경불순세력 가담 적발” 운운하며 가장 헌신적으로 노동자들과 굳건하게 결합하여 싸워온 노동자들을 “좌경불순세력”이라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 등을 무차별 적용하며 일반 노동자들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이제는 아무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이용해 말살하려는 음모이다.

이에 우리는 강원지역 민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현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주장

-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동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좌경용공 날조하는 안기부를 해체하라!
 - 검찰은 강탈해간 물품을 즉각 반환하라!

1989.8.4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강원공동대책위원회, 강원민족민주운동연합
진보정치연합 원주지부·춘천지부, 태백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성완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겸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간사였던
원기준 전도사의 구속재판에 대한 성명서**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 최근 악화된 인권상황을 심히 우려하며-

정의와 평화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창1:26-28),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에게도 짓밟힐 수 없는 존엄한 인권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은 문익환목사님의 방북사건 이후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학생, 노동자, 농민, 교사, 교수,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교도소에 가두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극심한 인권탄압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하나님의 선교’ 이념을 광산노동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실천하던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원기준 간사(전도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여 이제는 선교의 자유마저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각의 지역에서 인권선교를 위해 노력해왔던 NCC인권위원회 전국 8개 도협의회 간사들은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성스러운 교권이 침해당하는 개탄스러운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여 한국교회가 이 땅의 인권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언자적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단식기도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방관자적 자세는 민족과 교회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전국 8개 도협의회 간사들은 다음 몇가지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교역자님과 성도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1.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모든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즉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논의와 자주적인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있어 ‘통일’이라는 한민족의 지상과제를 성취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문익환목사, 문규현신부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루고 있으며 6공화국 들어와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 등 1,300여명이라는 엄청난 시국사범이 양산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방관자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으로 7년이상 20~40년이나 되는 엄청난 기간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장기수도 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회의 배려와 관심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국교회는 반인권, 반통일, 반민주악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앞장서서 악법으로 말미암아 옥고를 치르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고문수사, 폭력테러, 의문사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공안정국 이후 현정권은 이철규씨, 이내창씨 등 청년학도를 의문 속에 살해하고도 그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홍성담씨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에게 공공연히 고문수사를 자행하는 등 인륜과 도덕을 거역하는 타락정치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정권은 국민대학교 김정환군 생매장 및 마창노련, 한울타리를 비롯한 제민주단체를 급습하여 대낮에 인명과 재산을 손상시키는 폭력테러 행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고문수사, 폭력테러, 의문사의 주범들이 아직 색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당국이 인권보장을 통한 민주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한국교회는 고문수사, 폭력테러,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에 앞장서서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 이러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3.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원기준 간사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선교탄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정권은 ‘하나님의 의’를 사회 속에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교역자와 교인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선교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 노동선교를 헌신적으로 실천하던 원기준 간사를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 징역 5년 구형하였으며 주보내용을 문제삼아 수원 아리랑교회 서정문 전도사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성스러운 교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한국교회는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여 선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4. 5공비리는 청산되어야 하며 광주학살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현 정권은 5공화국 시절의 악명 높았던 비리주범들과 학살주범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 역사에 광주학살과 같은 비극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엄청난 비극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5공비리, 광주학살의 주범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는 일에 앞장 서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진리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1989년 11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전국 8개 도협의회 간사 일동

17. 사건명 : 광산노동자협의회 침탈 사건

발생일 : 1990. 3

관련 일지 :

경찰의 광산노동자협의회 사무실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관련

* 3.20

13:00-14:30

태백경찰서 대공 2계장 안동식외 20여명의 경찰관이 광산노동자협의회 사무실(이하 광산노협, 태백시 상장동 194-19소재)에 들어와 압수수색하면서 조용일(28세 전 성완희기

념사업회 사무국장), 강희수(24세, 광산노협간사), 정인화(석공도계광업소 노동자), 김영수(석공 도계광업소 노동자)연행하고 이를 항위하던 권영철(27세 광산노협간사)를 공무 집행방해라는 명목으로 연행

영장내용

발주자: 춘천지원 영월지법 박선주 판사

기간: 2.27 -3.20

내용: 3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압수내역: 각 현장소식지, 광산노동자신문, 책, 자료, 내부문건, 업무일지, 통장,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테이프, 개인사무, 전화번호부, 현장유인물초안 등 5상자 정도

16:00 배진(광산노협 의장)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갑방근무 중 갱입구에서 강제연행

18:00 사복경찰관 5명이 배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책, 자료 등 4상자분량을 가져감, 이에 항의하던 정문호(석공 장성광업소 노동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마구 집행함

영장내용

발주자: 춘천지원 영월지법 박선주 판사

기간: 2.27 -3.20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등

20:00 정인화, 김영수 씨 신원확인 후 석방됨

연락한곳 한겨레 춘천지사(유남선, 김종화 기자), 전국노동자신문, 주간노동자신문, 원주 사문연, 춘천인권선교위원회, 각 노개추(한보, 도계석공, 삼탄, 장성석공, 경동, 동탄, 강탄, 함백석공)

* 3.21

09:00 조용일씨 집에서 개인물품 6상자정도를 압수해 감(본인대동).

10:00 권영철씨 석방. 조사내용은 성기사 회보 1회에 실린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중의 내용에 대하여 집중조사

16:00 차장훈씨 (한성탄광 노동자)가 을방 근무 중 회사 내에서 사복경찰관 3명에 의해 강제 연행됨

18:00 광산노협 임시총회개최: 의장권한대행 선출 및 대책논의

19:00 정성우 씨(도계석공노동자)가 경찰에 임의동행식 연행.

23:40 정성우 씨 조사 받고 나옴, 조사내용- 성기사 회보 1호의 내용에 대하여 집중조사

24:00 차장훈씨 조사 받고 나옴. 조사내용- 배진씨 참고인 조사로 성기사 회보 1호에 대하여 중점조사

연락한 곳: 전국노동자 신문에 사건일지 팩스로 우송

* 3.22

10:00 배진 의장택 방문

11:00 배진 의장 부친과 부인, 배진 의장 면회

12:00 각 노개추에 3.21 상황, 3.22 상황 전달

14:40 박천수씨(강원탄광 노동자)가 회사 내에서 태백경찰서로 전주혁, 이석영 형사에게 연행됨

23:40 박천수씨 조사 받고 나옴. 조사내용 성기사 회보 1호에 대하여 집중조사

24:00 배진씨, 조용일씨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됨

적용법: 국가보안법(배진)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12조 3항, 노동쟁의 조정법(조용일)
전미영씨 불구속 입건, 국가보안법 적용

* 3.23

08:00 경찰의 사건수사 발표

16:00 목회자 4인, 이창복 전민련 공동의장 등 구속자 면회

* 3.24

13:00 배성수씨(강원탄광 노동자)자택에서 연행

16:40 배성수씨 조사 받고 나옴 조사내용은 조용일씨 강탄순회여부, 단결지 발행관계

* 3.25

17:10 속보 1 시내배포

15:00 2차 대표자 회의

* 3.26

11:30 정성우씨(도계석공 노동자) 경찰서에 출두

13:00 정성우씨 조사받고 나옴

조사내용: 조용일씨 도계석공방문유무, 문건배포 유무, 간사의 역할 추궁, 전교조와 성기사의 관련유무, 도계석공 선거관계

13:30 유태호, 정문호, 박종섭씨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서 통지됨

한주희, 박광용, 김흥대씨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서 통지됨

14:00 김흥대씨(광산노협의장 권한대행, 장성석공 근무)경찰서에 면회 갔다가 조사 받음

17:00 김흥대씨 조사 받고 나옴

조사내용: 문건배포 유무, 속보 1호 제작관계, 장노개추관계, 속보 1호 배포 건으로 즉심에 넘어감

* 3.27

03:40 전국노운협에서 조사차 방문

07:10 박광용씨(한보탄광 노동자)자택에서 연행되어

16:00 박광용씨 조사 받고 나옴

조사내용: 한노개추 결성관계, 함성지 제작관계, 조용일씨 순회 교육유무, 문건, 회보수령유무, 학습실시 관계

17:00 우구하씨(한보탄광 노동자) 퇴근중 연행됨

19:00 우구하씨 조사 받고 나옴

* 3.28

09:00 정운환씨, 김창완씨, 장봉철씨에 대하여 참고인출석요구소 통지됨

14:10 박은주씨(강원탄광 노동자) 경찰서에 출두

17:50 박은주씨 조사 받고 나옴

조사내용 : 조용일씨 관계(순회교육, 알게된 때 등), 강노개추 결성관계, 단결지 제작관계, 문건, 회보수령유무, 강노개추 조직관계

배경 :

내용 :

1990.3.20 광산노동자협회 사무실에 대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각 현장소식지, 광산노동자신문, 책, 전화번호부 등 5박스 분량의 각종자료를 압수해가고 사무실에 있던 조용일씨(29세, 성완희기념사업회 전 사무국장)와 전미영씨(23세, 광산노협 간사), 권영철씨등 방문중이던 노동자 3명을 영장없이 강제 연행해 갔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압수물품이 139종 210점이라 하였는데 업무일지, 개인용품, 통장 등 압수품목으로 제시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광산노협의 활동상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어 경찰은 당일 16시경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배진희장(32세, 장성 석공근무)을 역시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갔다. 또한 배진 의장 댁을 수색하여(18시경) 책, 자료 등 4박스 분량을 압수해 감. 20시경 사무실 압수수색시 함께 연행되었던 정인화, 김영수씨(도계석공근무)가 조사 후 석방됨.

3.21 오전 9시경 조용일 자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 개인물품 6박스 분량을 압수해 감. 이후 차장훈씨, 정성우씨, 박천수씨 등 현장노동자가 연행되어 조사 받고 나옴. 조사의 주요내용은 광산노협에서 발견된 국가보안법상의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마치 지하조직의 조직선을 조작하여 이를 사건화 하겠다는 의도가 강했음.

3.22 22시경 배진의장과 조용일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됨(적용법: 국가보안법)

3.23 오전 8시경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었음

3.24 배성수씨가 연행되어 조사 받고 나옴. 이후로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함

관계 인물 : 조용일, 배진

관계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18. 사건명 : 90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파업

발생일 : 1990년 7월 9일 ~ 90년 8월 17일

관련 일지 :

- 7월 8일 철암갱 대의원 명의의 “ 현집행부는 임시총회를 열어 임금인상 및 집행부 불신임의사를 묻는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라”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됨
- 7월 9일 장성광업소장 명의의 “ 90년도 임금인상에 즈음하여 ” 유인물 공식 배포
- 7월 10일 임금인상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92.5%의 반대
- 7월 11일 “ 장노개추” 명의의 “ 임금재협상 결렬” 대자보 부착후 조합원들 비대위 구성 촉구 비등
- 7월 12일 회사 정문 계단에 70여명 노동자 집결 전면 파업 시작
손석암을 비롯한 25명의 대의원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장성석공 노조지부장 직무대행 윤경희 사표 제출)
- 7월 25일 노동자들의 협상 내용과 절차에 대한 반발로 비대위 해체
- 7월 26일 1500여명의 노동자 본관앞 집결, 노조퇴진 요구 , 비대위 성토
기존 비대위 해체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 (위원장 배진)
- 7월 27일 비대위 출범식
- 8월 7일 안필준 사장 명의의 임금인상 등에 대한 회사 입장 공고문 게시
- 8월 8일 비대위 찬반투표 공권력 투입으로 원천 봉쇄당함
- 8월 13일 1000여명 본관앞 집회 중 배진 위원장 연행당함.
- 8월 16일 비대위 선전물 배포
- 8월 17일 장성광업소 정상화 촉구 시민대회 (500여명)

배경 :

내용 :

관계 인물 : 배진

관계 단체 : 광산노동자협의회

관계 자료 :

장성석공 파업일지

호소문 장성광업소 파업참여직원에게 대한 작업복귀 호소문

성명서 회사와 경찰은 공권력투입을 즉각 철회하라!

관련 사건 :

19. 사건명 : 한보탄광 막장 농성

발생일 : 1990.7.7

관련 일지 :

<한보탄광 파업투쟁 기록1>

*7월 7일

200여명 집결. 광산노협의 노개추 대표자 5인과 사무국 1인, 노추위에서 파견지지를 표시하고 7월 8일의 광산노동자대회에서 방송으로 선전하기로 하고 새벽 01:00경 내려옴. 조합원들의 상태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 위원장의 도주와 막장에서 트쟁하는 동지들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상황을 극도로 혼란케 함.

비대위 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음.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 장성구 동지가 조합원들의 전체 분위기를 정리해 내지 못함[마이크를 장악하지 못함]

박광용 동지의 말 한마디가 상당한, 조합원의 집결상태를 파기함[도주한 윤석창이를 찾아서 내려가라는 말] 이후 우구하 동지의 침착한 통솔로 100여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약간의 진정상태를 보임. 광산노협 대표자 지지표명 연설.

*7월 8일

15:30 이전에 백형근씨가 광산노동자대회에서 한보투쟁현황을 폭로. 이후 장성구의 6명의 조합원들이 대회장에 선전하기 위해 도착. 구호와 노래를 함. 이후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서지지 연설과 결연한 투쟁을 당부.

*7월 9일

18:00 [결사항전의 막장투쟁 동지들로부터]2시간 이내에 비대위 2인을 들어오라 함. 그렇지 않을 시 점차적으로 동발을 제거할 것이라 함. 곧바로 비대위 포함 12인 연락하러 들어감. 비밀리에 비대위와 노조, 회사측 협상에 들어감.

20:00 노동자 500여명 회사 입구 앞 통리 삼거리 도로 차단 농성중.

22:00 경찰 투입 최류탄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와 가족, 아이 등 20여명 부상. 비대위와 회사측 협상타결 내용 발표.

* 7월 10일

03:00 협상안 조합원에게 발표. 비대위에 대한 불신 가중.

11:45 50여명 현장에 집결. 10일의 협의 사항 복사하여 사택단지에 대량 배포함.

13:00 설명회[타결안에 대해]찬반투표 예상

16:15 현장 소장, 경찰서장 입항. 막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족들이 거센항의를 함. 사복 경찰 다수 배치됨. 갭 입구와 현장조합원에 배치함.

19:00 설명회 후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봄. 조합원 협상안에 대해 전면 거부기로 함. 백형근, 최흥경씨 협상위원으로 구성.

23:00 30여명 철야 농성 준비. 3단지 사택 입구[전경차 3대], 통리 국민학교[전경차 8대], 통리 삼거리[3대] 등 약 10여대 이상 회사 주변 배치.

* 7월 11일

06:50경 비대위와 노조, 회사측의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타결안에 의하면 7월 11

일부터 정상조업이므로 정부와 자본가의 강제조업 의도로 전경차 7대가 갱입구로 진입 하자 철농중이던 30여명의 노동자가 피신, 이 중 4명의 노동자가 항안으로 피신 결사 항전의 막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지들로부터 20여미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광차와 받 침목으로 갱을 봉쇄하고 투쟁중.

4인[박광용, 우구하, 박해원, 최원규]

15:20 결사항전의 막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의 8개항의 요구안. 밖의 지도부의 실체도 불명확할뿐더러 갱속의 동지들도 투쟁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안과 밖의 충분한 토의 없이 일이 진행되기 일쑤. [8개항의 요구안도 갱동지들의 일방] 6명의 막장투쟁 동지 계속해서 춥다고 호소.

협상위원으로 백형근, 최흥경씨가 선정. 7월 10일의 협상안 거부로 비대위 자연적으로 해소됨[새로운 지도부 사실상 장성구 동지를 중심으로 형성됨]

16:30 평민당의 노동국, 조사단 성격으로 방문. 시청에 들러 기관장들의 일방적 설명만 을 듣고 가려하는 것을 저지하고 현장으로 가게함. 보수야당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 며 아전인수격으로 평민당 선전일색. 노노싸움으로 해석. 기관에서도 역시 노노싸움으 로 악선전해대고 있음. 철야농성 150여명 준비.

* 7월 12일

12:20 현재 공권력 투입 임박했다는 정보. 7월 11일 들어간 동지들 밖의 투쟁의 정리를 위해서 막장에서 결사항전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6명의 동지들의 설득으로 막장투쟁을 풀고 4명의 동지들 나옴.

18:00경 사북천주교회 신부가 막장투쟁가족 4인과 함께 들어가 6명의 동지들을 설득 함.

23:00경 신부 다시 한번 갱에 들어가 설득작업을 함.

*7월 13일

03:00경 6명의 동지들 나오기로 함.

07:00 막장 밖으로 나옴.

18:00경 현노조집행부측에서 유인물을 배포함. 보복조치의 가능성 시사.

* 7월 14일 01:00경 지난 6일 파업과정에서 상임집행부 4인[황순영, 강영길, 이광섭, 박상선]을 이동호씨의 부인이 이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저 놈들이다”고 소리 쳐 이들이 파업현장에 붙들려가 곤욕을 치른 것에 대해 보복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한보탄광 파업투쟁 기록2>

* 6월 28일

조합원 의사를 무시한 채 노조(윤석창위원장)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과 임금인 상안을 타결. 이에 대해 집행부퇴진, 단체협약 무효화, 해고자복직 등을 걸고 파업에 들어감.

* 7월 7일

2:30경 북부사갱 2,550m 지점에서 막장을 헐고 김석순집사(연화교회)와 5명이 6개항의 요구를 내걸고 농성중

* 7월 8일

23:50 교회협소속 목회자들(황재용, 김대권, 이상진, 윤창현, 김성진, 이건강, 심영식, 유재무)이 한보탄광을 방문, 노동자들과 대화 이어 가족과 함께 장성경찰서장을 면담 했는데 노동자가족들의 불신이 큰 것을 느낌.

* 7월 10일

11:00 교회협회장 손명철 목사, 황재용목사, 윤창현목사, 유재무목사가 한보탄광을 방문했고 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다짐을 받음.

* 7월 11일

09:30 유관단체들이 한보탄광 노사분규 공동대책위를 구성 지금까지의 사건을 논평하고 경찰서장 방문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촉구<공동대표 신성식목사, 김한기 신부>

* 7월 11일

오후 4시 교회협 차원에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사정을 아뢰고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연화교회에서 개최기로 결정

<한보탄광 파업투쟁 기록3>

*6월 8일

쟁의발생 신고

*6월 19일

임금 9.2%인상안과 단체협약 갱신결과에 대한 쟁의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총조합원 853명 중 656명이 참석

임금인상안-찬성 533명, 반대 109명, 81.25% 찬성

단체협약 갱신안 - 찬성 566명, 반대 76명, 86.28%찬성 파업을 결의

*6월 21일

노조주도하에 500여명 회사에 모여 농성

*6월 22일

500여명중 방별로 단협갱신안에 대하여 분임 토의

최저기본금(12,000-10,000 요구안)

상여금(통상임금의 550% 요구

년 월차(통상임금에 적용)

근속수당(1000원, 2년에)

중식대(1.000)

가족수당(현재 4인으로 통일 35)

입항수당(2,000)

해고자 복직

회사: 직장폐쇄 신고.

*6월 23일

회사직장폐쇄철회, 협상 계속

*6월 25일

집행부 - 소장실 앞에서 하루동안 단식농성

*6월 29일

위원장이 새벽4시 일방적으로 단협 및 임금인상안에 대한 합의문에 조인

노동자들 위원장 일방합의에 반발, 집행부에 거센 항의

*6월 30일

위원장의 일방합의에 반발 11시부터 노조에서 300여명 농성, 비대위 구성제안

노조: 협정시 서명 경위 발표

*7월 1일

한보3단지 아파트 100여명 농성

결의문작성-7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현 집행부 불신임 결의

*7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 (최흥경, 백형근등 17인으로)구성, 윤석창 및 집행부 사표 제출

*7월 3일

회사측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임투표(참석-430명, 찬성-453명, 반대-25명, 무효-2명)

한보탄광 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 회원 박광용동지, 경찰에 연행(업무방해고발)

*7월 4일

회사광장에 1000여명 집결 농성(50여명 철야 농성)

*7월 5일

1,000여명이 현장 집결

비상대책위원회 인정, 협상에 임할 것,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7-8명정도 잔류

*7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윤석창 회사측-황지청년회의소에서 2시협상

시청, 민자당 사무실 점거 무산

*7월 7일

김봉석, 김광희, 권순택, 김해동, 신성만, 김석순 6명 북부사갱 갱구로부터 2,250m 지점에서 갱도를 봉락시킨 후 단체협약 무효, 윤석창 및 노조집행부 사퇴, 해고자복직, 협상전 요구조건 수용, 파업기간 유급처러등 관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광산노협 “한보탄광 노동형제 6명, 막장에서 필사투쟁” -속보발행

200여명 집결, 광산노협의 노개추 대표자 5인과 사무국 1인, 노추위에서 파견지지를 표명하고 7월 8일의 광산노동자대회에서 방송으로 선전하기로 하고 새벽 01:00경 내려옴. 조합원들의 상태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 위원장의 도주와 막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에 대한 긴급한 상황이 극도로 혼란케 함. 비대위 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음.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 장성구동지가 조합원들의 전체 분위기를 정리 해내지 못함 (마이크를 장악하지 않음).

박광용동지의 말한마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침(조합원들의 집결상태를 파기함 도주한 윤석창이를 찾아서 내려가라는 말) 이후 우구하 동지의 침착한 통솔로 100여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약간의 진정상채를 보임. 광산노협 지지표명 연설

***7월8일**

백형근 광산노동자대회에서 한보탄광 투쟁보고

7명의 노동자 및 막장농성 노동자들의 가족-대회장에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
백기완선생 한보 지지방문(한보지원을 위한 모금 109,140원)

***7월 9일**

회사에서 농성

20:30 500여명 통리 삼거리 도로 차단농성,

22:30 경찰투입해산, 회사로 일부 올라가 농성, 12명정도의 노동자 및 가족들이 부상
결사항전의 막장투쟁을 동지들로부터 2시간 이내에 비대위 2인을 들어오라 함 그렇지
않을 시 점차적으로 동발을 제거할 것이라 함

곧바로 비대위 포함 12인 연락하러 들어감. 비밀리에 비대위와 노조, 회사측협상에 들
어감

한보탄광 노사분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공동위원장: 신성식 목사. 김한기 신부)

비대와 회사측 협상타결 내용발표

한보 민주 노동자 일동 명의의 유인물 배포됨

***7월 10일**

03:00경 협상안 조합원에게 발표, 비대위에 대한 불신 가중

11:45경 50여명 현장에 집결, 10일의 협의 사항 복사하여 사택단지에 대량 배포함

13:00경 협상에 대한 설명회, 찬 반투표 예상

16:15경 현장소장, 경찰서장, 입항, 막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족들 거센
항의를 함. 사복경찰다수 배치됨. 갱입구와 현장조합원에 배치함

19:00경 설명회 후 조합원들이 의사를 물어봄. 조합원협상안에 대해 전면 거부기로 함.
백형근, 최흥경 협상위원으로 구성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배포

***7월11일**

06:50경 비대위와 노조, 회사측의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타결안에 의하면

7월 11일부터 정상조업이므로 정부와 자본가의 강제조업 의도로 전경차 7대가 갱입구
로 진입하자 철농중이던 30여명의 노동자가 피신, 이중 4명의 노동자가 항안으로 피신
결사항전의 막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지들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광차와 받침
목으로 갱을 봉쇄하고 투쟁 중. 4인 : 박광용, 우구하, 박해원, 최원규

15:20경 결사항전의 막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로부터 8개항의 요구안 나옴. 6
명의 막장농성 노동자들 계속 춥다고 호소

16:30경 평민당의 노동국, 조사단 성격으로 방문. 시청에 들러 기관장들의 일방적 설명
만을 듣고 가려하는 것을 저지하고 현장으로 가게 함. 평민당 선전 일색, 노노싸움으로
해석, 기관에서도 노노싸움으로 악선전하고 있음. 철야농성 150여명 준비.

공대위 태백경찰서 항의 방문

광산노동자 신문 속보 발행

태백민주시민회 “한보탄광 여섯 시민을 구해냅시다” 유인물 배포

한보탄광 노사분규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현정권과 한보탄광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유인물 배포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명의로 “한보탄광 노사분규에 대한 우리의 입장”

***7월 12일**

7월 11일 막장으로 들어간 동지들 밖의 투쟁을 정리를 위해 막장투쟁을 풀고 나옴.

18:00 사북 천주교회 신부가 막장투쟁 가족 4인과 함께 들어가 6명의 동지들을 설득 함.

23:00경 신부 다시 한번 갭에 들어가 설득작업을 함.

태백시 기독교교회 협의회 주최로 “한보탄광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기도회 개최.

한보탄광 소장, 노동부 태백지방 사무소장의

1. 공상자 평균임금 적용 이행
2. 갭내 농성자 보복조치 않겠음
3. 사법기관에 관대한 처리를 건의

확인서 막장 전달

***7월 13일**

03:00경 6명의 동지를 막장에서 나오기로 함.

07:00 막장밖으로 나옴. 병원에 입원

전노협 명의의 성명서 배포 “막장의 피맺힌 외침!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8:00경 현 노조집행부 측에서 유인물을 배포함. 보복조치의 가능성 시사

***7월 14일**

01:00경 지난 6일 파업과정에서 상임집행부들이 파업현장에 붙들려가 곤욕을 치른 것에 대해 이동호씨의 부인에게 보복 폭력을 행사

***7월 27일**

광산노협 등 7개 단체 “즉각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성명서 발표

***7월 28일**

막장농성노동자 6명 “동료,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배포

***8월 1일**

위원장 불신임 투표 무산, 집행부의 부정으로 무효

***8월 2일**

재투표 총 803명중 투표참가자 620명 (찬성 482, 반대 128, 무표 10) 집행부 불신임안 가결

***8월 23일**

위원장 보궐선거 (전우진 190, 김기정 119, 홍돌이 111, 김봉석 61)

***8월 24일**

2차 투표 (전우진 297, 김기정 236)

***8월 25일** 인준 투표 - 전우진 통과.

배경 :

내용 :

관계 인물 :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생존과 권리 보장 쟁취를 위해서 지난주 9일부터 전 조합원이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인간취급조차 않는 기업주는 처음부터 똥배짱을 부리며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주의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전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규탄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해고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노동조합에서 단식 농성으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

1. 기업주는 박광용, 우구하, 장성구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 복직 시켜라.
2. 기업주는 파업기간을 전원 유급처리하라.
3. 기업주와 노조집행부는 3억 7천내지 4억이란 임금 착취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라.
4. 노조 집행부는 구체적인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공개하라.
5. 집행부는 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위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한보탄광 노동조건 개선추진 위원회 해고자 일동-

한보노사분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 생명을 온전히 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동안 광산지역에서 일해 온 우리는 최근 한보탄광 노사분규를 접하고,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선 장기간 파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노동자 가족들과 막장에서 죽음을

무릅쓴 6명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0. 하루빨리 회사와 노동자들은 새로운 대표들로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0. 무엇보다 6명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의 해결 열쇠를 갖고 있는 회사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당국은 무조건 회사와 노조 집행부만을 비호하지 말고 공정한 중재를 바랍니다.

0. 노.사 상호간에 쌓인 반목과 불신을 없애는 길이야 말로 이 나라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한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가 하나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0. 끝으로 우리 인권위는 이 절박한 현실을 가슴아파 하면서 우리의 부족과 무능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 노력할 것입니다.

1990년 7월 12일

태백지역 인권 선교 위원회 위원장 송순오

성명서

막장의 피맺힌 외침!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기만적 임금타결 즉각 취소하고 노동운동탄압 즉각 중지하라-

폐광이 속출하고 실업이 급증하여 도시가 없어져 가는 기막힌 광산촌의 현실, 그리고 실업대책은커녕 최소한의 임금보전조차 없는 광산노동자의 생존압살에 항거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갭 속 2.2km 철쭉 같은 어둠속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생명수 삼아 결사적인 막장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6.20부터 파업에 돌입한 태백 한보탄광에서 7.7 이래 7째 6명의 동지들이 물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과 조합원을 기만하여 이에 일망타결한 노조집행부의 퇴진, 3명의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한보탄광뿐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점촌, 함백 광업소 등지에서, 경동탄광에서, 전남 화순에서 이미 일만 여명의 광산노동자 동지들이 작업거부, 파업을 결행함으로써 투쟁의 봉화가 올랐다.

그 얼마나 내몰리고 짓눌렸던가? 세계 제1의 산재왕국에서 산재사망 1위가 바로 광산

노동자를 뺏뺏한 시체로 말라죽게 하는 진폐증이 아니던가? 탄높이로 생계비를 깎고 덧붙이는 봉건적인 도급제가 육신을 극한으로 몰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자의 피땀위에 성장했음에도 노동자의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는 광산주와 정부의 합작품, 석탄사업합리화 조치로 광산노동자는 길거리로 나앉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특히 90임금 인상에서 한자리수 이하를 강요하는 자본가와 정부, 어용노조의 음모 앞에서는 과감한 결사항전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보라!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속속 파업, 비상대책위 깃발로 집결하는 우리 형제, 가족들을!

그러나 아직도 광산주와 태백시청, 노동부와 동자부는 우리 동지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단결을 흐트러뜨리기에 혈안이 되었다. 단식농성중인 갯 앞에서 철야 농성하는 조합원과 가족들을 포위하고 밀어붙여 다시 4명의 형제들이 갯 속의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저들은 막장의 붕괴와 뒤따르는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막장진입시도를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강원도내의 5개중대 전경을 태백에 집결시키고 회사관리자와 함께 시내와 사택을 돌며 무조건 항복인 출근을 강요하였다. 80.사북노동형제들, 그리고 성완희 열사의 피맺힌 절규를 어찌 기만과 탄압으로만 짓누르려는가?

“광산쟁이도 인간이다” 아니 광산노동자야말로 이 나라 산업발전과 4천만 국민의 생활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다. 전노협은 ‘2천5백만 노동자와 가족의 일치된 뜻과 힘을 모아 광산노동자의 생존과 민주노조를 즉각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광산은 망해도 광산주는 살찌는 현실, 국민의 세금을 노동자 복지는커녕 개인 선거자금으로 유용하는 정부가 광산노동자를 탄압으로 짓밟을 때는 천만노동자의 투쟁과 전국민적 심판이 남아있음을 경고한다.

- 한자리 수 임금인상 취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 정부, 광산주, 어용노조는 담합을 중지하고 민주노조 보장하라!
- 경찰병력 철수하고 시청, 노동부, 경찰은 즉각 탄압을 중지하라!
- 정부는 폐광으로 일관하는 광산노동자 생존권 압살정책 중단하라!

1990. 7. 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성명서

<속보> 한보노동형제, 6명, 막장에서 필사 투쟁!

지난 7.7 12시경 파업 중이던 한보탄광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협상회피에 항의, 항을 붕괴시키고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보탄광 노동조건 개선 추진위원회 회원인 김봉석, 김강희, 신성만, 권순택, 김석수, 김해동씨 등 6명의 노동자가 항 입구에서 500미터 지점에 위치한 북부사갱우하반 채탄막장에 진입, 항을 붕괴시키고 외부와 완전 차단된 채 공기 파이프를 대화만이 가능한 상태로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해 농성

중이다.

그간 한보탄광 노동자들은 지난 6.20 지방노동위원회 임금중재안을 거부,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 윤석창은 조합규약을 어기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강력하게 반발 항의하자 노조위원장은 행방을 감추어 버리고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조업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7.1 17인으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의 사표수리와 함께 협상재개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유인물을 통하여 비대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이들을 불법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대화를 회피해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7.7까지 매일 100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고 항의집회를 가져왔었다.

항내에서 농성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무효, 협상전 요구조건 수용, 파업기간유급처리, 노조집행부 파면, 해고자복직 등이다.

우리의 요구

- 회사는 농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락하라!
- 회사는 노동자를 사리로 모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990.7.7

광산노동자협의회

20. 사건명 : 민중당 정선군 지구당 결성

발생일 : 1990.10.28

관련 일지 :

배경 :

내용 :

삼탄내에서 민주노조 결성하는 일이 자본과 정권에 의해서 벽에 부딪치고 또한 노동현장의 제반 문제점을 정치운동과 함께 해결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일어나면서 정선군내에서도 민중정당을 결성하자는 의견이 생겨났다. 당시 전국적으로 민중정당 조직에 대한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정선군내에서도 삼탄의 1,2차 파업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정운환등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고, 이들은 민중정당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강좌를 여는 등 활동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으며 1990.10.28 약 100여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마침내 정선군 지구당을 창당하였다. 이

들은 창당 선언문에서 민중이 정치의 중심임을 천명하면서 민중들이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의 중심에 노동자등 기층 민중이 중심인 정당이라고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방해공작과 탄압도 강화되었는데 이는 정선군 지구당 창당 당일 저녁 지구당 사무실을 지역내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온 정치가 이제 노동자등 기층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함을 공공연하게 표방하며 등장한 민중당은 지역내 주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이후 치러진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중당 후보인 성희직씨가 강원도의회에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관계 인물 : 정운환, 김창완, 성희직

관계 단체 : 민중당 태백시지구당

관계 자료 :

성명서: 10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강경대군을 살해한 포력적 노태우정권에 분노하며

관련 사건 :

21. 사건명 : 광부수입반대운동

발생일 : 1991.2

관련 일지 :

광원수입문제 일지(91.2.- 91.12.)

2.25 최병열 노동부장관 태백시에서 광산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원수입을 긍정검토하겠다고 발언

2.28 광산노동자협의회 ,민중당정선군지구당,민중당태백시창당준비위원회 성명 발표

성명서 - 광부생존 위협하는 광원수입정책 철회하라 !

2.28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성명서 발표

-“정부는 외국인 광부 국내유입을 즉각 철회하라 ! ”

3.4 한국노총강원도본부 태백시 노조협의회 성명 발표

성명서 - 광원 해외인력 수입을 반대한다.

- 3.8 광원수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광산노동자협의회 외7개 단체)
“성명서 - 광원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3.11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발표
“성명서 -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원수입계획 철폐하라!”
- 3.19 경제장관 간담회 - 해외 단순노동력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광원의 수입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
(광원수입 등 석탄산업 인력대책을 동자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
- 3.22 전국광산노조연맹 광원수입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한을
국무총리실,동자부,노동부,법무부,국회노동위,국회동자위에 발송
- 4.29 동력자원부 - 중국교민 국내 탄광에 시범 취업시키는 방안 발표(한겨레 4.30)
- 5.17 민중당 태백시 지구당 주최
“광산현실과 광부수입정책에 대한 공청회”
- 5.18 동자부 관계자 광원 병역특혜확대검토 발언 (세계일보 5.19)
광산인력확보 일환으로 자격증 없이도 보충역 혜택을 주고 의무종사기간도
5 년에서 3 년으로 축소 검토
- 5.18 광산노동자협의회 등 태백지역 민주단체 장성석공노조 앞에서
“살인 정권 퇴진 및 광원수입 저지를 위한 태백시민 결의대회” 개최
- 6.7 대한 석탄공사 김종호 사장 진념 동자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인력 도입을 건의 (강원일보 6.9)
- 9.26 국회 동력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호 대한석공사장 답변을 통해
광원수입 않겠다고 답변
- 10.2 최병열 노동부장관 중앙대국제경영대학원에서 산업인력 수급대책에 관한
특별
강연 - “사양산업인 광업의 경우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
고 일정기간 근무후 귀국을 전제로 한다면 외국인 광원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10.17 노태우 대통령 중소기업인 60여명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외국인 취업허용 대폭 확대 방침발표
- 11.3 민중당 성희직 강원도의회 의원 정선군 지구당 사무실에서 광원수입반대와
진규폐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돌입, 12일까지 계속
- 11.27 강원도의회 성희직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11 명
‘ 광부수입반대를 위한 결의안 ’ 도의회에 제출
- 12.18 광원수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태백시, 정선군에서 광원수입 반대서명운

동

12.28 강원도의회 ‘외국인 노동자 (광부)수입반대에 관한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배경 :

내용 :

관계 인물 : 배진, 원기준, 신성식, 장형만

관계 단체 :

광원수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1991.2.25 최병열 노동부장관이 태백지역 노사간담회에서 밝힌 “광원수입계획”은 광산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 사회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석합정책으로 이미 광산노동자의 생존과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광원수입이 현실화된다면 광산노동자의 생활과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화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열악해지는 노동현실로부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악화되어 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 지역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그동안 광산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지역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제 단체들이 모여 “광원수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게 되었다. 「광원수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관계 자료 :

「광원수입에 관한 뉴스 건」, 광원수입저지공동대책위원회, 1991.3.22, 문서번호,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원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광원수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91.3.8, 문서번호, 광산지역사회연구소

「탄전주민 자존심 꺾지 말아야」, 『영동타임즈』, 1991.3.11

「광원유입반대」, 『강원일보』, 1991.3.20

「산재사망자 급증」, 『강원일보』, 1990.11.25

「탄광 공상자 급증 업체 경영난 가중」, 『강원일보』, 1990.4.13

「광원재해 13%」, 『강원일보』, 1991.2.16

「전 산업근로자 중 최저 수준」, 『강원일보』, 1990.12.15

「석탄기업 탈출을 막아라」, 『강원일보』, 1991.1.21

「낮은 광원 임금이 인력난 가중 원인」, 『강원일보』, 1990.6.19

「해외단순인력 수입 원칙적 불허」, 『한겨레』, 1991.3.20

「해외 인력 수입 불허」, 『중앙일보』, 1991.3.20

「해외인력 수입 긍정검토 필요」, 『매일경제』, 1991.3.24

「해외인력유입허용 서비스업 여신규제」, 『강원일보』, 1991.3.24
 「해외인력 '수입'과 노동계의 반발」, 『한겨레』, 1991.3.1
 「광원수입 철회 촉구」, 『강원일보』, 1991.3.3
 「광원인력수입 논란」, 『강원일보』, 1991.3.11
 「이직광원, 재취업률 33% 불과」, 『강원일보』, 1991.3.19
 「광부유입이 능사 아니다」, 『강원일보』, 1991.3.7
 「외국인광원 취업 허용」, 『국민일보』, 1991.2.27
 「광원 수입 추진」, 『동아일보』, 1991.2.26
 「외국인근로자 도입방안」, 『중앙일보』, 1991.2.27
 「석탄업계 심한 인력난」, 『한국일보』, 1990.10.29
 「퇴직광원 재취업률 34.5%」, 『강원일보』, 1991.1.26
 「산재 사망자 급증」, 『강원일보』, 1990.11.25
 「탄광업계최악 인력난」, 『강원일보』, 1991.1.25
 「노동력개방의 첫 신호탄」, 『조선일보』, 1991.2.27(22)
 「외국서 인력 들어온다」, 『조선일보』, 1991.2.27
 「광원수입검토」, 『한겨레』, 1991.2.27
 「외국 광원수입 득보다 실이 많다」, 『중앙일보』, 1991.2.27
 「광부 유입 긍정 검토」, 『조선일보』, 1991.3.20
 「사설-인력수입, 근본해결 안돼」, 『조선일보』, 1991.3.21
 「사설-광원유입에 문제 많다-탄광인력은 처우개선이 해결책」, 『강원일보』, 1991.3.2

2

관련 사건 :

조선일보기사

「노동력 개방」의 첫 신호탄 - 해외 「광원수입」 추진 배경
(조선일보 1991-02-27 22면 2016자 사회)

건설-섬유업체 등 값싼 인력 눈독/“내국인 실업증가” 반대주장 강해/상공부 은근히 기대, 법무부선 “시기상조” 「부족한 광원의 해외수입 검토」라는 최병렬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인력수급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 가운데 하나가 뒤바뀌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해외광원수입은 규모가 크건 작건, 시기가 언제부터가 되건 일단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다. 탄광업 뿐 아니라 건설 섬유 고무 전자 신발 등 인력이 달리는 제조업계에서는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값싼 해외노동력의 수입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섬유의 경우 평균 15%,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10% 등 다른 분야의 인력부족 역시 탄광 못지 않게 심각한 게 지금의 실정이다.

업계를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는 드러내 놓고 인력수입을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말로 아우성치는 기업들을 달래 왔고, 탄광업계를 관장하는 동자부는 심지어 『여성인력 활용을 연구하겠다』는 「묘안」까지 내놓아야 할만큼 인력수급에 부심해 왔다.

최 장관의 발언이 노동부의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사정이 이러한 탓에 해외광원수입방침은 일파만파의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체 인력난이 사회문제화하면서 해외인력수입은 여러 차례 찬반공론에 휩싸여 왔다.

찬성론의 근거는 물론 발등의 불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인건비의 고하가 곧 산업의 사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87.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제조업 근로자 임금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경영 사양화 돼 버릴지 모른다는 주장도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또 가급적이면 값싼 노동력을 쓰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고, 어차피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상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현실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임기응변식의 해외인력수입은 중장기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반대론이 이 같은 찬성론보다는 우세한 입장을 지켜온 것이 사실이었고, 이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인력정책기조였다. 특히 인력정책과 출입국관리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노동부는 그 동안 해외인력수입으로 급한 불을 끄려 했다가 나중에는 훨씬 큰 사회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서독의 예를 들며 「수입불가」를 견지해 왔다. 50년대 후반 고도성장기를 맞은 서독은 광원 등 부족한 노동력을 대거 수입하기 시작, 70년대 초에는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외국근로자가 차지했다. 그러나 몇 차례 오일쇼크와 경제침체 이후 서독정부는 막대한 귀국장려금을 지출하면서 이들을 되돌려 보내는 데 애를 써야 했고, 현지 서독

인과 외국근로자들의 빈부격차 갈등을 비롯한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겪어야 했다. 정부뿐 아니라 노동경제학자들도 거의 예외없이 인력문제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기계화와 인력양성투자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부족인력을 충당했다가 장차 인력수급구조가 안정될 경우 임금이 비싼 국내근로자들이 대거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성급한 인력수입방침이 요즘 가까스로 고조되기 시작한 기업들의 생산 자동화 투자 등 도약의지를 꺾어버릴 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들은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원도 태백 광산사업주들이 인력부족이 너무 심각하다고 호소하자 『그렇다면 일단 해외광원 수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는 정부가 인력정책 기초의 전환을 실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회여론을 탐지하기 위해 띄워보는 「애드벌룬」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해외인력 수입문제는 몇 사람의 정책담당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밀고 나갈 일은 결코 아니며, 우리 경제의 앞날을 감안, 충분한 여과를 거친 뒤 정해져야만 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형기 기자>

성명서

정부는 외국인 광부 국내 유입을 즉각 철회하라 !

당연맹은 지난 26 노동부 장관이 국내에 부족한 광부의 증원을 위해 외국인 광원수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 이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며 부존자원개발과 산업발전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광원의 권익을 외면한 반 노동자적처사로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지금 국내산업현장은 부분적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인력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외국 광원의 수입을 거론하는 것은 국내노동자를 보호할 노동부의 책임을 회피한 편의주의적 행정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체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외국광원수입을 발표한 것은 지하 막장에서 국내산업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광산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로서 당 연맹은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의 외국광부 국내유입은 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여 외국노동자 유입을 철회하고 광원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정부는 광원부족 현상의 주원인인 노동강도가 심한 지하육체노동의 근로조건 개선과 저임금을 해소하여 광산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1.외국노동력의 수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실업문제와 각종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부정적인 면이 더 크므로 정부는 노동시장개방을 즉각 철회하라.

1.정부에서는 국민소득 5천불 시대라 하나 빈부격차가 심하여 생계수단이 어려운 절대 빈곤층인 극빈자수가 전체 인구의 7.7 %라는 놀라운 사실과 이들의 실업률에 비추어서도 노동력 수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1.정부는 인종이 다른 노동자와 작업케하여 임금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마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아픔이 따른다면 이는 과거의 산업경제발전의 주역인 광산노동자의 권익을 외면한 반노동자적인 처사로서 노동력수입은 기필코 철회되어야 한다.

1.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외면한 채 외국광부유입을 강행할 경우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은 전조직력을 동원하여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1991.2.28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동철

성명서

광원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2 월 25 일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태백지역 노.사.정 간담회에서 밝힌 광원수입계획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기업주의 입장만 대변하는 반노동자적 발상으로 광원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광산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전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공대위는 광산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확보를 위하여 광원수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

-광원수입은 기업주의 이윤확대만 보장해 주겠다는 반노동자적 발상이다.

광산업계의 심각한 인력부족사태는 6 공화국 들어 시행되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과 광산의 열악한 노동현실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생존권보장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값싼 해외인력수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기업주의 이윤만 보장해 주겠다는 현정권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 광원수입은 광산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광원수입이 이루어지면 기업주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으로 기존의 광산노동자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는 더욱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며 광산을 떠나는 길밖에 없게된다. 이는 석합정책으로 이미 3 만 여명의 노동자가 생

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금, 광산노동자를 생존권박탈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 광원수입은 지역경제의 피폐화와 심각한 문화적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다.

석합정책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가고 있는 지금 광원수입은 지역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킬 것이다. 또한 해외인력수입은 단순히 사람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함께 유입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문화적 갈등은 그 어떠한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원수입은 지금까지 규제되어왔던 해외인력수입금지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국내 노동계에 전반적인 저임금 구조를 형성하여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를 봉쇄하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간의 경쟁,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저의가 숨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광원수입계획의 전면 철회를 현정권에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광산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확보를 위해 제민주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1 . 3 . 8

광원수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광산노동자협의회. 광산지역산업재해문제연구회.민중당정선군지구당

민중당태백시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성원회기념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선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태백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 광산춘선교위원회 (이상 가나다 순)

성명서

- 광원 해외 인력 수입을 반대한다 -

최근 광원 해외 인력 수입 검토라는 최병렬 노동부 장관의 의견이 게재된 신문 기사들을 보고 태백 등 광산지역 노동자와 가족들은 심한 당혹감에 빠져 있다. 과연 최병렬 노동부 장관이나 정부가 광산지역의 노동자 문제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고 성의있게 고민하면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분명 2 월 25 일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태백지역 노.사.정 간담회에서 외국인 광부 수입문제는 조금도 진지하게 토론되지 않았었다. 한 사업주가 거론을 하긴 했으나 답변에서 장관자신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인력수가 절대적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 등으로 대거 물리는 등 노동인력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축하기에 노동조합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간 최병렬 장관이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제시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태백시 노조 협의회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탄광의 노동력이 부족한 원인은 90 년 재해율이 8.79 %로 제조업 1.87 %의 4.7 배나 되는 높은 재해율과 5 배에 이르는 높은 노동강도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평균임금은 전 산업의 92 % 수준밖에 못 미치는 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정부가 재직 광원들이 떠나고 외지의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재의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정책의 검토없이 해외인력을 수입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정부의 노동인력 정책의 잘못을 광산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서독 등 외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단견적인 발상으로 태백시 노조협의회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전국의 광산노동자와 더불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이와 같이 현재의 열악한 작업환경의 유지 및 악화를 획책하는 반노동자적 발상이자 그나마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침몰해가고 있는 태백 등 광산 지역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충격적인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광산지역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1991.3.4

한 국 노 총 강 원 도 본 부 태 백 시 노 조 협 의 회

결의문

광주민주항쟁 11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 가신 광주민주 열령들과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그 고귀한 뜻을 받들고자 “살인정권 퇴진 및 광원수입 저지를 위한 태백시민 결의대회”로 모였다.

광주 영령들의 한이 아직도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 지금도 이 땅은 현 노태우 정권에 의한 쇠파이프 학살 만행이 자행되고, 꽃다운 젊은 넋들이 줄을 이어 분신투신으로 폭정에 항거하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독재정권 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의 추악한 본질은 우리 태백 시민에게도 분명해졌다.

태백 시민 앞에서도 공약한 약속마저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당선되자마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수많은 광산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태백시를 희망 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더구나 이제는 열악한 광산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인한 광산의 인력난을 해결한다고 해외에서 광원을 수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광원수입은 그나마 침체되어 있는 태백을 망쳐버릴 것이다.

민주를 사랑하는 우리 태백 시민은 노태우 정권이 더 이상 우리의 정부일 수 없음을 선언하며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 폭력정권 살인정권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
2. 백주대로 살인만행 백골단을 해체하라.
3. 태백시민 다 죽이는 광원수입 철회하라.
4. 광산 노동 운동 탄압 중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1991. 5. 18.

살인정권 퇴진 및 광원수입 저지를 위한
태백 시민 거의 대회 참석자 일동

외국인 노동자(광부) 수입 반대를 위한 결의안

제안일자 : 1991.11 월 19

제안자 : 성희직 의원 외 10명

1.주문

지난 2.25 최병렬 노동부 장관이 태백지역 방문시 외국광부 수입문제를 거론한 이후, 김동철 전국광산노조연맹위원장과 광산지역의 민주단체와 대다수 광산노동자들이 이를 맹렬히 비난하고 정선, 태백출신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문제삼자 잠시 주춤하던 이 문제가 9 월 30 일 최장관이 또다시 광부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88 년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 가뜩이나 위축되어 가는 탄광지역 주민들과 상인, 노동자들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

지역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광부수입은 지역 경제의 침체, 노동조건악화, 교육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우려하여 87 % 이상이 반대하였으며, 지역인구마저 최근 4.동안 30 % 이상이 감소하였는데 이제 외국 광부수입마저 허용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 뻔해 태백, 정선, 삼척등 광산지역은 지역의 존립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은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현재 탄광의 인력부족 문제는 외국노동자 수입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광산노동자들의 작업환경개선, 처우개선이 우선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아울러 광산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히 약속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수십년 동안 지하 막장에서 피땀 흘리며 몇 차례 석유파동 등 국가적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선량한 광산노동자들과 광산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보호를 위해 우리 강원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강원도의회는 국가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확고한 의지표명을 촉구한다.
- 2.강원도의회는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임기응변식의 발상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당국의 외국 광부수입 계획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천명한다.
- 3.강원도의회는 사양산업으로 점점 낙후되어 가는 석탄산업의 발전과 광산노동자와 지

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제안이유

- 광부수입의 문제점

- 1) 이는 91 년 10 월 정선지역 여론조사에서 78 % 반대 , 찬성 4.5 % 나머지 모르겠다고 응답. 태백지역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87 % 가 나왔고, 또한 지역경제 침체, 노동조건 악화, 교육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등 대다수 주민들이 광부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 2) 광산지역은 서울등 대도시와 달리 ‘동네’라는 이웃개념의 형태로 형성된 곳인데, 수백 수천의 외국노동자와 한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갈 때 상반된 문화가 아무런 여과 없이 주입되어 가뜩이나 심각한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3)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노동자를 선호한 사용자들이 우리나라 광부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하며 ,이직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 오히려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 4) 국내노동자 가족 4-5 명이 떠나고 외국노동자 1 명이 들어오는 산술적 숫자 이상으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외엔 소비하지 않고, 나머지 임금은 본국으로 송금할 것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파탄을 불러일으켜 집값, 가게세 등의 폭락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 5) 외국노동자 상대의 술집, 유흥가가 생겨나 호기심과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을 자극하여 청소년 교육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 발생이 염려된다.
- 6)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광산지역은 오도가도 못하는 늪고 병든 무능력자들만 남게 되어 지역발전을 더욱 퇴보시킬 것이며, 외국광부 수입정책이 시행 1-2. 후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실패로 끝났을 때 ,다시 국내 노동자들로 인력확보를 하려면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다.

성 명 서

- 광원수입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광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누구보다도 염려하며 광산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열망해온 우리들은 지난 1.동안 광산지역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해외 광원수입문제가 해를 넘기는 이 시점까지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모아 성명을 발표한다.

1.우리는 광산노동인력의 부족을 해외광원수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당국의 계획을 적극 반대한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는 광산지역을 결정적으로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생

각한다. 정부는 광원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현재 광산노동인력의 부족은 그 동안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극도로 억제하고 최악의 광산노동조건을 그대로 방치한 정부당국과 광산업주들의 책임이다. 광산 인력난의 해결을 위해 광산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3.우리는 현재 강원도 도의회에 제출된 광원수입반대결의안이 태백, 정선 주민 대다수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보고 이를 적극 지지하며 강원도 도의회가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4.우리는 광원수입계획의 철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광원수입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다.

1991.12.26

종 교 계 : 신성식목사. 김유신목사. 윤창현목사. 최준만목사.
이상진목사. 유재무목사. 임학수목사. 김성진목사.
라찬훈목사. 박대원목사. 김한기신부.(사북천주교회)
차흥도목사 (전국 농촌목회자협의회 동부연회 회장)
박두범전도사(// 정선 지방회장)

언 론 계 : 원응호 (태백신문 편집부장)

교육문화계 : 황재형 (화가) 전인호 (전국교직원노조 태백시 지회 사무장)
정연심 (전국교직원노조 태백시 지회) 이석필 (사진작가)
이청리 (시인) 김유순 (전국교직원노조 정선군 지회장)
김진균 (전국교직원노조 정선군 지회)

정 당 : 배 진 (민중당 태백시지구당 위원장)
정운환 (민중당 정선군 지구당 위원장)
성희직 (민중당 강원도 의회 의원)

사회 단체 : 조용일 (성완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원기준 (광산지역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백형근 (태백민주시민회 부회장)

노동계 : 장형만 (광산노동자협의회 의장)
이희대 (정선군 택시연합노조 위원장)

광산지역사회연구소 발행 <자료집92-1 탄광인력난과 광부수입문제> 발간사

탄광인력난과 석탄정책

원기준 (광산지역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해마다 수많은 탄광이 폐광되고 수많은 광산노동자들이 실직되는 다른 한편에서 탄광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져 가는 기현상이 바로 오늘의 태백탄전지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탄광의 인력난은 석탄정책의 실패가 빚은 필연적 결과이다. 인력이 남아돌면서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책의 잘못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탄광 인력난을 이유로 해외에서 광부를 수입하겠다고 한 것은 정책실패의 피해를 광산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지난 한해동안 광산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원수입문제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과 민주단체들의 광부수입반대운동에 이어 강원도의회에서 광부수입반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든 듯하다.

올해 들어와서 광산지역의 가장 커다란 현안문제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석탄산업을 계속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태백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무엇으로 다시 살릴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 광산촌선교위원회(위원장 조우구목사)는 1991 년도에 태백탄전지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광부수입반대운동의 전과정을 정리할 필요를 공감하고 공동으로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광부수입반대운동은 석합정책으로 쇠퇴일로로 걷고 있는 태백지역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운동으로 귀중한 성과를 얻은 좋은 사례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정책을 바꿔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현재의 여러 가지 광산지역의 현안문제에 대처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근거가 되리라고 본다. 아울러 광부수입반대운동을 통해 드러난 광산노동의 열악한 현실과 낙후한 태백탄전지역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인 주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극복되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다수 있겠으나 정부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 그리고 학계, 지역민주단체의 입장 등 대표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앞으로도 분야별, 현안별로 자료집을 계속 발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1992 년 4 월

22. 사건명 : 91년 태백시민단체 시국농성

발생일 : 1991.5.10

관련 일지 :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단식농성 일지

* 5월 10일

12:40 결단식

사회 원기준(광산지역사회연구소)

식순

민중의례(묵념)

노래 - 임을 위한 행진곡

전국투쟁상황 경과보고 - 전인호 전교조태백지회 행진곡

결의사 단식농성돌입의 의미 - 신성식(태백지역인권위원회 위원장)

“강경대 살해한 노정권퇴진위해 단식에 돌입한다. 약한집단 체제 무너뜨리기 위해 모여서 단식, 농성에 돌입 힘 합쳐서 이 자리를 지켜내자. 이지역에 귀한 불씨가 된다.

시국 선언문 - 장현식(산재문제연구회 회장)낭독

일정제시 - 조용일(성완희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13:10 기자회견

취지설명

단식농성참가자소개 (사회: 원기준)

신성식-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위원장 (선린교회 담임목사)

조용일 - 성완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강순구 - 태백마당 대표

장현식 - 산업재해문제연구회 회장

전인호 - 전교조 강원도지부 태백지회

임중엽 - 민중당 태백시 지구당 조직부장

장형만 - 광산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원기준 - 광산지역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이재형 - 선린교회 전도사

14:00 단식농성 성명서 가두배포, 이기만 격려방문

14:30 단식농성 필요물품 제작 및 구입작업

총무 - 전인호 전교조사무장

조직 - 대외교섭(각 단체참여도) 원기준 광사연 소장

문화 - 자체 문화기획 강순구 태백마당 대표

재정 - 장현식 참가자분담, 성금함 설치

선전 - 장형만, 재작팀 조용일, 임중엽

15:20 도계 장봉철 격려전화

16:00 투쟁일정에 대한 논의

전국일정과 현재 진행상황파악

5월 18일 제 2차 국민대회 개최안

태백지역시국대책위원회(가칭)

대회기금마련방안

19:00 삼척 MBC TV 뉴스에 '단식농성'장 방영

19:25 민중당 태백지구당 사무국장외 13명 당직자, 당원격려 방문

구호 외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하며 약식집회개최

인사소개 -민중당원과 함께

20:40 정금교 경동 대의원 방문

* 5월 11일 단식 2일째

9:29 삼척탄좌 해고 광부시인 성희직씨 격려방문 “단식농성” 시 낭송

11:00 도계 장봉철 격려방문

14:00 유인물배포 황지, 장성, 철암, 통리, 도계등 7천부 배포

17:00 함백광업소 격려전화

20:20 40-50대 극우인물 항변협박전화(유인물 배포에 대한)

“국가를 망치려고 하느냐” “김일성이를 위해서 그러느냐”

“다 죽여버리겠다” “내일 아침4,50명이 각목들고 박살내러 가겠다는 등 협박전화

* 5월 12일 단식 3일째

9:30 강릉대생 2명 격려방문

9:40 30대 중반 남자로부터 협박성전화 “거기 전교조야. 알았어 이새끼들”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11:20 상동에서 노조 활동하는 사람, 격려전화, 집회계획 등 문의

11:30 도계 김진호씨 단식격려방문

12:00 민주연합회에 일하던 사람 도계에서 온 이조식(도계석공)에 격려전화

16:00 태백지역시국대책회의 개최

“노태우정권퇴진 및 광원수입저지를 위한”을 전반에 삽입

“노태우정권퇴진 및 광원수입저지를 위한 태백지역 시국대책회의”

참가단체 : 성완희 기념사업회, 태백마당, 전교조 태백지회, 민중당 태백시 지구당, 광산노동자 협의회, 광산지역사회문제연구소, 광산지역산재문제연구회.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태백민주시민회,

조직형태: 간단한 회의 소집과 회의주재하는 정도의 실무 1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

대표 : 배진(태백 민중당)

문화 - 강순구(마당), 선전- 장형만(노협), 조직 - 조용일(성기사), 대회협력 -전인호(전교조)

대책회의: 매일 아침 회의 개최 (13일 오후까지 참가단체확인여부)

대회준비물

PC - 5EA ×20,000 = 100,000

포스터 - 300장 ×20,000 = 50,000

전단 - 내용 =100,000 행사안내(5천장)= 50,000

예비비 = 100,000

합계 400,000

대회명칭 18일 장성 “노정권 퇴진 및 광원수입저지를 위한 태백시민 결의대회”

연사 - 전인호, 임중엽

주연사 - 김문수, 원기준, 신철영

사회 - 정문호의장

대회사 - 배진 위원장

시국선언문 낭송 - 정연심

준비물 : 엠프, 깃발, 피켓, 민장, 핸드마이크, 질서유지인(완장), 머리띠

24:00 태민회 백형근 사무국장외 4명 격려방문

18일 대회 참가키로 함. 대책회의 참가단체로 참가 통보

* 5월 13일 단식 4일째

10:44 대책회의 회의시작

전회의내용 약식보고

안건정리 : 분담금 납부, 스폰서담당자 대상선정, 실무자 동원인력(수요일)

보도자료내용(발송) - 단식해제, 시국대책회의 결성, 18일 결의대회 개최

선전물제작 - 전단, 리플렛, 포스터, 차량확보

11:05 도계에서 노동자 격려전화 “열심히 싸우라”

집회명칭 재조정 “살인정권퇴진 및 광원수입저지를 위한 태백시민 결의대회”

분담금 13일 오후 6시까지 완납

후원장 선정

박무봉 - 강순구, 황재형 - 강순구, 이상진 - 배진, 유재무 - 백형근, 한경석 - 원기준,

심영식 - 유태호, 권혁소 - 전인호, 원응호 - 배진, 조호성 - 배진, 이기만 -원기준

결의대회 준비 사무실은 태백PP로 한다.

모든 문의 사항은 태백PP로 한다,

12시를 기해 단식을 해제한다.

배경 :

내용 :

관계 인물 :

신성식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위원장)

조용일 (성완희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강순구 (태백마당 대표)

장현식 (산재문제연구회 회장)

전인호 (전교조 강원도지부 태백지회)

임중엽 (민중당 태백시지구당 조직부장)

장형만 (광산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원기준 (광산지역사회문제연구소 소장)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원기준 메모, 시국선언문

관련 사건 :

시국선언문

-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

이제 더 이상 노태우 정권은 우리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노태우 정권은 출범초기의 기만적인 민주화 조치마저 걷어치우고 온 국민을 적으로 몰아넣는 공안 통치를 통해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민중적 본질을 노골화하였으며 급기야 강경대 열사를 백주에 쇠파이프로 폭력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잇달아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가 분신투신하고 87.6월항쟁 이후 최대의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강경 대처만을 고집하고 있다.

태백 광산지역에서 민주운동, 민중운동에 온몸을 바쳐 투쟁해 온 우리들은 오늘 현 시국이 우리들의 단호한 투쟁을 요구하는 비상시국임을 자각하고 오늘부터 노태우 정권의 퇴진과 민자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노태우 정권의 기만적 정책인 석탄산업합리화정책과 광원수입정책 등으로 생존의 뿌리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태백지역의 주민들도 더 이상 노태우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전국민과 함께 노태우 정권의 퇴진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강경대 열사와 김영균, 천세용, 박창수, 김기설 열사의 죽음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열사들의 염원을 이어받아 오만과 강권으로 폭력살인을 서슴치 않는 국민의 적 노태우정권의 퇴진투쟁에 태백 애국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폭력살인 자행하는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
2. 독재의 지배도구 안기부, 기무사, 백골단을 해체하라!
3.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4. 광원수입계획 철회하고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991.5.10

신성식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위원장)
조용일 (성완희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강순구 (태백마당 대표)
장현식 (산재문제연구회 회장)
전인호 (전교조 강원도지부 태백지회)
임중엽 (민중당 태백시지구당 조직부장)
장형만 (광산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원기준 (광산지역사회문제연구소 소장)

23. 사건명 : 태백 민중당 결성, 지자체 선거 출마

발생일 : 1991년

관련 일지 :

배경 :

내용 :

관계 인물 : 배진, 임중엽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24. 사건명 : 민중당 후보 성희직 씨 강원도의원 당선

발생일 : 1991년

관련 일지 :

배경 :

내용 :

원래 성희직씨는 삼탄 파업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삼노개추활동은 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심지어 삼탄 파업시 일을 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다가 노동자들로 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삼노개추와 반대되는 조직인 “양심세력연합”을 만들어서 삼노개추의 과격함을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는 또한 민중당에도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성희직씨의 이런 순진한 마음도 회사측에는 가시처럼 여겨졌고 결국 삼탄은 그를 해고하게 된다. 그는 해고 이후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 법적인 복직투쟁을 하고 회사 동료들에게 호소하는 등 하여 해고 한 달만에 복직을 이루어내게 된다. 성희직씨는 해고되고 복직을 이루면서 회사에 대한 순진했던 자신의 생각을 깨닫고 이후 더욱 깨어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삼탄내에서 순직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회사측의 조치와 보상이 형편없자 이에 격분하며 반발하다 성씨는 결국 다시 해고당하게 된다. 이후 성희직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함을 삼탄노동자들에게는 물론 정치권에도 알리기 시작하는데 당시 제1야당이었던 평민당사에서 삼탄의 부당함과 자신의 복직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단식농성을 하던 중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며 투쟁을 펼친다. 이는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그가 이후 강원도의회에 당선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민중당이 창당된 이후 1991.처음으로 지방자치제 선거가 실시되는데, 민중당 정선군 지구당에서는 당시 위원장이던 정운환이 강원도의회에 출마하려했으나 그가 구속된 전력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삼탄의 해고자로 많이 알려졌던 성희직씨를 당원으로 영입하여 출마시키게 된다. 당시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삼탄과 동원 등 탄광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중당 후보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선되게 된다.

관계 인물 : 성희직, 정운환,

관계 단체 : 민중당 정선군 지구당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25. 사건명 : 김낙중 간첩사건 연루 배진, 정운환 고문 사건

발생일 : 1992년 9월

관련 일지 :

배경 :

내용 :

민중당 정선군 위원장이었던 정운환이 14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기간동안 민중당 중앙당에서 매월 당시 50만원의 지원금을 보내주어 지구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다. 당시 1991년도에 치러진 강원도의원선거에서 민중당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인 성희직씨가 당선됨으로써 국회의원선거에도 총력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 시 당시 민중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김낙중씨가 정선지구당을 방문하여 정운환 위원장에게 백만원을 격려금으로 주었는데, 이후 김낙중씨가 간첩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됨으로써 김낙중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운환과 태백의 배진 등이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1992.9.선거에서 떨어진 후 신문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정운환은 안기부에 연행되어 8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결국 간첩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안기부는 그를 석방하게 된다. 당시 안기부는 김낙중 사건을 물론 황인오 간첩사건과도 정운환을 연결시키려고 하였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결국 석방하게 된다. 당시 안기부에서의 고문이 얼마나 심하고 강했는지 지금도 정운환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쭈시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민중당 태백시 위원장을 맡았던 배진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방광암에 걸려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관계 인물 :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26. 사건명 : 박영희 간첩사건 연루 호남향우회 연행 사건

발생일 : 1993년

관련 일지 :

사건 배경 : 90.초반 시를 쓰는 문인으로 사북지역에 내려와 거주한 박영희씨가 막장 체험을 통해 탄광 광부들의 삶과 애환을 시로 작업하기 시작함. oo 탄광 하청을 다니면서 막장생활을 하기도 했던 박씨는 92년부터 사북6리 도사곡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지역내 노동, 민주단체와 자주 만나기도 함. 통일문

제와 민중문제를 시로 담아내겠다고 하던 박씨는 92.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간첩사건으로 연행, 구속됨. 당시 정보기관과 언론은 '탄광촌 사북에서 암약하던 간첩'으로 왜곡, 확대 보도 하였음. 이 사건으로 당시 사북 고한과 태백지역에서 활동하던 민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조사를 받기도 하고 특히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동향 지인들이 수사를 받는 고초를 겪기도 함. 박씨의 월북은 일본에 있던 작은 아버지(조총련계)의 소개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씨는 이 사건으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0년간 투옥 후 현재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음.

내용 :

관계 인물 : 박영희

관계 단체 :

관계 자료 :

관련 사건 :

IV. 단체 항목 기초조사

1. 단체명 : 태백지역기독청년협의회

약칭 : 태기청

소속 단체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존속 기간 : 1977.3.10-

주요 활동 지역 : 태백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지도목사, 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협동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실행위원회: 광산선교위원회, 문화선교위원회, 여성위원회
기획위원회, 실행위원회로 구성.

기획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실행위원회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강령 : 기독청년들의 실천항목

1. 교단, 교파, 개교회의식을 버리고 에큐메니칼 신앙고백으로 무장합니다.
2. “주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면서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믿음을 행동화”합니다.
3. 태·기·청이 주최하는 “부활절청년연합예배”와 10.“청년 예수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결성 과정

1977.3.6 장성중앙교회에서 신종선, 강창성, 정영희 집사 주도로 각 교회 회장단과 대표자가 모여 회칙작성 및 결성예배와 창립총회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함.

1977.3.10 장성중앙교회에서 16개 교회 137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박원태씨(철암교회)가 회장에 피선

태기청은 각 교회 청년회로 조직함. 각 교회는 철암, 장성, 황지 지역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감리교, 장로교로 함.(이단은 제외)

주요 활동 :

1983~ 85 KBS 시청료거부운동 주도 (전국 최고 시청료거부율 달성)

1987.05.25 광산노동자 최저 생계비 보장하라 성명서 발의

1987.06.09 상임총무 유태호가 6.10대회 안내 전단 배포 중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 후 석방

1987.06.21 함태중학교에서 열린 태백지역 장로교 청년연합회 체육대회가 끝난후 함께 참여한 청년 회원 70여명이 “ 장기집권 획책하는 4.13조치 철회하라”라는 플랭카드를 앞세워 2시간 30분 가량 가두시위를 하였으며 태백선린교회에 도착해 토론회를 가진 다음 해산.

1987.06.24 류태호 상임총무가 광업소에서 갑방 작업을 마치고 퇴근할때 형사 2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6월 21일 시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석방

1987.06.26 민주헌법 쟁취 강원도민운동본부 태백지부에서 개최한 평화대행진 참여

1988.07.21 고 성완희 노동열사 민주 국민장 참가,

고 성완희 노동열사 분신에 대한 성명서발표

1989.1.26-2.2 광산문화 대잔치

1989.3.10 제 13차 정기총회

회장 최동국 부회장 이유원 상임총무 류태호 서기 강은영 회계 신덕진

1989.08.01 선교자유 수호대회 참가

기독교, 노동운동단체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시위 및 태백경찰서 앞 농성

1989.09.22 제5차 임원회 개최 (태백인권위 사무실)

상반기 사업보고, 윤광기 전 회장의 구속과 선교 자유 탄압에 대한 대처, 하반기 활동 방향과 사업계획

1989.10.06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장성병원교회) - 89.청년예수제 계획 및 확정건

1989.11.11 청년 예수제 개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교회’ (황지교회 교육관)

1부 한완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강연, 2부 대동놀이(태백마당)

11.11 국가보안법 철폐 및 윤광기 전회장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개최와 모금활동

1989.12.03 광산지역 놀이한마당 참가

주요 활동가 : 배진, 최연진, 김흥대, 권오규, 김경해, 류태호, 정상규, 은경수, 강은영, 차장훈, 한명시, 심재도, 강태순, 최동국,이유원, 박정서, 신덕진, 이정희

관련 단체 : 황지교회, 장성중앙교회, 태백선린교회, 철암교회, 계산동교회
장성감리교회,

관련 자료 :

제 1권 제 16호 「광부 예수」 (1987.8)

제 2권 제 35호 「광부 예수」 (1989.3.10)

성명서 「선교활동에 대한 모든 폭력적 탄압을 중단하라」 (1989.7.24)

성명서 「교원노조 태백지회 탄압을 규탄하는 태백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태백지역 기독청년 협의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태백지역 기독청년협의회라 칭한다.

제 2조(위치) 본회 위치는 태백시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이심을 믿고 예수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다양성 속의 하나가 되기 위한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며 청년 예수상을 닮은 참 기독청년의 힘을 모아 창조적인 청년상을 형성한다.

제 2장 조직 및 회원

제 4조(조직) 본회는 태백지역내에 있는 각 교회 청년회로 조직한다(단, 이단은 제외한다.)

제 5조(회원) 본회 회원은 각 교회 청년으로 하며 본 회칙을 준수하고 집회에 적극 출석하며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6조(총대) 본회의 총대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으며 총대수는 기획위원회에서 매년 조정한다.

제 3장 구성

제 7조(구성) 기획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구성한다.

제 4장 임원

제 8조(임원) 실행위원회 다음과 같다.(회장1명, 부회장 1명, 총무1명, 서기1명, 회계1명)

제 9조(임원) 기획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총무1명, 서기1명)

제 10조(실행위원회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각 회의에 의장이 되어 회무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사업계획 전반을 실행한다.
- 4) 서기: 본회 각종 문서 사무일체를 보관정리하고 각종회의의 기록유지를 담당한다.
- 5) 회계: 본회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11조 (기획위원회) 본회는 각 교회의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모든 행사를 기획 구성한다.

1) 임원의 직무는 실행위원회의 임원과 같다.

제 12조 (감사) 본회의 사무 및 회계감사를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제 5장 회의 및 선거

제 13조 (회의)

1) 총회: 각 교회 총대로 구성하고 최대의결 기구로써 사업보고, 결산보고, 임원개선,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며 매년 1월중으로 하되 총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공고한

다.

2) 기획위원회: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임원 및 각 교회 회장단과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실행위원회는 기획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실행위원회: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14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실행위원회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 한다,.

2) 기획위원회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보선) 임원의 보선을 기획위원회에서 한다.

제 6조 본 회의 임무

제 16조(사업계획) 본 회의는 매회기별로 사업계획을 실행위원회에서 작성하며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실행한다.

제 17조 (사업실행) 본 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 7장 재정

제 18조 (예산편성) 본 회의 예산편성은 실행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확정한다.

제 19조 (수입예산) 본 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상회비로 하고 사업금, 찬조금, 헌신금, 기타금으로 정한다.

제 20조 (예산집행) 본 회의 예산은 실행위원회 결의와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 21조 (상회비) 각 교회에서 본 회를 위한 회비를 말하며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 일로부터 익년 총회 전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부칙

제 23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 2/3이상일 때 개정한다.

제 24조 (회칙보안) 본 회의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규례에 따른다.

제 25조 본 회의는 태백시 기독교 교회협의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26조 (효력발생) 본 회의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977. 3. 10 재정

2) 1978. 3. 10 일부수정

3) 1979. 3. 10 일부수정

4) 1980. 3. 10 일부수정

5) 1981. 3. 10 일부수정

6) 1982. 3. 10 일부수정

7) 1983. 3. 10 일부수정

8) 1984. 3. 10 일부수정

9) 1986. 3. 10 대폭 수정

10) 1988. 3. 10 일부수정

11) 1991. 12. 28 대폭 수정안 제출

광산지역 어용노조의 실태와 극복의 길

광산지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노동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해왔다.

80.사북 노동자 총파업이후 오늘날까지 10여 차례의 격렬한 파업농성이 계속되어왔다. 이들 파업은 비조직적이고 경제적 요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력으로는 저지할 수 없는 격렬성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이들 투쟁의 지도부여할 노동조합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싸움에도 앞선 적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투쟁이 바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다. 광산지역 노조의 실태는 어떠하며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1. 노동조합의 실태

광산에는 현재 79개 노조가 결성되어 거의 모든 노동자가 이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노조들은 형식적으로만 노동자의 대표일 뿐 실제로는 소수 노동귀족들에 의해 장악되어 마치 기업주가 자식에 기업을 세습하듯 장기집권 되거나 노동귀족들 사이에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노조들은 공장지역 노조와 또 다르게 초기 광산 개발시 강제 동원돼 개척단을 감독하기 위해 고용된 깡패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이후로도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지연, 학연 등의 바탕으로 사조직화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원장 선거는 조합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대의원간의 파벌에 의해 이루어지고, 후보들은 대의원을 매수하기 위해 때로는 수천만원씩을 뿌려댄다.

최근의 예로 87.경북 대성탄광 선거의 경우 위원장 후보자들은 대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서로 대의원을 많이 데려가기 위해 수백 명의 깡패들을 동원, 갓 당선된 대의원 한 명을 놓고 양팔을 잡아당기고 자기들끼리 주먹다툼까지 벌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대의원,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깡패들에게 2백만원씩을 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호텔이나 고급술집까지 끌고 가 이루 말로 다릴 수 없는 온갖 향락을 제고, 대의원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큰 탄광의 경우 연간 수익에 이르는 조합비를 위원장으로 비롯해서 집행부가 멋대로 유용하기에 그토록 많이 든 선거비용을 뱉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 노조들의 노조비 운영을 보면 절반가량은 위원장이 맘대로 쓰는 판공비, 자가용 운영비 따위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소위 대의원회의비, 노사협의비용, 경찰이나 노동부 관계자와의 교재비등으로 쓰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작 1년에 한번 주는 수건이나 냄비뿐으로 진정노조의 임무인 투쟁에 드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2. 기업주와 어용노조

그러나 이런 노조문제는 단순히 노조집행부들의 사리사욕 때문으로만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이다. 노조의 어용성은 바로 회사의 이익이요, 기업주들이야말로 노조가 부패하는 것을 돕거나 실질적으로 이를 지휘하는 주범인 것이다. 기업주들은 노조선거에서 자기

편 후보를 위해 엄청난 돈과 인적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위원장 후보들이 쓰는 수 천 만원은 노동자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액이며, 대의원 납치극에는 언제나 회사와 경찰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나설 경우 회사측은 해고나 징계로 이를 탄압, 자기편이 당선되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진정으로 노동자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대의원단에 의한 간선제는 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79년도 동원노조 선거를 보면, 노동자였던 이원갑후보의 경우, 노동자 3천 명중 2천 5백명이 지지서명을 했음에도 대의원단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때 회사측은 이원갑씨 지지대의원 3명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갑자기 해고시킴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 정부권력과 어용노조

또한 정부권력은 어용노조의 중요한 후견자이다. 노동부, 경찰, 군보안대 등은 진정한 노동조합의 건설을 어떻게든 틀어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왔다. 기업측에서 투쟁적 노동자들 해고시키면 노동부는 즉각 이를 도와 해고무효소송에서 노동자를 패배시킨다.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고 투쟁하면 경찰이 등장 연행하거나 구속시킨다. 군보안대 등은 국가안전이란 이유로 이러한 노동자들을 끌고 가 온갖 고문을 가해 뜻을 흔들어 놓고 사기를 저하시켜 놓는다. 사회안정은 결국 기업주들의 안정인 셈이다.

실제로 86.1.고한 성동탄광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성동은 동원탄좌 하청으로 노조도 동원노조에 소속되어 대의원만 뽑게 되어 있었는데 노동자들은 대표측인 어용노조인 동원탄좌노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래서 1월에 60여명이 모여 단위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러자 강원도청은 현행법상 분명 합법적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동원탄좌와 협의하라며 신고서류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노조총무 구성모씨등이 신민당 등에 찾아가 호소하자 경찰, 군보안대, 안기부요원들이 즉각 이들을 연행, 온갖 폭력과 위협으로 이들을 빨갱이라고 매도하며, 노조포기각서를 쓰게 만들었다. 그리고 회사는 곧바로 구씨등 2명을 별 이유도 없이 해고시켰다. 노동부는 구씨 등이 해고무효소송을 내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이토록 정부권력과 기업주와 어용노조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4. 극복의 길

이러한 어용노조를 진정한 노동자노조로 만들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노동자들 자신에 의한 단결된 투쟁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파업들이 회사와 경찰의 위협을 물리치고 어용노조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민주화에는 모두 실패해 왔다.

왜냐하면 어용노조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몰아내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 되어있지 않아서 파업이후에 경찰과 회사에 단합해서 다시 회사측 인물들을 당선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의 민주화는 이를 추진할 강력할 조

직의 지도부가 있을 때라야만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친목회건 투쟁회건 어떤 형태이든 노동자들은 기존의 어용노조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조직적 기반 위에 노조를 기업주로부터 되찾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설사, 이런 조직이 없더라도 파업 등 전 노동자가 모인 자리에서 반드시 새로운 노조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약속해보자.

노조 민주화의 방법에는

첫째, 기존노조체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노조 민주화를 위한 조직의 지도하에 대의원 또는 위원장 선거시 진정한 노동자 대표를 당선 끊임없는 탄압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사 몇 사람을 제대로 뽑더라도 어용노조 전체에 비해 힘이 약해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역시 기존노조의 규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이다.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총회를 열 수 있으므로 파업농성시나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어용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새 집행부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광산의 많은 파업은 바로 이런 기회를 놓쳐 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의노조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기존노조를 무시하고 기존노조에서 모두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 행정관청은 이를 인정치 않을게 분명하기 때문에 합법노조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조의 틀만 갖추면 법의 노조로서 합법노조와 다름없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는 기업주나 정부가 만들어 주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노동자의 조직인 것이다. 이상의 방법들은 물론 노동자들의 강고한 단결력과 이를 결집한 조직이 있을 때라야만 가능하다. 노동자 편은 대의원출마도 못하도록 해고시키는 게 기업주들이고, 전단 한 장 뿌려도 연행하는 게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압은 오직 강고한 단결력으로 즉각 농성이나 파업으로 맞서 나갈 때라야만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탄압 자체를 주저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활동영역은 넓어지게 될 것이다. (제 16호 광부 예수 1987.8월호)

태기청 제 11차 정기총회 선언문

- 민중과 함께 하는 고난의 종 기독교청년 자! 때가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막 14:42-42)

1987.3.10 상장중앙교회에서 제 11차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총회로 모인 우리기독교청년은 로마의 폭압적 식민통치와 소수 모리배들에 의해 억압당하던 갈릴리 민중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민중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난무하는 이 땅의 갈릴리에서 민중과 고난을 함께 하셔서 싸우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나약함과 안일을 깨치고 일어나 순교의 결단을 내릴 때가 왔음을 신앙고백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민족자존의 확보를 위해 선한 싸움에 매진할 것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의 시대를 살아 온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과 강대국들의 핵전쟁에 휘말려 절대절명 위기의 시대에 처해 있다. 거기에다가 최근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압력과 집권당과 야당의 타협을 협조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간섭까지 하고 있음을 중시하며 이에 편승한 매판 독점자본들은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핵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과 정치적 주체성, 경제적 자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진정 이 땅에서 고문, 폭력 등 온갖 인권유린행위의 근절은 현군사독재정권의 퇴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바 현군사 독재정권은 부천서성고문사건, 광산노동자살해미수사건, 그리고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으로 치를 떨게 했던 박종철 고문살해사건과 형제복지원, 성지원사건 등의 폭력과 아울러 민주화 세력을 좌경용공세력으로 조작, 매도하면서 장기집권과 인간존엄성파괴에 혈안이 되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기독교청년은 군사독재정권을 퇴진시키고 참된 민주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하루 속히 이룩되도록 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언제나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확보를 위해 그들과 함께 불의의 세력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아벨의 피 외침을 듣고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외세의 경제침략과 군사독재의 경제정책에 희생의 재물이 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이자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의 입장에 올바르게 서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광산노동자들의 생존권확보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행해지는 인권유린행위들의 방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며 만근제도로 인해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광산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에 동참해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선한 세력들과 연대하여 민족자주와 민주화를 위해 모든 민중과 더불어 십자가 행진에 매진할 것이다.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그리고 간악한 군사독재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선한 세력들과 연대하여 민족자주와 민주화를 위해 모든 민중과

더불어 십자가 행진에 매진할 것이다.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그리고 군사독재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힘찬 행진을 하고 있는 선한 세력들은 노동현장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정당한 생존권을 요구하며 등불처럼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세력들과 대동 단결하여 군사독재정권 장기집권음모분쇄에 각고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지지하는 자유, 들고 따라 다니는 자유는 있지만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유, 진실을 말하는 자유는 말살된 암울한 민족의 현실에 비통을 금치 못하며 우리 기독교청년들의 십자가 행진이 민중시대의 여명임을 믿고 역사번역의 주체가 되어서 고난 당하는 이를 돕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호하고 말의 자유를 찾으며 화해시키고 일치를 증진하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해방과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987.3.10

태백지구 기독교청년협의회

2. 단체명 : 카톨릭 광산노동상담소

약칭: 사북상담소

소속 단체: 천주교 원주교구

존속 기간: 1985년- 1992년경

주요 활동 지역: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한읍, 남면 등 탄광촌 일원

법적 상태: 공개

조직체계: 상담소장(주임신부 겸임), 상담원(간사 2~3명이 겸임)

강령 :

결성과정 : 1980년 사북노동항쟁 이후 탄광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많은 산재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산재 불인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이익을 당한 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문제 상담이 절실하게 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미스유니버스 대회 폭파 미수사건으로 투옥되었던 황인오씨가 사복에 다시 돌아온 1984년 11월경 상담소가 문을 열게 되었고 현장 노동자 상담활동과 교육을 위주로 한 노동사목 활동을 펼쳤음. 1986년 부터는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 지원을 비롯한 지역 노동운동의 산실로 활동하였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1987년 동원탄좌와 석탄공사 함백광업소의 파업투쟁을 지원함. 노동현장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1988년에는 당시 노무현 의원 초청 강연을 하여 200여 탄광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고, 이 과정에서 정선경찰서 병력이 출동하여 몸싸움을 벌이는 등 화제가 되기도 함. 또한 1989년부터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강의, 자료집 발간, 시국 기도회 개최를 비롯하여 광부 대상 의식화 교육을 주도함. 1989년 동원탄좌 파업 과정에서는 중재역할을 맡고 파업 종료 이후 해고 노동자를 상담소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탄광지역 인권 수호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였음. 1990년이후 상담소 역할에 대한 내부 논란의 와중에서 지원이 약화되고 실무 간사의 이탈 등으로 활동에 한계를 보이다가 1992년경 문을 닫게 되었음.

주요 활동

산재, 해고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상담 및 법적 구제 알선

탄광 노동자 교육지원 활동

지역 민주단체 연대조직의 핵심

주요 활동가: 소장(주임신부 김영진, 김한기), 상담원(황인오, 유일권, 권경순 등)

관련 단체: 천주교 원주교구 인권위원회

관련 자료

「광산노동자에 대한 경찰당국의 앞쟁이 침투행위를 규탄한다」. 1987.1.11

「광산지역 놀이 한마당 홍보자료」. 1989.12.3

「광산 노동자대회 문건자료」. 1989.12.3

3. 단체명 : 태백선린교회

약칭 : 태백선린교회

소속 단체 : 한국기독교장로회

존속 기간 : 1985.1.30-현재

주요 활동 지역 : 태백시

법적 상태 : 재단법인 소속 합법 종교단체

조직 체계 : 담임 목사 - 전도사 - 집사 - 평신도

강령 :

결성 과정 :

< 설립 배경 >

태백선린교회는 한 개인의 의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된 교회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태백선린교회 설립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선교교육위원회에서는 매년 총회 때마다 총회기념교회를 설립해 왔으며, 특별히 한국교회선교 100년을 맞이하여 고난받는 민중을 위한 연대와 복음화를 위해 광산촌에 시범교회를 설립코자 노력해왔다. 근로자를 위한 선교활동은 그간 어려운 정치현실 속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 심한 정치적 탄압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동 위원회는 광산촌 근로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 69회 총회기념교회를 강원노회 태백시에 설립기로 결정하고...” (선교소식, 1984.6.30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위원회 사업국 발행)

선교교육위원회는 84.3.16 태백시에 기념교회를 설립하기로 이미 확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노동자선교가 극심한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데도 교단총회가 민중연대와 민중선교를 위해 태백선린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태백선린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의 민중선교의 시범교회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이후 선린교회의 역사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선교활동과 그에 따른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한편 태백선린교회의 설립은 태백광산지역의 사회운동에도 커다란 의미를 지녔는데 민중운동의 불모지인 태백시와 인근 광산지역에 태백선린교회는 광산노동운동과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광산지역의 민중운동을 이끌었다.

주요 활동 :

1) 설립초기(1984.12.7- 86.12)

태백선린교회는 설립이전부터 교회설립방해라는 장애에 부딪혔다. 총회의 교회설립결정이 난 후 정보기관에서 광산촌에 민중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우려

하여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교회설립방해공작에 들어간 것이다.⁸⁴여름부터 태백시에는 빨갱이교회가 들어온다는 풍문이 나돌았고 정보경찰들이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교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매매를 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하였다. 기장총회는 각 노회를 통해 교역자를 물색하였고 10월경에 강원노회 복지교회에서 농촌목회를 하던 신성식 목사가 담임교역자로 결정되어 11월에 태백에 부임해 왔다. 신성식 목사를 맞이한 것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던 정보경찰들과 지역주민들의 몰이해였다. 거처할 곳도 없어 여관을 임시 거처로 삼고 교회로 사용할 만한 곳을 물색하였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처음으로 한 건물을 계약하였으나 경찰의 압력으로 보름만에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으며 비밀리에 몇 집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1984.12.7 태백시 상장동 87-7의 장미 아파트 가동 305호를 매입하여 예배장소 및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교회는 태백시에 첫 부임지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던 기장출신의 전인호 선생과 부인 정연심 선생이 출석한 가운데 가정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정식으로 교회 설립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듬해인 85.1.31이었다. 교회는 이제 본격적인 광산지역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점차 한계로 다가왔다. 85.10.31 장미아파트를 매각하고 황지동 74-77번지의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예배장소와 사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86.4월부터 어린이 주일학교를 개교하고 주변 사택과 동네 아이들을 모았다. 6.14에는 마당에 13평 규모의 천막교회를 건립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틀후인 6.16 시청직원들이 들이 닦쳤다. 불법건물이라며 막무가내로 천막건물을 철거하고 말았다. 이는 명백히 선교탄압이었다. 태백시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도처에 널려 있었으며 설사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에 따라 경고절차를 밟아야 했다. 더구나 천막건물은 정식 건물도 아니고 임시 가건물이므로 강제철거의 속셈은 분명한 것이었다. 기장의 강원노회가 이 문제를 중대한 선교탄압으로 규정하고 6.25 ‘선교수호를 위한 기도회’를 선린교회에서 개최하였다.⁵⁰여명의 강원노회 목사들과 기장청년회회원들이 기도회를 가진 후 가두로 나가 평화행진을 하여 시청으로 갔다. 시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시청마당에서 농성에 돌입하였고 급기야 시장실을 점거하여 시장면담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장이 급히 오고 면담이 이루어져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싸움은 끝났다.

태백시청의 도움을 받아 7.5 천막교회가 다시 건립되었다. 그리고 학생회가 이날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회는 활기를 찾고 교인 수도 한 명 한 명 늘기 시작하였다. 학생회도 전인호선생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40여명이 출석하였고 어린이 주일학교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청년회도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나 청년 몇 명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성장의 기초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선린교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 사건을 통하여 선린교회는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른바 보안대 프락치공작사건으로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선린교회의 발전과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을 우려한 국군 보안대가 일명‘태백산 공작’이라는 프락치공작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황지교회 원기준 전도사 (당시 기독교광산 지역사회개발복지회 간사)와 태백선린교회에 이따금 출석하고 있던 박인균이라는 노

동운동가가 함께 방을 얻어 살면서 태백선린교회 청년을 중심으로 한 현장노동자 7-8 명이 모이는 작은 모임을 꾸려 노동운동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는데 그 모임 안에 보안대 프락치가 침투하여 박인균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안대는 살해 공작이 실패하자 원기준 전도사와 박인균을 비롯한 모임의 구성원 전원을 강릉 보안대로 강제 납치하여 일주일간 혹독한 고문으로 소위 '광산지역 폭탄테러단'을 조작하려 하였다. 다행히 태백선린교회 신성식 목사와 지역 목회자들 그리고 동료 노동운동가들의 맹렬한 구명운동으로 납치되었던 10명은 일주일만에 전격적으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성식 목사의 주도아래 태백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운동단체인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가 87.3월에 구성되었다. 또한 당시 연행되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확실한 태백선린교회의 청년이 되어 청년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원기준 전도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재직하고 있던 황지장로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와 기독교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에서 해직되었고 보안대가 태백에서 떠나도록 압력을 가해 몇 달 동안 소속이 없이 떠돌다가 신성식 목사의 요청으로 태백선린교회의 전도사가 되었다.

2) 민주화와 노동인권선교 (1987.1 - 89.7)

태백선린교회는 87년부터 지역에서 나름대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민주화운동의 의지를 가진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활동하였다. 87.3월에 창립한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사무실도 선린교회 안에 위치하여 교회는 늘 각종 노동상담을 하러 오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로 붐볐다. 87.7,8.탄광노동자 대파업기간 중에는 선린교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유인물작업이나 현장 지원을 담당하였고 그 때문에 정체불명의 협박전화가 교회로 많이 걸려왔다. 청년회원들은 에규메니칼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를 이끌어 나갔다. 청년회장이었던 류태호는 이미 86년도부터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로서 기독교청년운동의 성격을 진보적으로 변화시켜나갔다.

주목할 점은 87.대파업 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강원탄광노동자 이기만씨와 성완희씨가 87.말부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다는 점이다. 성완희씨는 동료노동자들을 여럿 데리고 나와 노동문제에 대한 토론을 이끌거나 정치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자료들을 나눠주면서 현장의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성완희씨는 그 스스로 훌륭한 투사가 되어갔고 헌신적인 노동운동가가 되었다. 그런데 88.6.29 성완희씨가 동료였던 이기만씨의 해고에 항의농성 중에 구사대의 폭력진압에 맞서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태백선린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여 장례투쟁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성완희씨의 장례 후에는 성완희기념사업회를 구성하는데도 신성식 목사가 이사로, 원기준 전도사가 상임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린교회교인들은 단련되었고 선린교회는 태백지역 진보세력의 구심이 되었다.

89년도는 광산노동운동이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발전한 시기였다. 각 현장에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성완희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였고 대규모 집회도 빈번하게 열렸다. 그런데 원기준 전도사 가 성완희기념사업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광산노동운동을 조직화하고 각종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파업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계속 하자 7.22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경찰 수십 명이 성완희기념사업회 사무실과 태백인권위사무실, 원기준 전도사 의 자취방 그리고 태백선린교회와 사택까지 수색한 사건이 벌어졌다. 원기준 전도사 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원기준 전도사 는 극적으로 체포를 면하고 태백을 탈출하여 서울로 피신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떨어졌고 신성식 목사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한 원기준 전도사 를 체포하기 위해 태백선린교회 신성식 목사와 전교인들에 대한 추적, 미행 ,잠복감시는 계속되었다. 태백선린교회는 즉각 교우일동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교회기물의 파손이 자행된 것을 선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태백지역의 각 민주단체들도 연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고 항의 농성을 하였다. 7.31에는 기장 강원노회가 주최하는 ‘선교자유 수호를 위한 기도회’가 태백선린교회에서 열려 가두시위와 경찰서 항의방문이 있었다.

이 사건은 보수적인 교회에도 충격을 주었는데 당시 교회들이 선린교회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사건직후 발표한 태백시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광산지역의 약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주의 뜻으로 알아 애써 오고 있는 태백선린교회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교회와 목사관을 함부로 다루고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바랍니다.”

수배를 당하던 원기준 전도사 가 수배 12만에 서울에서 체포되어 구속되면서 태백선린교회 교인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는 풀렸으나 그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원기준 전도사 는 1심과 2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과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정기간행물법위반 등으로 징역과 자격정지 1년6월을 받아 91.2월에 만기 출소하였다. 원기준 전도사 는 석방 이후 교회 부설기관으로 광산지역사회문제연구소 (93.이후 광산지역사회연구소로 개명)를 설립해 소장으로서 지역운동의 한 부분을 맡아 일했으며 93년도에 목사안수를 받고 신성식 목사의 뒤를 이어 태백선린교회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다.

주요 활동가 : 신성식 목사, 원기준 목사, 전인호 집사, 정연심 집사

관련 단체 :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관련 자료 : 성명서 「경찰의 난입과 강제압수 수색한 사건」 (1989.07.23)

성명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갈망하는 선린교회 교우일동은 지난 22에 있

었던 본 교회에 대한 경찰의 난입과 강제 압수 수색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교회는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어떠한 세속적 권력이나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이자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한 장의 영장을 근거로 하여 수사과장을 지휘자로 다수의 경찰력을 동원 교회와 사택을 강제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회역사에 공권력이 이처럼 불의하고 방자하게 개입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분명 현정권의 이러한 무분별한 교회탄압은 스스로 부도덕한 정권임을 말해주며 계속적인 집권을 위한 광기적 만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선린교회는 일찍부터 광산노동형제들의 아픔에 적으나마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역할에 대해 바르게 평가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도 노동형제들의 수고가 있기에 이 사회 유지되고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위대한 역할과는 달리 이들의 기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화의 생산자이면서도 그 재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가 하면 사회발전의 주체이면서도 그 혜택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성서를 통해 확인하다.

그간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질서와 구조를 항구화하려는 세력들에게 비판을 가해왔다. 우리는 우리 선린교회가 현정권으로부터 계속적인 탄압을 받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탄압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행위를 계속 할 것을 다짐하며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현 정권은公安정국을 해제하고 양심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태백경찰서장은 선린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공개사죄하고 압수물품에 대해 즉각 반환하라
- 이후 교회의 모든 선교활동에 대해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만일 우리의 이러한 당연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 관철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대처 할 것임을 밝힌다.

1989.7.23

태백선린교회 교우일동

성명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의롭게 심판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는 지난 7.22 온 노회 소속의 태백선린교회 (담임목사: 신성식목사)에 대하여 경찰이 자행한 일련의 행위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태백 선린교회는 본 교단의 제 69회 총회 기념교회로 설립되어 그 동안 광산지역이라는 특수한 사정 속에서 광산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선교사명에 따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여 왔다. 이는 교회가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하나님의 평화 안에 살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 받는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라는 신앙고백에 따른 것으로 이를 공권력에 의해 탄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이에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압수수색영장에 신성식목사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구내(목사관, 예배당)에 까지 난입하여 수색하면서 목회에 관계된 다수의 도서와 본 노회의 서류 및 선교자료를 압수한 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천인공로 할 폭력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기에 엄중 규탄한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성직자의 불법수색에 대한 항의 및 퇴거요구에도 불응한 채 강제로 수색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 및 선교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되기에 엄중 규탄한다.

3. 성직자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성식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선린교회의 원기준 전도사를 수배한 것은 성직에 대한 도전이라 규정하고 엄중 규탄한다.

4. 이번 사건은 선린교회가 그 동안 노동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왔던 바 요즘 광산지역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의 아픔이 바로 선린교회에 대한 탄압과 같은 것임을 이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배의 즉각 중지와 구속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며 아울러 선린교회와 함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태백인권선교위원회와 성완희기념사업회 등 여섯 곳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대한 즉각 반환을 촉구한다.

5. 강원도경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 태백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결단 있는 조치를 단행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우리는 모든 선한 세력과 연대하여 결연히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경찰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호가 끝까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어다.” (아모스 5:24)

1989.7.22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 선교자유수호를 위한 기도회 참가자 일동

성명서

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모든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광산지역 곳곳에서 자행된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이제 신성한 교회까지 노골적으로 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선교의 도구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는 민중 속에서 해방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활동에 동참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투쟁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어떠한 세속권력의 도전도 용납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

지난 22 있었던 선린교회, 인권선교위원회 사무실, 성완희기념사업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나님 선교의 권위에 대한 세속권력의 방자한 도전이요 적그리스도적 행위임이 분명하며 이에 우리 선교탄압대책위원회는 선교탄압행위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금번 광산지역에서 행해진 일련의 압수수색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교를 담당해온 우리 광산지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정의로운 선교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탄압의 일환임이 명백하여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선교탄압행위를 하나님의 공의로 응징할 것을 결의하며 선교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원기준 전도사를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수배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하여 그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그들이 투쟁을 지원하는 선교활동에 대한 탄압임을 직시하고 전국의 민주노동단체,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 합법적 압수수색을 빙자하여 선교단체와 교회의 각종자료와 사무집기를 압수한 것은 선교단체의 업무를 마비시켜 정의로운 선교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행정권의 치졸한 발상 등에 의연히 대처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압수해간 물품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정의로운 선교활동은 교회의 지상과제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근본존립이유임을 재확인하면서 행정권의 비이성적이고 반교회적인 선교탄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에게 가해지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선교탄압행위를 민중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고난으로 이해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 16:13)”

-우리의 주장-

1. 교회에 대한 선교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2.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현정권의 노동운동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4.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자를 해체하라!
5. 부당하게 압수해간 물품을 즉각 반환하라!

선교탄압대책위원회 태백지역 인권선교 위원회 광산지역 사회선교협의회
태백지구 기독교청년협의회 강원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장 강원노회 광산선교
위원회 춘천 인권선교위원회

4. 단체명 : 태백마당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85-1995

주요 활동 지역 : 태백, 정선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강령 :

결성 과정 : 84년도 풍물팀 (홍진표, 김연희 주도) 활동과 미술팀 (황재형 화백 주도) 활동이 따로 진행되어 오다가 85년도에 두 모임이 통합해 태백마당으로 발족해서 86년도 연극 모닥불아침이슬 초청공연 실시.

주요 활동 : 풍물팀, 미술모임, 독서모임을 통한 민족민중문화 확산 활동.

주요 활동가 : 황재형, 홍진표, 김연희, 최연진, 이영재, 신순옥, 김소운, 오성숙, 서후남
조용일, 김연희,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모닥불아침이슬 공연 팸플렛 (1986)

< 주요 인사 >

황재형 화백

1952년에 전남 보성 출생, 1982.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하고 1979.탄광춘기행을 하면서 ‘황지연작’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면서 임술년창립전(1982), 시대정신전(1983) 등 사회적 의식이 강한 동인전에 참여해 왔다. 1987년과 1991년의 개인전을 통해 탄광춘의 깊숙한 현장과 인간 풍경들을 발표하였다. 80년대 초 정동탄광, 사북탄광 등에서 광부로서의 삶을 살았다.

민족민중문화 확산을 위해 1984년도부터 화실에서 판화교실을 열고 1985년도에 문화운동단체인 태백마당을 창설하는데 실질적인 주도역할을 했다. 1988년 성완희기념사업회 상임이사와 1991년 지역의 종교, 민주인사들과 함께 장애아를 위한 특수탁아소 태백사랑의집 설립을 주도했다.

광산촌에 내려온 자신과 같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내려온 젊은 후배들을 만나던 그가 노동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성완희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으면서 부터였다. 성완희씨는 87년도 광산지역에까지 밀어닥친 노동자 대파업의 물결 속에서 지도부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 파업은 승리로 끝났으나 그 뒤 자신의 해고와 동료의 해고에 맞서 싸우다 88.7.8 분신한 광부 성완희 씨의 죽음은 황재형 화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광산지역 전체가 소용돌이 쳤고 각 탄광마다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라는 서클이 결성되었다. 이 서클들이 모여 성완희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다. 어용노조만이 존재하던 광산지역에 만들어진 최초의 자주적인 노동단체였다. 그는 이 기념사업회의 상임이사로 일했다. 상임이사로 활동한 그의 집은 이 지역 노동운동가들의 사랑방이자, 중요 결정 때마다 토론장이기도 했다. 가난한 화가였지만 더욱 대책 없는 이 지역의 젊은 노동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은 어려울 때마다 황재형을 찾았다. 생활비가 없어도 방세가 밀려도 전화비가 밀려도 대책이 없을 때면 그를 찾았다. 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활동한 한 사람은 “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치고 그의 신세를 안 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자는 “그는 뭐랄까 제일 선배였고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할 수 있죠”라고 평했다. 「길」, 『월간 사회평론』, 10월호, 1993, 40-41p 참조 재구성

1979.정동탄광에서 광부생활 시작 (이후 5.동안 8개 탄광에서 탄광근로자로 일함)

1982.중앙미술대전 “ 황지 330 ”을 출품, 장려상 수상

1982.태백 정착

1985.태백마당 창립

1988.성완희 열사도 (걸개그림) 제작

5. 단체명 : 광산노동자상담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86년 4월~1987년

주요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강령 :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1986년 고한지역 12리 남부교회 교역자로 부임한 조남호 전도사와 고토일교회의 담임을 맡았던 박상만 전도사 등이 힘을 합하여 당시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 신음하던 고한지역의 탄과 노동자들의 각종 노동문제를 상담하고, 각종 노동교육을 실시했으며 노동현실에 대한 각종 소식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하는 등 서슬퍼런 5공화국의 압제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전개함. 이후 남부교회의 조남호 전도사가 다른 교회로 떠나면서 노동상담소도 문을 닫으면서 활동을 종료함.

주요 활동가 :

조남호(남부교회 전도사, 현재 태백시 소재 소도교회 담임목사), 박상만 (고토일교회 전도사, 1993.작고), 윤임현 (2003.교통사고로 작고)

관련 단체 : 천주교 원주교구 인권위원회

관련 자료 :

6. 단체명 :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태백지회

약칭 : 태백K

소속 단체 :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존속 기간 : 1986- 1994

주요 활동 지역 : 태백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강령 :

결성 과정 :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KSCF)에 소속되어 1982년도부터 기독교학생운동을 하던 원기준 전도사가 1985.12.태백에 있는 황지교회 전도사 겸 기독교광산지역사회개발복지회 간사로 부임하면서 황지교회의 고등부를 가르치게 되었다. 원기준 전도사는 학생들에게 좀더 진취적인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KSCF의 고등학생 조직인 KSCM 즉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 조직을 태백에도 만들기로 결심했다. 우선 황지교회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태백시의 황지지역의 기독교학생들 가운데 개방적이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만한 학생들을 선별해 1986.5월경부터 조직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86년 전국 KSCF 여름대회를 태백시 황지교회로 유치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황지교회 장로가 고등학생들을 좌경의식화시킨다고 비난하고 원기준 전도사를 교회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해 황지교회 이정규 목사가 원기준 전도사를 황지교회 전도사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원기준 전도사는 황지교회 학생들 중심에서 태백시내 전 교회 학생회를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회보발간과 문화프로그램, 성서연구 등 활동을 강화했다.

주요 활동 : 기적인 성서학습 및 역사교육, 토론회를 통한 열린 신앙의식, 역사의식 고취

기관지 <외침>을 부정기로 발행해 태백시내의 고등학교에 다량 배포
(청소년이 문제의식 공감하는 다양한 시사문제와 역사관련 글 게재)

전국적인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 소속으로 매 방학때마다 전국대회에 참가해 전국 연계 (1987 K 전국회장예 태백 K 회장이 선임됨)

주요 활동가 : 김소영, 유민수, 강은영, 최기영, 홍성구, 권미숙, 송해숙, 이성규 등

관련 단체 : 태백선린교회,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관련 자료 :

7. 단체명 :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약칭 : 태백인권위

소속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존속 기간 : 1987.3.- 1991.

주요 활동 지역 : 태백시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인권위 창립시 위원장 안상혁, 감사 조남호, 총무 신성식, 서기 박상만, 회계 윤창현

강령 :

결성 과정 :

86.11.7 노동운동가 박인균에 대한 군보안대 프락치의 살해기도사건발생 및 광산노동자 10명 군 보안대 납치 고문 (태백지역 개신교 목회자들 중심으로 구명운동 전개로 납치 후 1주일만에 전원 석방)

87.3.30 보안대 납치 노동자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목회자들이 탄전지역의 인권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권선교위원회를 결성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요,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 받아 태백지역의 각 목회현장에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은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교회의 책임을 함께 느껴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를 창립 (창립선언문 일부분).”

주요 활동 :

1987.2.16 박종철 추모 인권회복 기도회 (상장중앙교회, 150명)

1987.3.30 인권위원회 창립세미나 (태백관광호텔, 35명)

강사 : 장을병 교수, 인명진 목사, 김동완 목사

1987.5.25 나라를 위한 기도회 (철암장로교회, 350명)

1987.5.25 호헌철폐를 위한 목회자 단식 기도회 (철암장로교회, 17명 목회자 3일간 단식)

1987.5.25 성명서 발표 “광산노동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

1987.7.20 제1회 광부를 위한 기도회 (연화장로교회, 100명)

1987.7.25 성명서 발표 “한성광업소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을 규탄한다”

1987.8.10 경찰의 폭력에 대한 항의문 (태백경찰서장 앞)-탄광노동자 파업 폭력진압에 대해

1987.9.15 광산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항의문 (강원도 경찰국장 앞)

1987.9.25 제1회 광부를 위한 기도회 (고토일감리교회, 150명)

1987.9 민주쟁취국민운동 태백지부 결성 주도

1987.10.2 태백의 소리 창간, 광산노동자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펴보는 소식지 보고서 발간 -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파업 과정을 보고

1987.10.25 민주화를 위한 태백시민 한마당

1987.12.10 인권주간 연합예배 (황지장로교회, 250명)

1988.1.3 불법해고 자행하는 강원탄광에 보내는 항의문

1988.2. 광산민중현실 1000부 발간

1988.3.5 성명서 발표 “광산노동자의 생존권 회복을 강력히 요구한다”

1988.5.16 2차 정기총회 (황지교회, 40명)

1988.6.27 성명서 발표 “강원탄광은 부당해고 즉시 철회하라” (이기만 해고에 대한 성명서)

1988.6.28 강원탄광 규탄설명 발표 “강원탄광은 파렴치한 살인행위 중지하라.”

1988.7.11 평화통일 강연회 (영월영광감리교회, 강사 : 홍근수 목사)

1988.8.10 강원탄광 이기만의 복직명령 집행촉구 건

1988.9.22 성명서 발표 “노태우 정권은 광산노동탄압 즉시 중지하라”

1988.11.22 성명서 발표 “검찰의 광산노동운동 탄압을 엄중 규탄한다”

1988.12.6 인권주간 연합예배 (문곡감리교회, 강사 : 이삼열 박사, 100명)

1988.12.8 인권주간 연합예배 (영월대교회, 강사 : 장기천 감독, 200명)

1989.6.14 석탄산업합리화정책공청회 ‘석탄산업합리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태백시 한마음신협회관, 80명)

1989.6.22 제3차 정기총회 및 선교세미나 (상장중앙교회, 강사 : 임명진 목사)

1989.6.22 성명서 “석탄산업합리화 전면 재검토, 광산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지, 교직원 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 촉구”

1989.7.24 성명서 발표 “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모든 폭력적 탄압을 중지하라”

1989.7.25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처하기 위해 선교탄압 대책위원회 구성 활동, 광산노동자 협의회 압수수색에 대처해 실무간사 파견, 항의방문 등

1989.8.1 태백선린교회 및 태백사회선교협의회 압수수색에 대한 선교자유수호대회 (태백경찰서 및 태백역 앞) - 항의시위 및 항의 농성

1989.8.23 전국교직원 노조 탄압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태백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참여

1989.12.4 인권주간 연합예배 (태백순복음교회)

1990.4.24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화요기도회 (태백인권위사무실)

1990.6.25 4차 정기총회 및 선교세미나 (태백서부교회, 강사 : 김영주 목사, 홍춘봉 노
총노동상담소상담원)

1990.7.12 한보노사분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89.7.27 선교탄압 및 노동운동탄압 건

1990.7.27 성명서 발표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촉구 성명서 발급)

1991.5.12 한보노사분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요 활동가 :

신성식 목사 (태백선린교회), 안상혁 목사 (철암교회), 송순오 목사 (덕포감리교회)
윤창현 목사 (상장중앙교회), 손명철 목사(태백중앙침례교회), 박철 전도사, 박상만 전
도사, 조언정 전도사, 원기준 간사, 신흥주 간사, 오영석 간사

관련 단체 :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태백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

관련 자료 :

조사보고1.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파업 투쟁
기」. 1987.10

『1988 광산민중현실』

성명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인간의 생명이 이른바 국가를 경영하는 위정자
들과 그 하수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서울대 박종철군과 고문살해 사건을 접한 우리
교역자들은 정의사회와 선진조국을 노래하듯 외쳐대온 제5공화국 정권의 잔인한 폭력
성에 치 떨리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 사건은 관계 당국자가 언명한 것처럼 “직무의욕에 과잉한 말단 수사관의 실수”라는
거짓말로 호도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80년 4월의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북탄광 노동자들의 항쟁 당시 계엄을 빙자하여 죄
없는 수백 명의 노동자와 부인들을 정선경찰서로 끌고 가 온갖 폭행.고문하여 많은 사
람들이 아직도 그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정권
이 폭력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7일 태백 선린교회 청년회원이자 노동운동가인 박인균씨가 영동
보안사령부가 사주한 앞잡이에 의해 테러범으로 조작 살해 될 뻔 하다가 박씨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 저들의 뻔뻔스러운 살인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었지 않는가

그뿐인가 지난 12월 23일에는 고한지역 세방광업소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다 부당 해고된 노동자 구성모씨를 감시, 용공으로 조작 탄압하기 위해 동료 노동자인 김성민 씨를 정선경찰서 정보과 수사관들이 세방광업소 간부들과 공모하여 여관으로 강제납치, 감금하고 고문하여 경찰의 꼬나풀이 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보이듯이 몇 가지 고문 사례는 서로 깊이 연관된 것으로서 정당한 인간적 삶의 노력을 짓밟고 소수의 부를 독점한 이들을 보호하고 기생하려는 현 정권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종철군 고문 살해의 경우 85년 이후 이 땅에 불어온 민주화의 거센 바람으로 제 5공화국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부정하고 참으로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닦으려는 4천만 민중들의 민주화 의지를 잠재우고 내각제 개헌이라는 기만적인 술책으로 자신들의 부도덕한 정권을 연장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맺어진 일상적으로 저질러진 고문행위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성직자들은 근본적으로 광주 대학살의 더러운 피를 씻지 못한 현 군사독재정권의 즉시 퇴진과 내각제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 기도를 포기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야만적 고문행위를 추방하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만이 이 지역 10만 광산 노동자들과 나아가 이 나라 노동자.농민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권리가 확보되는 첫 걸음임을 밝힌다.

이제 우리 태백 정선 지역 성직자들은 지금까지의 사회현실을 외면한 개교회적 양적 팽창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지역 내의 노동자 농민들의 겪는 고통에 함께하여 부도덕하고 사악한 체제를 바로 잡는 일에 온 몸으로 나설 것임을 결연히 선언하는 바이다.

- 박종철군을 고문 살해한 관련 책임자를 즉시 의법 처형하라
- 박인균, 김성민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법인들을 즉시 처벌하라
- 광산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철폐하고 구성모씨 등 모든 부당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광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 내각 책임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 음모를 철회하고 현 군사 정권을 즉시 퇴진하라

1987년 2월 3일

태백 정선 지역 성직자 모임

< 주요 인권 상담 일지 >

제목	성명	연령	근무처	일자	처리내용
산재보상	이인태	30	한보탄광	87.6	정기적인 신체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가 타광업소로 이직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전 근무지인 한보탄광에 배상을 청구하고 산재등급을 받는 방법을 시도
산재보상	장태용	37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87.7	진단서 첨부하여 산재등급을 받도록 지도
보상금 지급	한상임	37	경동탄광	87.9	산재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미집급한 경우로서 경동탄광에 항의하여 부소장으로부터 시정약속
부당해고	조용일	26	동해탄광 택극광업소	87.7	취업규칙위반, 농성사건주도로 해고된 노동자로 이를 인권위 명의로 항의하고 성명서 발행. 조씨의 출근투쟁과 법정소송을 지원
부당노동	백형근	30	한보탄광	87.1 0	광산보안법에 금지되어 있는 마른천공을 거부하였다가 해고된 경우로 청원서, 진정서등을 관계요로에 제출
노사문제	이종석	25	어룡광업소	87.1 0	노산분규폭행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경우로 현재 복직문제를 어룡광업소속에 요구하며 지원

창립선언문

-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를 창립하면서 -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요,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 받아 태백지역의 각 목회현장에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은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교회의 책임을 함께 느끼고 1987.3.30 오늘 태백시에 모여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를 창립하면서 우리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이 존엄성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며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다. 역사와 사회는 변화하여도 인간존엄성의 대원칙은 결코 변화할 수 없으며 또 변질시켜서도 안된다. 모든 제도와 법률 그리고 사상까지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일 때만 존재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민주화의 내용이나 자유나 평화 또한 인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엄연한 당위성은 오늘 이 땅의 현실에서 여지없이 무시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민중의 생존권은 소수 독점재벌과 외세에 의해 끊임없이 침탈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기본권리인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는 비민주적 정치의 안보논리·안정논리에 의해 계속 탄압 받고 있다.

최근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힘써 온 수많은 애국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종교인사들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한 고문, 용

공·좌경매도, 대량구속 등의 탄압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 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화만이 인권회복의 유일한 길임을 거듭 확신한다. 태백지역의 인권상황은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하며 광범위하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다. 광산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비인간적 대우는 물론 매해 200여명이 사망하고 6,000여명이 재해를 당하는 세계 최고의 광산재해와 증가 일로에 있는 불치의 진·규폐증, 전 산업 중 가장 위험하고 힘든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마저 원천봉쇄되고 오히려 정당한 생존권 보장을 주장한 노동자들의 대량 구속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각종 왜곡선전이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 같은 반 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과 정부당국 및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추구한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 책임이 인간의 존엄성과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민주제도를 지키기 위해 약한 세력과 그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요, 상처받은 인가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룩한 싸움이라 생각한다.

지난날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태백지역의 인권회복을 위한 십자가 행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16:33)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께서 마침내 정의와 인권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1987.3.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성명서

“최근 광산지역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태백 광산지역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해온 우리 교회는 최근 광산지역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이 중대한 인권문제라고 파악하고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석탄산업합리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악의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무릎쓰고 우리나라 최대의 서민연료인 석탄을 생산하는 광산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해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정책입안과정에서부터 노동자의 의사를 배제한 상태로 입안된 이 정책은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사업주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실직노동자에 대한 생존권대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며 이를 외면하는 어떤 정책도 반대해왔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광산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주와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헌법과 노동법에서도 보장되어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사용주들이 해고를 일삼는 것에 대해 개탄하는 바이다.

89.상반기에만도 삼척탄좌와 동원탄좌 등에서 구속자가 13명이 발생하고 동해탄광과 장성석공 등에서 해고자가 대량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현 정권이 광산노동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올해 들어 광산노동운동이 매우 조직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전의 양상과 달리 준법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권력과 사용주들이 불법적인 탄압을 일삼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사용주들은 현재 구속노동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과 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3. 교직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참 교육, 민주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창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땅의 민주시민들의 따듯한 지지와 격려 속에서 그 조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정권유지와 정권홍보의 시녀로 만들려는 현 정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교원노조를 불법, 좌경으로 매도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이간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태백지회장인 철암고등학교 전인호 선생님에 대한 고발은 참교육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현정권의 이러한 탄압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는 교원노조에 지지를 보내며 참교육실현을 열망하는 모든 학부모, 민주세력과 함께 교원노조 탄압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현정권은 교사들에 대한 반교육적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1989.6.22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성명서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원수입계획 철폐하라!

지난 2.25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밝힌 “해외광원수입계획”은 광산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최근 광산노동자인력난의 원인인 저임금이나 열악한 작업 환경등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채 값싼 해외노동력으로 오직 기업주의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으로서 광산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광산노동자는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오늘날 산업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생산의 주인이어야 할 광산노동자들의 현실은 전 산업최고의 노동강도와 세계최대의 재해율(13%)이란 최악의 작업환경과 산업재해로 일년에 300여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2만 여명의 광산노동자들이 진·규폐로 고통 속에 죽음을 기다리는 참담한 현실에 있다. 뿐만 아니라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는 노정권의 약속과는 달리 6공화국들이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현재 3만 여명의 광산노동자들이 실직하였으며 임금의 두배는 커녕 실질임금의 계속적인 감소로 지금은 전 산업에서 가장 낮은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석합정책으로 인해 3만 여명의 광부가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 재취업율은 불과 4%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열악한 작업조건과 최저생활비에도 절대 못 미치는 광산의 저임금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작업조건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광산인력난은 해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정부가 해외광원수입을 강행한다면 해외광원의 싼 노동력으로 인해 임금조건은 급속히 하락될 것이며 광산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해외광원수입 대체라는 위협용 칼로 목살 할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광산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광산노동자들과 가족들의 타 지역 이주현상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화 될 것이며, 해외 광원들의 유입으로 인한 유흥업소증가와 저질문화유포는 이 지역의 문화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곧바로 열악한 광산지역 교육환경에도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본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와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광원수입계획은 “아흔 아홉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밖에 가지지 못한 자에게서 그 한 마리밖에 가지지 못한 자에게서 그 한 마리마저 빼앗는 (삼하 12:1-4)” 강도행위로 규정하며, 소수 특권층에 의해 3만 8천 광산노동자들의 고귀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가 위협받는 현실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리의 주장 -

1.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원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3. 광산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1991.3.11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광산지역 사회선교협의회

한보노사분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 생명을 온전히 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동안 광

산지역에서 일해 온 우리는 최근 한보탄광 노사분규를 접하고,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선 장기간 파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노동자 가족들과 막장에서 죽음을 무릅쓴 6명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0. 하루빨리 회사와 노동자들은 새로운 대표들로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0. 무엇보다 6명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의 해결 열쇠를 갖고 있는 회사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당국은 무조건 회사와 노조 집행부만을 비호하지 말고 공정한 중재를 바랍니다.

0. 노.사 상호간에 쌓인 반목과 불신을 없애는 길이야 말로 이 나라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한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가 하나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0. 끝으로 우리 인권위는 이 절박한 현실을 가슴아파 하면서 우리의 부족과 무능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 노력할 것입니다.

1990년 7월 12일

태백지역 인권 선교 위원회 위원장 송순오

8. 단체명 : 도계가톨릭노동인권상담소

약칭 : 도계상담소

소속 단체 :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존속 기간 : 1987- 1991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남부지역(도계, 태백, 사북, 고한, 함백, 예미)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천주교 원주교구 도계 성당 산하 조직

강령 :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소식지 “광부의 외침” 발간

노동상담, 산재상담, 현장 노동교육, 광부놀이 한마당 등 문화단체 초청 공연

주요 활동가 : 김창수 신부(도계성당) 박인균 간사, 조용일 간사, 박미순 간사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9. 단체명 :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태백시지부

약칭 :

소속 단체 :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존속 기간 : 1987

주요 활동 지역 : 태백시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강령 :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1987.06.26 민주헌법 쟁취 태백지부에서 평화대행진 개최

주요 활동가 :

장석운 신부 (장성천주교회), 신성식 목사 (태백선린교회), 김진하 (민주당 태백
시지구당) 윤창현 목사 (상장중앙교회), 원기준 사무국장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10. 단체명 :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약칭 : 광산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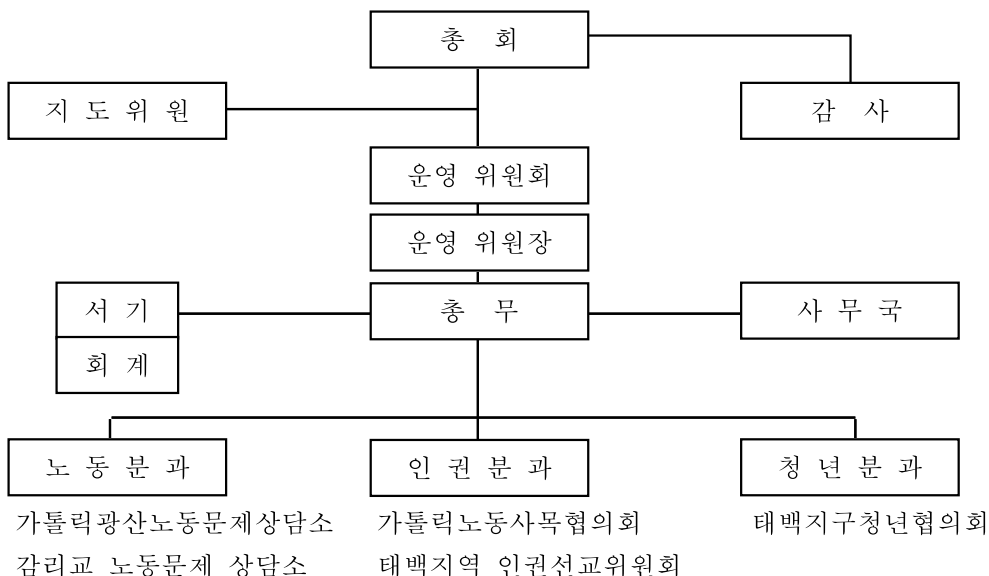
소속 단체 :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태백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태백EYC), 한국기독교장
로회 강원노회 광산선교위원회, 기독교 감리회 광산지역 목회자 선교위원회, 광산지역
목회연구회

존속 기간 : 1988.3.29 - 1991.8.1

주요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① 지도 위원 : 장석운 신부, 조규정 신부, 신현봉 신부, 안상혁 목사, 조백형 목사

② 감사 : 윤창현 목사, 김승오 신부

③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 : 김창수 신부, 신성식 목사, 윤창현 목사, 박상만 전도사, 조남호 전도사,

조희영 전도사, 김복실, 안재성, 황인오, 박인균, 원기준, 윤임현

- 운영 위원장 : 김창수 신부, 신성식 목사

- 총무 : 박상만 전도사

- 서기 : 조희영 전도사

- 회계 : 김복실

④ 사무국

- 사무국장 : 안재성

- 실무간사 : 유종원, 박희숙

⑤ 분과위원회

- 노동분과 : 황인오, 윤임현, 노민구

- 인권분과 : 박인근, 원기준

- 청년분과 : 유태호

강령 :

결성 과정 :

1987.7.8 광산 전지역에서 들불처럼 타올랐던 파업투쟁은 그 어느 산업부문보다 치열하고 격렬하게 전개되었지만 이전의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한 자연발생적 투쟁에 머물러 성과가 극히 미비하였고,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던 ‘어용 노조퇴진 민주노조건설’, ‘도급제 철폐 월급제 쟁취’ 등의 과제들은 미해결된 채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편 광산 지역의 기독교 운동은 광산노동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선도해내지 못하였다. 이에 기존의 인권적, 양심적 수준의 기독교운동은 보다 현장성을 띠며 실천적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과 대파업투쟁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광산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할 조직적 과제가 대두되었다. 일어나 내, 외적 요구들을 통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개신교 4개 단체로 광산사선을 1988.3.29 창립하게 되었다.

주요 활동 :

1988.3.29 창립

1988.6.29 강원탄광 성완희 열사 분신투쟁 대책위원회 구성 및 장례 후 성완희 기념사업회조직

1988.6.15 성명서발표, 「악덕탄광주는 무더기 부당회고를 즉각 철회하라」

1988.6.17 노동부의 노동자 생존권 말살 정책을 규탄한다.

1989.7.9 성완희열사 정신 계승 및 노동악법철폐를 위한 광산노동자대회 개최
 1989.7.25 강제 압수수색에 대응하여 선교탄압 대책위 구성(위원장 : 송순오 목사)
 1989.8.1 광사선, 인권위, 기장강원노회, 성완희기념사업회 등 강제압수수색에 항의하
 여 규탄대회를 갖고 시가행진
 1989.8.26 전국 교직원 노조탄압 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태백지역 공동대책위원
 회 결성식
 1989.9.24 전교조탄압저지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 개최 경찰의 원천봉
 쇄로 사북성당앞에서 개최
 1990.7.8 광산노동자대회 개최
 1990.7.11 한보탄광 노사분규 공동대책위원회(약칭:한대위)활동. 공동위원장:신성식 목
 사, 김한기 신부
 1990.7.12 한보탄광 노사분규를 위한 기도회 참가. 태백지역 각 단체들과 한보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1990.10.19 보안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성명서 제작, 배포

광산지역 사회선교 협의회는 광산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노동자, 부녀자, 청년 등 모든
 노동 형제의 애로사항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선교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인 측면지원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
 담, 홍보, 교육, 자료편찬 등의 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전개한다.

1) 상담활동 : 노동문제, 인권문제 상담

노동상담소 - 황지, 철암, 고한

2) 교육활동 : 년 2회 노동강좌 개최

하기광노동자 수련대회(88.7.30-8.1)

광산노동자 교육집회 10회 개최 (노동법, 산재법, 노조민주화 인금인상투쟁 등)

광산사택 별로 순교육 실시 (부녀자 교육 병행)

3) 홍보활동 : 『광산민중』 2회 발간, 『광산노동자신문』 4회 발간

4) 광산노동자의 집 건립 : 모금을 통해 '광산노동자의 집' 건립

5) 소속단체 분과활동

① 태백지역인권선교위원회 활동 : 87.3.설립하여 2명의 실무간사를 중심으로 '태백
 의 소리' 홍보물 발행, 보고서 발간, 각종 집회의 개최, 노동자 대상 각종 상담활동을
 수행했다.

1987.7. 제1회 광부를 위한 기도회 (한보탄광 파업 직후)

1987.9. 제2회 광부를 위한 기도회 (삼척탄좌 파업 직후)

1987.10.25 민주화를 위한 태백시민 한마당

② 가톨릭 광산 노동 사목 협의회 : 광산지역 가톨릭 신부들로 구성된 가톨릭 광산
 노동 사목 협의회는 87.5.산하에 '도계 광산인권문제 상담소'를 개설하여 '광부의 외침'
 홍보물 발행, 각종 집회의 개최, 상담활동 등 광산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쟁취노력을 적
 극 지원하였다.

1987.11.29 광부놀이 한마당 개최

주요 활동가 :

김창수 신부, 신성식 목사, 윤창현 목사, 박상만 전도사, 조남호 전도사,
안재성, 황인오, 원기준

관련 단체 :

가톨릭 광산 노동사목 협의회, 태백지역 인권선교 위원회, 가톨릭 광산 노동문제 상담
소, 감리교 노동 문제 상담소, 태백지구 기독교 청년 협의회

관련 자료 :

「광산지역 사회선교회 프로젝트 요청건」,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1988.2.1

「폐광광원 생계대책 촉구」, 『강원일보』, 1988.6.16

「탄광정비 연내 힘들 듯」, 『강원일보』, 1988.6.16

「실직광원 실질적 생활보장을」, 『강원일보』, 1988.6.20

「현정권과 한보탄광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
라」,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1990.7.12

「즉각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1990.7.12

창립선언문

- 광산지역 사회선교협의회를 창립하면서 -

이 땅에 고난받는 민중의 몸으로 오셔서 민중과 더불어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광
산지역 30만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 온 사회선교단체들은 보다 통일적인
연대속에서 광산지역 문제의 구조적인 극복과 사회선교활동을 위하여 1988.3.29 오늘
광산지역 사회선교협의회 창립식을 가지면서 우리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지난해 7월 8일 광산대파업투쟁에서 우리는 광산노동운동이 이전의 비조직적인 일시적
폭발형태를 극복하고 보다 조직적인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요구조건에서도 단순한 생활
개선 요구가 아닌 광산노동문제의 핵심인 도급제 철폐, 최저생계비 보장, 어용노조 퇴
진 등의 중요한 요구를 제기한 것을 통해 광산노동운동의 목적의식적발전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어느 노동자보다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면서도 천대받고 소외 받은 광산노
동자들은 오랫동안의 굴종과 침묵을 깨치고 힘차게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최근 광산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매탄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탄을 계속
들여오는 정부당국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대한 개탄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불황을 핑계
로 광산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감원을 일삼는 사용자들의 횡포에 경악을 금치 못한
다.

우리는 이제 강고한 연대 속에서 광산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며, 광산지역의 교육, 주거환경, 공해, 문화 등 제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써 전진하는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1988.3.29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 노동부의 노동자생존권 말살정책을 규탄한다 -

우리는 최근 노동부가 각 지방사무소에 하달한 「파업 기간 중 임금 불지급 지침」 소식을 접하고, 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방침의 즉각 철회와 노동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밖에 없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 값에 팔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파업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후의 방법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면 임금이외에는 아무런 생계수단도 없는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가기란 매우 어려워지고 그 결과 노동자의 권익은 영영 담보상태에 빠질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광산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원탄좌에서 4.25부터 시작된 파업이 단 이틀만에 끝났으나 회사측의 파업기간 무급처리 방침에 따라 노동자들이 반발하여 무려 28간이나 계속되었다.

또한 한보탄광, 한성광업소에서도 이 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이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존적인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파업시의 생계를 위한 쟁의기금의 적립은커녕 노조민주화 투쟁과 합법적인 쟁의 마저 공권력과 결탁한 구사대의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잇는 작금의 현실에서 가해진 노동부의 방침은 노동자에게 가해진 또 하나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정책이 제5공화국의 쟁의 기금마련을 봉쇄하기 위해 취했던 노조비 사용 규제정책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반노동자적 작태임을 직시한다.

현 정권은 이번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일삼는 최명헌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988.6.17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악덕탄광주는 무더기 부당해고를 즉각철회하라

우리는 최근 국내 최대의 탄전들인 동원탄좌, 삼척탄좌, 대성탄좌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복적 부당해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모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5.9 삼척탄좌(회장:유광연)는 14% 인상분을 고정수당에 적용할 것, 국민저축 월급과 이자를 전액 환불할 것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거나 이를 지지해온 노동자 6명을 집단해고하였고, 동원탄좌(회장:이엽)은 지난 5월의 임금인상쟁의가 평화롭게 타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조치로 결근등을 이유로 벌써 수십명을 무더기 해고해 왔다. 또한 대성탄좌도 임금 11%인상에 항의, 14%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표 3명을 해고시키는 등, 올해 들어 각 탄광마다 아무런 법적, 도덕적 규제도 없이 마구잡이 해고를 자행해왔다. 이는 노동자의 결의투쟁을 짓누르고 예방하기 위한 보복적 생계박탈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기업주에 파는 대등한 관계로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얼마에 팔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바 이를 짓누르고 거부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본질서마저 파괴,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노동부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이 소수 기업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사주라도 받은 듯이 농성 노동자를 구사대에 의해 폭행당하는 것을 방조하고 해고자의 복직을 봉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과연 무엇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농성에 들어가게 하고 대성탄좌의 경우 분신자살까지 강행하게 만들었는가?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재벌들이 노동자의 피와 땀을 토대로, 산재로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오늘날 국내 굴지의 대재벌이 되었건만 광산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70년대에 박정희대통령이 순시차 광산에 왔을 때 “웬 돼지우리가 저렇게 많냐?”고 했다는 오래된 사택에서 여전히 생계비에도 부족한 박봉으로 비참하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규폐와 과로로 수많은 동료들이 쓰러져 가지만 아무런 인간다운 삶의 보장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경찰과 노동부로 하여금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외면하게 만드는가?

6.29선언이니 민주화니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대망의 2천년대니 88올림픽이니 하며 돈을 물쓰듯 쓰면서도 서민대중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소수재벌과 군부독재정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는 타락 올림픽을 위해 무려 1조원을 쓰고, 단 10분에 불과한 개막식 레이저 쇼만을 위해 10억원을 써대면서도 노동자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쓸 수 없는 독재정권, 오직 권력유지와 부정독재에만 광분한 민정당 독재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모든 불의와 억압을 개탄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오직 자신의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켜온 악덕 탄광업주들은 즉각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모든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권력에 의존하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불편부당한 배임을 일삼는 노동부와 경찰은 각성하라!

조합광산노동자는 스스로 권리쟁취를 위해 단결해야 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부당해고자의 복직투쟁에 동참하고 앞장서서 싸울 때, 비로서 노동자의 밝은 내일이 열리는 것이다.

즐거운 노동과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힘으로만 이뤄질 수 없다. 삼탄해고자들의 끈질긴 투쟁에 힘찬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전광산 노동자의 단결을 다시 합법 촉구하는 바이다.

1988.6.15

광산지역노동문제 대책위원회
광산지역 사회선교협의회

해체 결의

- 91.임원회 결과보고 -

광산사선 제91-1호 (1991.7.27)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7.25 태백인권선교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오니 참조하시옵기를 바라오며 광산사선 해체를 위한 아래의 모임에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1. 광산사선 향후 진로모색 - 1988.3.29 광산지역 사회선교의 일환으로 발족된 광산사선이 지난 몇 년 간 지역운동에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활동과정에서 기존의 단체인 인권위와의 상호위상이 비슷하고 흩어진 선교역량의 분산을 막고 기존단체에 선교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의한다.

2. 해체 공식 모임

- 일시 : 1991. 8. 1(목) 오후 6시
- 장소 : 태백 인권위원회사무실

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회장 신성식 총무 윤창현 서기 심영식

11. 단체명 : 삼척탄좌 노동조건 개선 추진위원회

약칭 : 삼노개추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87.8 - 1992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역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삼노개추의 주요한 조직지도부로는 정운환을 위원장으로 하고 마진수, 이길동, 전백규, 이기림씨 등 15명의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강령 :

결성 과정 :

삼노개추는 1987년 6월항쟁이후 불어닥친 노동현장의 민주화운동시기 정선군 고한읍에 소재한 삼척탄좌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일환으로 1987년 8월8일부터 동년 동월 15 까지 일주일에 걸친 1차파업과 동년 9.1부터 시작된 2차파업중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자생적인 삼탄의 파업투쟁을 조직적인 파업지도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활동 :

삼노개추는 1987.삼척탄좌의 1차파업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 파업이 정운환등 핵심 주도세력이 파업을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6월항쟁의 민주화 분위기를 타고 자연발생적으로 파업이 발생하고 이에 정운환등이 직접 파업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당장의 파업지도는 물론 이후 삼탄내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1차파업에 적극적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하였는데 준비되지 못한 노동자들이라서 향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즉 당시 삼노개추의 구성원들 중에는 노동자들의 파업분위기에 편승하여 향후 노조위원장 직선선거에 출마하여 위원장이 되려는 야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으며, 노동과 자본에 대하여 거의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향후 자본측의 집요한 공작에 무력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삼노개추에 대한 삼탄 노동자들의 지지와 신뢰가 워낙 튼튼해서 파업이후 대부분의 삼노개추 지도부들이 구속되었음에도 구속되지 않은 윤임현 등 삼노개추를 지도하는 지도부에 의하여 이후 실시된 노조위원장 직선제 선거에 삼노개추 후보를 출마시

켜 삼노개추 후보를 표방한 원종주씨가 노조위원장에 당선되는 등 삼노개추는 삼탄 노동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후 회사측의 집요한 공작으로 노동자의식이 부족했던 원종주 씨는 회사측의 집요한 회유와 공작에 삼노개추 보다는 회사측에 의해서 무력해지고 결국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함으로써 삼탄에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일은 실패하게 된다. 이후에도 삼노개추는 “단결”이라는 제호의 소식지를 삼탄 노동자들에게 꾸준히 배포하며 삼탄 노동자들과 호흡을 함께 해 왔는데 이러한 힘으로 두 번째로 삼노개추의 후보인 김연철씨가 노조위원장에 당선되게 되는데 그는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어 삼노개추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삼노개추와 정면 충돌한다. 김연철 위원장은 삼노개추를 비판하며 소식지를 배포하는 삼노개추 회원들을 조합원 자격에서 제명하는 등 삼노개추를 배척하는 데에 있어서 회사측과 같은 입장에 선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노조위원장을 그만둔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많은 이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공공연한 소문이 나돈 것에서 알 수 있다. 이후 삼노개추는 계속 활동을 전개하나 일부는 민중당 조직운동을 하고 일부만이 남아서 삼노개추 활동을 하다보니 힘이 떨어지고 또 회사측의 집요한 회유공작과 효율적인 해고자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대부분의 삼노개추 지도부들이 고한지역을 떠나게 되어 점점 노동자들로부터 유리되게 된다.

1990 민중당 정선 지구당 창당

1991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중당 후보인 성희직씨가 강원도 의원에 당선됨으로써 노동운동과 정치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으나 뒤이어 실시된 1992.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운환씨가 낙선하고 민중당이 해체되자 노동운동은 물론 정치운동에 기대를 걸었던 고한지역의 노동운동은 급속한 침체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민중당에 참여하지 않고 삼노개추를 이끌며 현장활동을 해왔던 윤임현씨와 이원태씨가 1992.7.고한지역을 떠나서 원주로 생활 근거지를 옮김으로써 삼탄내 삼노개추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주요 활동가 :

정운환, 마진수, 이길동, 전백규, 이기림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안재성 저, 『타오르는 광산 ‘한사람의 열걸음 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으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장문학

「삼노개추는 왜 분열되었는가?」, 「삼탄노동자들께」, 『단결지 1호- 49호』

12. 단체명 : 강원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약칭 : 강노개추

소속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존속 기간 : 1988.9월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회장과 총무로 간단히 연락체계만 구성

강령 :

결성 과정 :

1987.8월에 일어난 강원탄광 노동자 대파업 투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투쟁 지도부가 된 성완희 씨를 중심으로 독신자 숙소의 노동자들이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1988.초부터 현장 관리자들과의 고압적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 집행부의 어용적인 행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강원탄광 우정회(약칭 : 강우회)라는 현장 친목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강우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빈번한 산업재해, 급여 지급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던 도급제 문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아예 관심 없는 어용노조 퇴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그룹활동을 전개했다. 강우회 회장인 성완희씨가 동료 노동자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항의하자 회사측의 구사대와 어용 집행부가 합동으로 탄압을 가해왔다. 이에 성완희 씨가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고 단식투쟁을 벌이던 중 구사대와 어용노조집행부의 폭력에 맞서 성완희 씨가 분신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성완희 열사의 분신투쟁에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강원도 대부분의 민족민주운동권이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에 강우회를 비롯한 강원탄광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상시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강우회가 주축이 되어 “광산민주노동자 강우회”라는 조직으로 전환되었다가 이후 강원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노조민주화 활동을 전개함.

주요 활동 :

“쟁취” 발간, 각종 현안 관련 성명서 발표, 지역단위 집회 참여, 전국단위 집회 참여, 현장 산업재해 상담 및 단체 연결, 성완희기념사업회 결성 주도, 광산노동자협의회 결성 주도

주요 활동가 :

성완희, 김종원, 박천수, 조호성, 장기출, 은종명, 박은주, 이근수, 최돈성 등

관련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관련 자료 :

광산민주노동자 강우회 규약

성명서(채탄대의원 김종원)

강원탄광조합원여러분(강우회)

13. 단체명 : 동원탄좌 노동조건 개선투쟁 위원회, 일명 ‘함께가자’

약칭 : 동노개추

소속 단체 : 성완희 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 협의회

존속 기간 : 1988 - 1992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주)동원 사북광업소

법적 상태 : 공개, 자발적 현장조직체

조직 체계 :

회원 투표로 대표 선출, 교육선전부, 조직부 운영, 파업 및 투쟁시기에는 지도부, 규찰선 봉대, 홍보부 등 자체 구성 활용

강령 :

결성 과정 :

1985년부터 시작된 동원탄좌의 자발적 파업투쟁 이후 어용노조와 비조직적 투쟁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면서, 동원탄좌 노동자의 자발적 모임이 결성되었음. 1년여의 내부 토론 및 조직화 과정을 거쳐 89년 4월부터 ‘함께 가자’라는 현장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이후 89년 5.20일부터 32일간의 전면 파업을 전개함. 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은 탄광의 고질적이고 착취적 임금구조인 도급제의 철폐, 노조 민주화, 단체협약 갱신 등을 내걸었음. 전체 회원수는 초기 20여명, 많을 때는 핵심 회원만 120여명이었으며, 단위 사

업장임에도 이후 태백 등 인근 탄광 및 성완희 기념사업회등에 참여하는 연대의식을 발휘하였음. 파업 이후에도 3년간 지속되면서 해고자 복직 및 노동조건 개선활동, 지역 노동운동 단체 연대활동을 폈음. 이후 파업지도부 대표의 집단해고와 탄광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해고 조치, 회사측의 하청운영 확대 등으로 인하여 1992년 자진 해산 됨.

주요 활동 :

동원탄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 주도, 지역 민주노동단체 연대활동, 탄광노동자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 선전활동

주요 활동가 :

- 1 지도부 (김창완, 유상열, 천삼용, 강내원, 이강민, 민경찬, 박열원, 김성곤)
- 2 지도부 (권태수, 조영균, 김춘호, 곽진태 등)
- 지원활동 (경성현, 용정순, 유일권 등)

관련 단체 : 없음

관련 자료 :

「함께가자」, 1호~51호, 1989.4-1991

「파업투쟁 일지」, 1989.9

「동원탄좌 직장폐쇄신고서 및 공권력 개입 요청서」, 동원, 1989

「동원탄좌 분규 경과 및 대책추진」, 정선균, 1989.

「89 노사분규 상황일지」, 동원탄좌 총무과, 1989.

「89 노사관계 일지」, 동원탄좌 회사 내부자료, 1989.

「동원탄좌 노동운동 계보도 정리」, 동원탄좌 회사 내부자료, 1989.

「동노개추 소속 부서별 명단」, 동원탄좌 회사 내부자료, 1989.

「89년 농성 관련 부상자 명단」, 동원탄좌 회사 내부자료, 1989.

「동원탄좌 회사의 내부 홍보지침」, 회사 내부자료, 1989.

89 분규 특징 - 동원탄좌 내부자료 발췌

0 사전 계획준비 및 조직적으로 농성 주도

- 파업지도부 구성 운영
- 함께가자 투쟁속보등 유인물 지속적 배포

0 외부세력과 연대투쟁, 선동교육 및 홍보 철저

- 사북 노동상담소, 전민련, 성완희 기념사업회 등

- 투쟁사례 비디오 상영
- 0 노조 집행부 불신임 및 퇴진 요구
- 0 단식, 파괴, 방화 등 과격화 장기농성
- 0 주동자의 저연령 단기 근속자(87.88 입사 주축)
- 0 광원 부녀자 적극 참여

홍보지침 89.5월경- 동원탄좌 회사 내부자료 발췌

1. 작업거부 발생 개요

가. 이번 작업거부 사태를 선동 주도한 세력은 금년 3월초부터 사북시대 노동상담소를 정점으로 노동관계운동 활동을 면밀 주도하게 계획 조직하였음.

나. 이들 세력은 ‘성완희 추모사업회’‘전노련’‘전민련’등 재야 운동권 세력과 연계하여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의 파업을 유도후 회사를 도산키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다.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매 공휴일마다 모임을 가지고 파업을 위한 계획, 행동강령 기타 토의사항 및 파업 주도시 종업원을 선동,집결,유도할 수 있는 풍물놀이 연습을 계속하여 왔음.

2. 사태의 성격 분석

가. 노-노분쟁

일부 사전계획된 과격분자들의 선동으로 노조를 전복하고 위원장직 탈취에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종업원과 회사만 손해를 보게 됨

3. 요구사항의 검토

가. 찬반 투표

~ 비합법적 불법행동으로 현행법상 아무 효력이 없는 ~ 선동하여 불법투표 실시 후 세력을 장악하고 ~ 회사 도산에 목적을 두고 있음~(중략)

나. 도급제 철폐

~ 일정기간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 현재 적용실시하는 광산은 없음

다. 출근인정 서명운동

~ 집회 이탈을 막기위한 교묘한 선동수단이며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불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

4. 회사의 입장

~ 회사는 더 이상의 지불능력이 없으며 ~ 직장 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

5. 결론

~ 가까운 예로 묵산광업소, 삼왕탄광, 덕일광업소 등 주위의 여러 탄광이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불치 못해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 지고~ 각종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하부 빨리 조업에 임해주길~ 서로 눈치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내가정을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중략)

14. 단체명 : 성완희기념사업회

약칭 : 성기사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88.10.23- 현재

주요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의장단 아래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집행위원회 아래 조직국, 대회협력국, 선전국, 총무국, 문예국이 있다.

강령 :

결성 과정 :

1988.6.29 동료노동자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중 구사대의 폭력에 맞서 성완희열사의 분신 “광산쟁이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분신

1988.7.8 성완희 열사 사망

1988.9.6 성완희열사추모사업회 제 1차 상임위원회

1988.10.23 강원탄광 노동자 고 성완희 열사의 고귀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성완희 기념사업회 설립

주요 활동 :

1. 교육사업 :광산노동자의 의식고양을 도모하고 현장조직화 작업을 위해 광산노동학교를 개설

기간: 89.2.14 -3.28(7주간) 매주 화요일

주제: 노동자, 임금, 민주노조, 노조민주화 투쟁, 전국노동운동의 현황, 노동법과 산재법, 노동자와 역사

강사진: 노동교육전문가, 노동운동가, 현직 노조위원장등

참석위원: 평균 30여명

2. 선전활동: 본회의 설립이전에 광산지역 사회선교협의회에서 4호까지 발간해오던 광산노동자신문을 인수하여 발행, 배포

신문제목: 광산노동자신문

발행부수: 1만부 (타블로이드판)

배포범위: 태백시, 고한, 사북, 도계, 경북문경, 충남대천

발행: 매월 초 정기발행, 호회 수시 발행

제5호 1989.2.10

제6호 1989.3.7

제7호 1989.4.6

3. 문화활동

광산문화대잔치 개최 :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광산지역에 건강한 민중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민족미술 전시회: 기간 89.1.26-2.1

초청화가 : 황재형, 이종구, 송창, 이명복

강연회: 강사- 심광현 미술평론가, 박준성 역사교수, 노무현 국회의원

총 참석위원: 2500여명

비디오 상영 : 성완희 기념관에 비디오 시설을 구비하고 수시로 비디오상영

비디오 내용: 한국역사, 민주화 투쟁, 노동운동 등 20여종

4. 조직사업: 1989.광산임금인상 투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1989.3.10 성완희기념관에서 5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지역임투본부를 조직, 8개사업장 노동자조직이 참여한 임투본부는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선전하고 4.9 태백시에서 89 광산지역 임투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5. 연대사업: 성완희 기념사업회는 전국노동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 가입(1989.4.4)하는 한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및 강원민족민주운동연합에도 가입하였다(1.21)

6. 노동운동지원 및 노동문제 상담활동: 각 사업장마다 노조민주화정책, 임금인상투쟁, 민주노조사수투쟁등을 실무지원하고 선전작업을 통해 여론화시켰다(후천탄광, 대성탄좌, 강원탄광, 황지광업소, 어룡광업소, 한성탄광, 동원탄좌, 동해탄광, 삼척탄좌) 현재 산재, 체불임금, 부당해고등 노동문제를 상담하고 법률구조를 해주었다. (88.10 -89.4까지 총 상담건수 4여건)

88.10.24 성완희 기념사업회 결성식(철암 돌구지 사택, 이창복 선생 등 강원도내 민주인사60

여명과 수백여 광산노동자 가족 참여)

88.11.9-10 원주지역성금모금운동(그림·사진 전시, 원주통일문화연구회 마당극)

88.11 기념관 구입

88.11.22 광산노동자, 불법구속 철폐 및 석방, 성명서 발표

88.11.24 사무국-상임위-운영위-광산노동자 불법구속, 대책회의

88.11.25 영월군 농민 구속, 석방 지원 투쟁

88.11.27 삼척탄좌, 단식농성장방문

88.12.02 한성광업소, 해고자 단식농성장 방문

89.0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가입

89.1.26-2.2 광산문화대잔치 (태백석탄회관, 공동주최 성완희 기념사업회, 우리땅 4인, 한겨레 신문, 태백인권위)

89.02.10 광산노동자 신문인수, 제 5호 발행(1만부)

89.02.21 광산노동학교 개설

89.03.10 광산지역 임금인상 투쟁 본부 발대식

89.03.19. 강원민족민주운동연합 발족에 참가

89.04.04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가입.

89.04.09 광산지역 임투전진대회 개최

89.07.02 2차 총회 개최

89.07.09 성완희열사 1주기 추모식 거행 “성완희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광산노동자대회” 개최 (황지국민학교 운동장, 1000명 참여, 태백역에서 황지
국민학
교까지 거리행진)

89.07.22 기념관 압수수색. 상임위원장 원기준, 사무국장 안재성 수배(국가보안법 및
삼자개
입, 정기간행물법 위반)

89.07.24 비상총회, 직무대행 배진 선출, 항의농성

89.07.30-08.01 당골하계수련회 (경기남부 노련과 함께)

89.08.04 수배중이던 상임위원장 원기준 서울 종로에서 체포, 구속 수감

89.10.08 “노동악법 철폐 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등반대회” 행사실시

89.11.12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철폐,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
참가

89.12.01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공청회“진보적 대중정당 왜 필요한가?”에 참가

90.02.11 성기사 총회(임시총회) 상임위원회, 사무국 해체하고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이사진
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이후 문제를 결정기로 의결

90.03.20 사무국장 조용일 구속 이후 논의 공전

90.07.07 성열사 묘역 참배 2주기 추도식

90.07.08 “성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광산노동자” 개최

91.01.22 사무국장 조용일 출소
91.02.07 상임위원장 원기준 만기 출소
91.04.12 이사회개최
91.04.21 총회 개최
91.06.17 제 3회 광산노동자대회
91.06.24 성완희열사 가묘 정리 정돈

주요 활동가 :

송건호 고문, 조용환 지도위원, 이창복 이사장, 신성식 이사, 황재형 이사. 박문성 이사, 구교복 상임위원, 권영철 상임위원, 김종원 상임위원, 윤기봉 상임위원, 박천수 상임위원, 김경상 상임위원, 원기준 상임위원장

관련 단체 :

광산지역노동자협의회, 전교조태백지회, 광산지역사회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태백민주시민회, 민중당 태백시지구당, 민중당 정선군지구당, 태백시광산지역사회선교협의회

관련 자료 :

「성완희 열사 정신 계승 및 광부수입저지를 위한 광산노동자 대회」에 대한 협조 요청의 건」, 성완희열사기념사업회, 1991.6.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명서

우리는 강원탄광이 자행한 이기만씨에 대한 불법부당해고와 성완희씨 분신에 대한 악질기업 강원탄광의 비인간적인 악랄함에 치떨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불법부당해고, 살인 만행을 규탄한다. 따라서 악질기업 강원탄광이 전 광산노동자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 할 때까지 끝까지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강원탄광 노동자 성완희(28, 채탄후산부)씨는 6.29 오후 12시 40분, 강원탄광 노조사무실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인권탄압 중지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산쟁이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며 육신을 불살라 절규하며 산화해 갔다. 진정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진정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세상을 학수고대하며 그토록 뜨겁게 살아왔던 우리의 성완희를 누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누가 성완희의 꽃다운 젊음을 앗아갔는가? “들어오지 마라” “우리의 정당한 단식투쟁을 방해하지 마라” “만약 들어올 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회사가 져라” 고 분신을 위협, 경고했지만 회사의 사주를 받은 대의원 박희목은 이를 끝내 무시,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 갈 줄 아느냐 어디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 며 들어왔다. 이는 명백히 살인행위이며 인간 최소한의 도덕도 양심도 없는 저 파렴치한 악질기업 강원탄광의 정인욱(회장), 김지현(대표이사)와 노동자 팔아먹는 김병두(노조위원장), 박희목(대위원)은 살인을 방조, 조종한 혐의로 즉각 처벌받아 마땅하다. 또한 경찰은 성완희씨의 분신을 타살로 사건조작하려 드는 간교한 기만적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노동자들의 단

결력을 분열시키려는 이간책동이며 성완희씨의 광산민주화에 대한 곳곳한 정신을 왜곡 조작하려는 날조행위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철천지한을 불살라 꽃다운 젊음을 받친 성완희의 마지막 절규를 듣는 광산노동자들이여! 단결하자! 투쟁하자!

성완희가 다시 우리들 곁으로 살아 돌아 올 것을 굳게 확신하며 광산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 투쟁하자.

성완희를 살려내라. 이기만을 즉각 복직 시켜라.

광산민주 쟁취하자. 정인욱, 김지현, 김병두, 박희목을 즉각 처벌하라.

경찰은 왜곡 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988.6.30

광산지역 사회선교 협의회. 카톨릭 광산노동사목 협의회. 태백지역 인권선교위원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강원노회 광산선교 위원회.
답소.

가톨릭 광산인권문제 상

정선지역 노동문제 대책위원회.

태백지구 기독교청년 협의회.

15. 단체명 : 장성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약칭 : 장노개추

소속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존속 기간 : 1989.12-1993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회장, 총무, 감사의 간단한 소모임 체계

강령 :

결성 과정 :

85.파업 이후 장성광업소에 재직하는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EYC)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빈발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도급제 폐지를 통한 임금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동기에서 소모임이 구성되었다.

EYC 회원들이 배진 회장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후 성직자들이 중심이 된 태백인권위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인권위원회 간사 등 지역 활동가들과 교류하며 되었고, 노동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장노개추는 다른 조직과 달리 태백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장성중앙교회 청년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특징과 함께 아울러 관리자들과 상당부분이 같은 교회의 장로 및 원로 교인들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이 이후 장노개추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주요 활동 :

소식지 “막장의 소리” 발간

지역단위 집회 참여

전국단위 집회 참여

현장 산업재해 상담 및 단체 연결

성완희기념사업회 결성 주도

광산노동자협의회 결성 주도

주요 활동가 :

배진, 김흥대, 정문호, 차장훈, 김덕래, 임중엽, 강육호, 김창진, 정호진

관련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관련 자료 :

장성광업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장성광업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회칙

“막장의 소리”

장성광업소 종업원에 고발한다(민주노조결성위원회)

장노개추 결성문

장성광업소 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장성광업소 노동형제 여러분!

우리장성광업소 노동형제들은 89년을 돌이켜보면 우울한 한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니, 석탄산업 사양화니 하면서 정부와 자본가들은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적극 선전하였으며 언론 및 광노등은 자본가들의 의도를 앵무새 마냥 되풀이 해왔습니다.

다른 산업체보다 훨씬 낮은 15.5%의 임금인상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고 막장의 인원부족과 심부화로 인한 높은 작업강도는 가히 살인적인 노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재해율과 치명적인 직업병은 우리 노동형제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형제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한채 독립채산제, 경영흑자등을 목표로 노동자의 마지막 한방울의 피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장성광업소의 현실인 것입니다.

적자운영의 원인이 노동자들의 게으름에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석공의 방대한 기구운영 및 정책의 미숙에서 오는 경영상의 잘못과 석탄산업이 그 동안 우리경제를 성장시켜온 중요한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생산성이 없다면서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적자의 책임을 우리 노동형제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하려 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는 스스로 단결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광업소 노동형제 여러분!

87년의 광산대파업투쟁이후 우리 모두의 요구인 도급제의 철폐는 장성광업소 뿐만 아니라 광산노동자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도급제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급제는 기업주들의 임금착취로 용이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체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작업강맹으로 오는 높은 재해율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조기에 발생하는 직업병, 관리자의 횡포등 숱한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급제를 철폐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제도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고, 이후로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의한 새로운 임금제도가 여전히 성과에 의한 임금제도이고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도급, 제도를 만들어 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성과에 의한 임금지급과 회사측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임금제도란 노동자의 이익이 조금도 배려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도급제로 인해 야기된 숱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 될 수 없는 새로운 도급제도로써 임금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 같아 노동자로서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더라도 기업주는 우리의 생존권을 짓밟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해야할 노동조합조차도 기업주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성광업소 노동형제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이익을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함을 자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단결된 장성광업소 노동자들의 외치는 진정한 우리의 무기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는 장성광업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건 개선을 열망하는 장성광업소 노동자 모두의 조직이며 투쟁의 새로운 모색인 것입니다. 단결된 장성광업소 노동자들의 외치는 진정한 우리의 무기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는 장성광업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건개선을 열망하는 장성광업소 노동자 모두의 조직이며 투쟁의 새로운 모색인 것입니다. 회사측의 온갖 횡포에 맞서며 노동조합의 채찍이 되어질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며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분연히 일어서서 싸울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장성광업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성과급제 폐지하고 일급제 쟁취하자
- 장성석공 노동자 단결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장성광업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는 현장내의 모든 문제들을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노개추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81-7034(장노개추)

1989.12.28

장성광업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16. 단체명 : 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약칭 : 한노개추

소속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존속 기간 : 1989.12-1993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태백시 연화동(통동)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회장, 총무로 연락체계만 구성

강령 :

결성 과정 :

87년 파업투쟁을 거치면서 알게 된 젊은 노동자들이 소모임을 구성하고 성완희씨 분신 후 구성된 성완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노동교실과 각종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결성되었다.

광산지역의 대부분의 노조가 다 그러했듯이 한보탄광의 노조도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어용적 행태를 일삼는 노조였는데 한노개추는 어용노조의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한노개추는 다른 노개추와는 달리 일상활동이 가장 활발한 현장조직 중의 하나였다. 수시로 모여 노동이론에 대한 학습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자체 소식지 “함성”을 꾸준히 발간하였으며, 전국단위 노동집회 투쟁에도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하였다. 이러한 동력이 바탕이 되어 90.한보탄광 막장 농성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힘이 되었다.

주요 활동 :

소식지 : “함성”지 발간

노조민주화투쟁

노동조건개선투쟁

성완희기념사업회와 광산노동자협의회를 통한 광산노동자 연대 활동

주요 활동가 : 장성구, 우구하, 박광용, 김해동, 김석순, 윤기봉 등

관련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관련 자료 :

한보탄광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함성” 소식지

한보탄광 막장농성 파업투쟁 기록

결성문

한보탄광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오늘도 지하막장에 땀 흘리며 일하는 한보탄광 노동형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위의 동료가 아니 나 자신이 일하다가 부상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돌가루, 탄가루를 폐 속에 쌓아가며 하루하루 생명의 단축을 의식하면서 또 귀중한 생명을 팔아서 일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우리에게 ‘근로자를 가족처럼’이라는 구호와 ‘산업역군’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노동자와 가족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해 가는데 꼭 필요로 하는 돈을 요구하는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파업투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들은 매년 요구조건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파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왔는데 승리를 쟁취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의 투쟁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조직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뜻 있는 몇몇 동지들이 모여 “한보탄광 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한보탄광 노동형제 여러분 !

우리 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는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회사측의 어떠한 부당한 조치들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열악한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대변자가 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노조 건설의 기반이 되고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보가족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속에서만 발전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돈 없고 뺨없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노개추’는 한보탄광내의 모든 민주노동자,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부당한 노동조건개선과 민주노조 건설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한보탄광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한보탄광 노동자 만세!

한보탄광 노동자 단결투쟁 만세!

한보탄광 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드림

성명서

세계노동운동사에 유례없는 불심임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대의원이 집단도피행각을 함으로 우리 900여 한보종업원과 3500여명의 가족이 작렬하는 태양 빛 아래 인내로 견디며 힘겨운 권리투쟁에 보다못한 우리의 동료 6명이 생사를 초월한 비장한 투쟁을 했으며 이때 우리 한보가족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뭉쳐서 투쟁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어리석은 자들이 개인의 허망한 이익에 눈이 멀어 단결투쟁을 방해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노동자의 참 권리를 찾고자 했던 우리의 동료 6명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며 농성을 풀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올바른 노동조합이란 노동자 스스로가 이끌어 가는 곳이며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체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자를 대표로 하여 회사와 협상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노동악법을 이용하여 법적인 대표니 뭐니 운운하며 도피행각으로 조합원을 우롱하며 한보가족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 데 다시 우리모두가 생존의 터전으로 돌아가려는 시기에 슬그머니 나타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선량한 조합원의 가정에 공갈과 협박을 앞세우고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한 모습으로 참다운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동권리 행사장인 노동조합을 재 장악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900여 종업원과 3500여 가족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생계의 터전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잠 못 자고 굶주리며 권리를 찾고자 밤 이슬을 맞으며 투쟁할 적에 여관방이나 전전하던 자들이 이제 우리의 울분을 삭이고 생업의 장으로 돌아가려는 시점에 땅거미처럼 다가와 분노의 념쿨에 불을 붙이고 조직 운운하며 하나된 힘을 분열시켜 고통의 장으로 끌고 가려고 검은 마수의 손길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생업을 위협하고 참 노동의 권리를 방해하는 위선자들을 우리 생존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참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며 우리의 올바른 생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열을 책동하고 노동의 권리를 말살하는 노동형제의 적을 우리 생존의 현장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우리 손으로 추방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입니다.

- 노동권리 방해하는 위선자는 몰아내자
- 하나된 총 단결을 우리 권리 쟁취하자
- 방해해도 소용없다 어용노조 물러가라
- 총 사퇴 총 퇴직 총 단결로 쟁취하자

1990.7.14

한보탄광종업원일동

17. 단체명 : 함백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약칭 : 함노개추

소속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존속 기간 : 1989.12-1993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리, 예미리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강령 :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김영진, 신재웅, 이상범, 김익수

관련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관련 자료 :

18. 단체명 : 도계석공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약칭 : 도노개추

소속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존속 기간 : 1989-1992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회장, 총무로 간단한 연락체계만 구성

강령 :

결성 과정 :

도계석공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도계골 한마당”이란 풍물패가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천주교 도계 성당 산하 “도계가톨릭노동인권상담소”(당시 김창수 주임 신부)에서 ‘광부의 외침’이란 노동 소식지를 발간하며 산재를 비롯한 노동상담 활동을 하였는데, 산재환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구성된 소모임으로 시작했다.

도계가톨릭노동인권상담소의 상담원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풍물을 전수하게 되고 풍물패 회원들이 주도가 되어 현장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활동하였다.

도계석공 노조는 다른 노조보다 어용성이 심해 항상 조합원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는데 수년간 이들의 횡포에 대항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몇몇 조합원들이 대항하기 시작하자 어용노조 집행부는 조직적으로 테러와 린치를 가해 왔고 이를 계기로 민주파 대의원과 풍물패 회원들이 합심하여 도노개추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활동 :

어용노조 민주화를 위한 활동

도급제 폐지를 위한 홍보활동

도계지역민주노동자협의회 결성을 통한 지역연대활동

주요 활동가 : 정성우, 이용신

관련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도계가톨릭광산인권문제상담소

관련 자료 :

도계석공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동료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도계석공 동료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글(도계석공 민주노동자 일동)

도계광업소 3,000여 종업원 동지 여러분(1989.2월)

도계석공 파업 일지

막장 노동형제 여러분!(민주노조추진위원회 도계항 채탄 후산부 정성우)

19. 단체명 : 경동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약칭 : 경노개추

소속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존속 기간 : 1989-1993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상덕리 , 강원도 태백시 연화동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회장, 총무로 연락체계만 구성

강령 :

결성 과정 :

경동탄광 파업투쟁 시 앞장섰던 장봉철씨가 해고, 구속되면서 구속된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원망이 고조되면서 집행부에 구속자 석방에 대한 조치와 회사와 일방적으로 타협한 행위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소모임이 결성되었다.

소모임 구성원들이 대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하며 출마하자 당황한 집행부가 대의원 출마자들의 낙선을 위해 사측과 모의하여 방해 공작을 펴자 이에 대항하여 자체 조직결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구속자 장봉철씨가 석방되면서 노조민주화 기치를 내걸고 공개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초기에는 “경동탄광 민주노조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소식지를 몇 차례 발행하며 사측과 충돌이 있었는데 이에 철저히 외면하는 집행부에 대한 원망이 거세지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태백, 고한, 사북 등 대부분의 현장조직에서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과 궤를 같이해 경동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노조민주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주요 활동 :

소식지 : “그날이 오면”, “막장의 횃불” 발간

도계석공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도계민주노동자협의회”를 결성

주요 활동가 : 장봉철, 송재유, 한주희

관련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도계가톨릭광산인권문제상담소

관련 자료 :

경동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회칙

그날이 오면
막장의 햇불

20. 단체명 : 한성탄광 노동민주화추진위원회

약칭 : 한노민주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주요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강령 :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권영철

관련 단체 : 성완희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관련 자료 :

21. 단체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선지회

약칭 :

소속 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존속 기간 : 1989-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일원

법적 상태 : 공개, 전국적 조직체

조직 체계 : 지회장 및 대의원(학교별)

강령 :

결성 과정 :

1987년경 전국적으로 전교협(전국교사협의회) 활동이 전개되면서 정선지역의 김진규, 손상달 등 몇몇 교사들이 주도하였음. 이후 1988년말 전국 교사대회에 참석한 정선지역 교사 10여명이 논의단위를 구성하여 학교별 활동을 펼쳐왔음. 1989년부터는 전교조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펼치며 전교조 탄압 규탄 대회, 노동운동 탄압 규탄대회, 각종 문화행사를 전개함.

주요 활동 :

참교육 실현을 위한 홍보 및 조직활동

지역 민주단체 및 종교단체 연대활동

현안관련 집회 개최 등

전교조 탄압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정선군, 공동대책위원회 및 정선 태백 제 2차 국민대회

1. 일시: 1989.9.24 (일) 오후 2시

2. 장소: 사북천주교회

3. 주최: 전교조 탄압저지와 참교육실천을 위한 정선, 태백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정선지회, 태백지회

주요활동가 : (교사)손상달, 김현숙, 김유순, 김미자, 김진규, 박문수 등

관련단체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지역 연대 후원 단체(동노개추, 삼노개추, 사북천주교회, 사북카톨릭노동상담소, 한겨레 신문 정선지국, 책방 글사랑 등)

관련자료:

전교조 탄압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정선군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실 문건 자료(89.9)
등

22. 단체명 : 동원보건원 노동조합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89-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의료기관 동원보건원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위원장, 부위원장, 교선부장 등(상근 위원장 1명)

강령 :

결성 과정 :

89년 초 인근의 영월의료원 노동조합이 결성, 활동하는 것을 보고 동원보건원 간호사 중심으로 노조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노조 설립 준비에 들어감. 초기에 병원측의 탄압과 단결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병원 측이 노조 인정 등의 유화책을 쓰면서 합법화됨. 병원측의 계속적인 압력과 회유로 이탈자가 생기고 지도부가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었음. 초기 20여명의 조합원으로 힘들게 운영하면서 지역 민주단체와 연계활동도 펼쳤으나 93년 이후 연대활동을 중지함.

주요 활동 :

동원보건원 의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

지역 민주노동단체 연대활동

주요 활동가 : 허정숙, 김숙자, 심구원, 김한녀

관련 단체 : 없음

관련 자료 :

「새벽바람」, 노조 홍보물, 1989-1990. 등

23. 단체명 : 사북지역 문화패 말뚝이

약칭 :

소속 단체 : 동원탄좌 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 소속, 이후 독립

존속 기간 : 1989-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상근 대표 1명, 회원 20여명

강령 :

결성 과정 :

89.동원탄좌 대파업에서 풍물 선봉대로 활동해온 탄광 노동자와 부인들이 안양지역 문화패인 '새힘'과 노래패 '새벽'등의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자체 문화패를 결성하게 됨. 결성 초기 동노개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90.6월부터 독자적 문화패로서 각종 지역 집회에서 길놀이 등을 맡음. 이후 93년까지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문화운동에 뛰어들 대표자의 일신상 사유 등으로 소강 상태에 빠져있다가 자연 해산됨. 그러나 95.이후 말뚝이 회원 출신들이 '백운마당'이라는 풍물패로 재건해 친목 동아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활동 :

지역 민주단체 연대활동 및 집회 길놀이 등 문화패 역할

자체 연수 및 위탁 교육 지원

주요 활동가 :

천삼용, 유상열, 노정숙, 김익필, 강내원,최상순, 이강민, 강신애, 김숙자, 김한녀 등

관련 단체 :

동노개추, 동원보건원 노동조합, 노동문제상담소 등

관련 자료 : 자체 소식지 '말뚝이'(90.6) 등

24. 단체명 : 광산사회복지연구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89~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한읍, 남면 등 탄광지역 일원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상근직 회장 1명, 후원 목회자 6명

강령 :

결성 과정 :

89년 초 정선지역 목회자 7명이 광산지역 산업선교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 모임 준비. 90년부터 탄광노동자 산업재해 상담 등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문 열고 상근체계를 갖추. 이후 93.상근하던 목회자가 타 지역으로 가면서 자연 해산됨. 설립 초기 광산지역 민주 노동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탄광근로자에 대한 법적 구제에서 많은 의미 있는 사례를 얻어냄.

주요 활동 :

탄광근로자 노동문제 상담 활동, 법률구조 활동

지역 민주노동단체 연대활동

주요 활동가 : 박상만, 박철, 조희영, 김은수, 손인선, 박두범, 조백형

관련 단체 : 없음

관련 자료 : 없음

25. 단체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태백지회

약칭 : 태백전교조

소속 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존속 기간 : 1989~

주요 활동 지역 : 태백시

법적 상태 : 비합법으로 출발했으나 전교조 합법화로 태백지회도 합법적인 지위획득

조직 체계 :

강령 : 전교조와 동일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전인호, 정연심, 최승룡, 권혁소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26. 단체명 : 광산노동자협의회

약칭 : 광산노협

소속 단체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존속 기간 : 1990-1994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남부(영월, 정선, 태백, 삼척), 경북(점촌, 문경)

법적 상태 : 임의, 공개단체

조직 체계 :

총회

운영위원(사업장 노개추 대표 및 단체 대표)

의장

사무국

강령 :

광산노동자협의회 강령

1. 광사노협은 광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제도를 개선시켜 광산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한다.
2.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현장내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광산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3. 성완희 열사의 분신과 죽음의 참 뜻인 노동해방의 사상을 전 광산노동자에게 널리 확산시킨다.
4. 각 사업장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여 전 광산노동자 조직인 광산노동조합협의회를 건설하기 위해 총 매진한다.
5. 노동3권의 완전채취와 노동악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다.
6. 건강한 노동문화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7. 광산노동자를 비롯한 전 민중의 해방을 위해 각 지역 부문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투쟁한다.

결성 과정 :

성완희기념사업회가 1989년 7월 운영위원장 원기준의 구속과 사무국장 안재성의 수배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 현장조직에 기초를 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완희기념사업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광산노동자협의회를 결성.

주요 활동 :

광산지역 각 사업장 현장조직 투쟁 지원

현장 노동자 교육지원

산업재해 상담

지역조직 연대투쟁 전담

전국조직 연결 창구

주요 활동가 : 배진, 장형만, 유태호, 조용일, 권영철, 전미영

관련 단체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성완희기념사업회

관련 자료 :

광산노동자협의회창립선언문

노동자 대 진군의 서막을 열어 제겼던 지난 87.7-9.대 파업투쟁 이후 전국의 우리 노동 형제들은 88년말 마창노련을 필두로 각 지역, 업종, 노조협의회를 결성하여 왔고, 드디어 지난 1.22 전국의 민주노조의 총결집체인 역사적인 '전국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어용노조의 철옹성이라 불리우던 이곳 광산지역도 87.대 파업투쟁을 경험하면서 전 광산노동자가 일치단결하여 투쟁할 때 노동해방의 그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동안 노동조건개선과 민주노조 건설,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해오던 각 사업장의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가 모여 미약한 힘이나마 오늘 광산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광노협은 과거의 고립, 분산적이고 수공업적인 활동과 기업별 노조주의를 탈피하여 조직적, 체계적, 통일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획기적 개선과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광산지역 민주노조들의 연합체 건설을 향해 총 매진할 것이다.

아울러 광산노동자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1천만 노동형제를 비롯한 전 민중과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노동해방, 민중해방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작년 새해 벽두부터 노동운동을 비롯한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대 탄압을 자행해오던 독재정권과 독점자본가들은 작년 말 "경단협"을 결성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민정, 민주, 공화 3당의 합당으로 보수 대연합을 이루고 전체 민족, 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권과 자본가의 탄압과 분열책동이 아무리 드세다 하더라도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분쇄해 나갈 것이며 노동해방의 그날을 위해 적극투쟁해 나갈 것이다.

- 열사의 뜻 이어받아 민주노조 건설하고 노동해방 앞당기자!
- 광노협 깃발아래 광산노동자 단결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결의문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각성과 가열찬 투쟁의 조직화에 두려운 나머지 천만 노동자의 뜨거운 가슴을 모아 건설한 전노협을 와해시키려고 자본과 권력은 무노동, 무임금, 제3자 개입금지 등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며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자본의 논리를 대변, 고수하려 악선전 해담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노협을 사수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탄압의 공세 속에서 선전작업을 조직하고 타 사업장 동지들과의 굳건한 연대로 자본가의 논리를 부수기 위한 폭

로작업에 집중해야하며 우리의 당면쟁취의 목표인 도급제 철폐, 노동시간의 단축 등에도 공동작업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한다.

보라! 87.뜨거웠던 띄약벌 아래 처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지, 동지가 무언지 알았던 우리, 자본과 권력의 억압과 복종을 거부하고 우리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한 투쟁의 고립적이고, 수공업적인 한계로 인해 완전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하고 번번히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다시금 이전의 성과들이 과거로 되돌려지는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다.

매번의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급제가 존재하는 한 경제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며 아직도 우리에게서 사무직의 7배에 달하는 노동강도 속에서 하루에 한사람씩 동지들의 죽음을 보면서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이 엄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생활조건 속에서 우리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들이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에는 현실의 조건들이 너무도 열악하다.

자본가들이라면 단 한시간도 견디지 못할 생활조건과 임금으로라면 당장에 죽음을 택하고 말 것이다. 동지들 당장에 이웃의 노개추 동지들과 토론합시다.

연대투쟁의 문제를 자본과 권력의 악선전을 폭로하기 위한 작업을, 당장 조직해서 임금인상의 적용도 되지 않는 도급제와 최저생계비의 80%로도 안되는 저임금과 오늘 하루의 생명을 예측할 수 없는 작업환경 그리고 70년대의 판잣집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결과 연대로 투쟁하여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머리 맞대고 찾아봅시다.

동지들!!! 자본과 권력의 은총을 지옥같은 막장 속에서 묻어 버린지 이미 오래지 않은가.

유난히 기승부리는 사장의 똥배짱도, 짬새들의 감시도 뚫고 우리는 내일의 승리를 위해 오늘 모두 모였다.

그렇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뚫고 우리는 기필코 승리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일 4교대 실시 또는 주 5제 근무 등 실질적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투쟁한다.

-민주노조 건설에 앞장선다.

임금인상 투쟁시기는 어용노조의 본질이 대중 앞에 폭로되는 적절한 시기다. 이에 우리는 어용노조를 대중의 힘으로 심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중간노조는 투쟁에 떨쳐 일어서게 함으로서 노조민주화에 기여한다.

-연대투쟁에 앞장선다.

광산노협을 중심으로 전체 광산노동자가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적극 연대투쟁하며, 90 공동임투를 맞아 타 산업, 지역 노동자들과도 적극 연대함으로써 정권과 자본의 음모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보수대연합 분쇄에 앞장선다.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음흉한 음모를 분쇄하고 천만노동자와 전체민중의 경제적 정치

적 지위향상을 위해 반민자당,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철폐 등을 위하여 투쟁한다.

- 최저생계비 쟁취하여 생존권을 확보하자!
- 도급제 철폐하여 실질임금 쟁취하자!
- 노동시간 단축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
- 광산노동자 단결하여 90 임투 승리하자!
- 부수연합 분쇄하고 노동해방 앞당기자!

1990. 3. 18

보도자료

지난 7.7 12시경 파업 중이던 한보탄광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협상회피에 항의, 항을 봉쇄시키고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보탄광 노동조건 개선 추진위원회 회원인 김봉석, 김강희, 신성만, 권순택, 김석수, 김해동 씨 등 6명의 노동자가 항 입구에서 500미터 지정에 위치한 북부사갱 우하반 채탄 막장에 진입, 항을 붕괴시키고 외부와 완전 차단된 채 공기 파이프를 대화만이 가능한 상태로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해 농성중이다.

그간 한보탄광 노동자들은 지난 6.20 지방노동위원회 임금 중재안을 기부,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 윤석창은 조합 규약을 어기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강력하게 반발 항의하지 노조위원장은 행방을 감추어 버리고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조업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7.1 17인으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의 사표 수리와 함께 협상재개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유인물을 통하여 비대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이들을 불법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대화를 회피해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7.7까지 매일 100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고 항의집회를 가져왔었다.

항내에서 농성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무효, 협상 전 요구조건 수용, 파업기간유급처리, 노조집행부파면, 해고자 복직 등이다.

1990. 7. 7.

광산노동자협의회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하며

우리의 피맺힌 한과 울분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지난여름의 열기도 이제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8.파업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민주노조 건설이라는 과제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조 건설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는 1946.석공노조 장성지부 창설 이래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우리모두가 열망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바른 노동조합 한번 가져보지 못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첫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집행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조에 전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대의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단순히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된 활동을 할 때에는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채찍질해 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조란 똑똑한 지부장 한사람 뽑아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활동이 잘못되지 않도록 조합원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은 민주노조 건설이라는 과제는 더 이상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 구속자 일동은 4,000여 조합원 동지들께 민주노조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보다 폭넓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자 민주노조추진위원회의 결성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990. 12. 7.

*제안자 : 김홍대, 정문호, 임중엽, 배진

아래

제목 : 민주노조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공청회

일시 : 1990. 12. 9(일) 오후 1시

장소 : 노동조합 장성지부 2층 회의실

해고자 실태조사표 (광산노동자 협의회)

89.1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해고자 실태

소속 단위노조	성명	노조직책	해고일자	해고사유	복직여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김홍태			불법파업선동	현재 해고 중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배진		90.09	국가보완법	현재 해고 중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정문호			불법파업주도	현재 해고 중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김영부			불법파업주도	다른 회사 취업 중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이기성			출근 불량	현재 해고 중
한보탄광	장성구				구속 중
한보탄광	이목		90.11.23	불법파업주동	현재 해고 중
한보탄광	백형근			불법파업주동	현재 해고 중
한보탄광	황대수			불법파업주동	현재 해고 중
한보탄광	최홍경			불법파업주동	현재 해고 중
한보탄광	조성균			불법파업주동	다른 회사 취업 중
한보탄광	박광용			근무태만	현재 해고 중
한보탄광	우구하			근무태만	다른 회사 취업 중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이수인			불법파업주동	현재 해고 중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표중원			불법유인물배포 정원 경찰업무방해	현재 해고 중
경동탄광	이학렬			취업적격부족	다른 회사 취업 중
황지광업소	차장훈		90.8.24	국가원수 모독 기업주 비판	현재 해고 중
동원사북탄좌	김창완		89.10.21	파업주도	현재 해고 중
동원사북탄좌	김성곤		89.10.21	파업주도	현재 해고 중
동원사북탄좌	권삼용		89.10.21	파업주도	현재 해고 중
동원사북탄좌	민경란		89.10.21	파업주도	다른 회사 취업 중
동원사북탄좌	권삼용		89.10.21	파업주도	다른 회사 취업 중
동원사북탄좌	민경란		89.10.21	파업주도	다른 회사 취업 중
동원사북탄좌	강내원		89.10.21	파업주도	다른 회사 취업 중
동원사북탄좌	박영원		89.10.21	파업주도	다른 회사 취업 중
동원사북탄좌	이강민		89.10.21	파업주도	현재 해고중
동원사북탄좌	유상렬		89.10.21	파업주도	현재 해고 중
삼척탄좌	성희직		90.11.02	작업거부선동	현재 해고중
삼척탄좌	김형진		90.11.02		복직
대한석탄광사 함백광업소	신재웅 외		91.9	명령 불복종	지노위의 구제신청

27. 단체명 : 민중당 정선 지구당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0.10.20-1992.6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일원

법적 상태 : 선관위에 등록한 합법 정당

조직 체계 :

위원장: 정운환, 부위원장: 성희직 사북지역 소장 :김창완

분과위원장: 이운영, 최문희 사무국장: 현태구

상근실무자: 반영숙, 정명섭, 하광윤, 정용섭, 김영교, 조안나

강령 :

결성 과정 :

1987년 6월항쟁과 이어진 탄광 노동자들의 대 투쟁이후 탄광지역은 민주화 열기로 가득차게 되는데 각 현장에서는 노동조건 개선 추진위원회라는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들이 속속 생겨나고, 현장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때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기를 한데 모아서 민중정당을 건설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광산지역 또한 민중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태백시는 민중당 태백시 지구당이 만들어졌고, 정선에는 민중당 정선군 지구당이 만들어졌다. 민중당 정선군 지구당은 1989년부터 논의 가 시작되기 시작하여 1990년부터 구체적인 창당일정이 논의 지구당을 창당하기 시작하였다. 즉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고한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실무자를 두고 본격적인 정치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며 1990.10.마침내 정선군 지구당을 창당한다. 정운환을 위원장으로 약 100여명의 당원을 조직하여 지구당을 출범시키고 이듬해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준비한다. 1991.창당 1년만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정선지구당은 당시 위원장이던 정운환이 출마하려 했으나 그가 구속된 전력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출마할 수가 없자, 삼탄의 해고자로 당시 평민당사에서 손가락을 자르며 복직투쟁을 하고 있던 성희직씨를 급거 민중당에 입당시켜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선시킴. 성희직의 강원도의원 당선으로 사기가 오른 정선지구당은 다음해 치러질 14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데 당원들의 당비와 중앙당에서 보내주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열심히 총선에 준비하지만 이듬해인 1992.4.치러진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운환은 물론 민중당에서 전국적으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당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 조건인 5%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민중당은 해체되고 만다. 중앙당이 해체되면서 따라서 해체된 정선지구당은 이후 뚜렷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채 몰락하고 만다.

주요 활동 :

91년도 지자체 선거운동, 9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주민교육 및 조직사업, 홍보사업

주요 활동가 : 정운환, 김창완, 성희직, 현태구

관련 단체 : 삼노개추, 동노개추

관련 자료 :

「민중당 정선지구당 창당 발기취지문」, 창당선언문, 14대 국회의원선거 홍보물,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28. 단체명 : 광역의회 선거를 위한 태백지역 범민주단체 연대회의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1.4.29

주요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강령 :

결성 과정 :

1991년 최초의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태백시의 제 1선거구였던 황지지역의 범민주 단일후보로 전교조 해직교사인 전인호 씨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각 민주단체들이 연대조직을 결성함.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전인호, 신성식, 원기준, 류태호,

관련 단체 : 전교조 태백시지회, 광산지역사회연구소, 태백기독교청년협의회

관련 자료 :

29. 단체명 : 민중당 태백시 지구당

약칭 : 태백민중당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1-1993

주요 활동 지역 : 태백

법적 상태 : 합법

조직 체계 : 당원총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사무국(각 부서)

강령 :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배진, 유태호, 권영철, 강육호, 정문호, 임중엽, 윤은희, 조용일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30. 단체명 :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약칭 : 광사연

소속 단체 :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 부설 기관

존속 기간 : 1991.5.6-현재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남부지역(태백, 정선, 영월, 삼척), 강원도 및 전국

법적 상태 : 합법, 공개

조직 체계 : 소장, 연구실장, 협동간사, 보조연구원

강령 :

1. 기독교정신으로 탄광촌의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 주민의 의식을 계발하여 주민운동을 활성화시킨다.
3. 탄광촌의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교회의 역량을 모은다

결성 과정 : 1991.5.6 태백선린교회 부설 사회선교기관으로 설립 (소장 : 원기준)

주요 활동 :

1. 조사연구사업
2. 출판사업
3. 주민교육사업 (청소년, 문화)
4. 자료실 운영

1991.9. 태백시민 대상 광원수입 주민의견 설문조사

광원수입반대운동 연대조직 활동 전개

(12월에 최병렬 노동부장관 광원수입 방침철회)

1991.10.12 일본 반핵평화운동가수 구로사카 초청 '사죄의 콘서트' 개최

1994.9. 탄광촌교육환경개선운동 전개 (탄광촌청소년교육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주요 활동가 : 신성식, 원기준, 강은영, 최기영

관련 단체 : 태백선린교회

관련 자료 :

광원수입반대운동 자료집 (1991.)

31. 단체명 : 광산지역산업재해문제연구소

약칭 : 광산문연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1. 4. 7.

주요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조직 체계 :

강령 :

1. 광산재해와 관련된 조사 연구, 자료출판, 각종재해, 질병의 상담, 의료부정 추방과 비리감시, 산재를 둘러싼 노동자의 권익옹호, 진료알선, 교육활동, 법률개정
2. 광산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
(창립선언문, 1991.4.7)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유재무 목사(태백 서부교회), 장현식 (태백선린교회 집사, 건설 근로자)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창립선언문

광산지역 산업재해문제 연구회

광산지역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지난 수십 년 간 모든 사람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피땀 흘려 노동하며 희생되어 왔다. 지금도 온갖 위험이 도사린 광산의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다치거나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안전수칙과 건강권은 묵살되고 사고를 당하여도 잘 몰라서, 또는 풍부한 치료와 보상이 지연되고 묵살되는

동안 우리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광산지역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일하는 한 다치고 병들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지긋지긋한 막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불행임에 분명하다. 산재사고는 결코 노동자들의 잘못이나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만 벌고 보자는 식의 탐욕스런 광업주와 온갖 부를 얻고도 적자타령으로 각종 안전조치는 물론, 투자기피 때문이다. 이 무관심 그리고 보상거부는 산재 환자들의 미래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의 감독 소홀과 법률미비는 국가마저도 산재환자와 그 가족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통계로 지금까지 광산에서는 매년 208명이 죽고 6천 여명이 부상당하고 있으며 1년이면 10명중에 1명이 죽거나 다친다니 10년이면 모든 광부들이 한 번씩은 재해를 입는다는 결론이다. 이는 석탄 100만톤 당 8-9명의 사망으로 선진국에 비해 무려 7-25 배나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피할 수 없는 재해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지키며, 또 불가항력으로 당한 재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천부의 권리이자 최소한의 인간선언이다. 지켜야 할 단 하나 뿐인 몸, 지켜야 할 노동자의 건강,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바램을 모다 “광산지역 산업 재해 연구회”를 창립한다.

성명서

광산지역주민 단결하여 산업재해 추방하자!

풍요롭고 건강한 삶!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뜻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을 제공한 우리 광산노동자와 광산지역...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는 석탄산업 합리화다 광원수입이다 하여 실업과 불경기, 그리고 진·규폐와 같은 직업병으로 검은 대지 위에 나뒹구는 폐광의 잔해만큼이나 철저히 소외되고 수탈되고 있습니다. 하루 6명씩 죽고 450명씩 다치는 세계제일의 산업재해왕국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중에서 92%를 점하는 광산재해현실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조건보다는 고급 승용차 값도 안되는 목숨에 대한 보상금 지불이 이윤을 남기는데 더 낫다는 기업주, 입항한번 제대로 안하는 보안검열과 일하다 다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고자세의 노동부, 게다가 돈을 먼저보고 입원시키거나 회사측의 요구대로 강제 퇴원시키는 병원,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부담만 주는 의료보험제도에다 폐놀방류다 하여 물도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기막힌 우리 건강의 현실입니다. 기업주나 정부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단결하며 제도적·법적 개선과 감시와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공해추방운동, 노동과 건강연구회 등을 결성하며 의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광산지역에서도 산재노동자, 지역주민, 의료

인, 상담요원 등이 광산지역산업재해연구회를 결성하고 상담, 교육, 진료 및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산업 재해추방을 위한 7월 공동 사업의 하나로써 춘천한림대학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전문의들과 더불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무료진료 및 산재상담 그리고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한마당을 실시합니다. 광산노동자 및 지역주민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산업재해 및 질병을 추방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1991. 7.

광산지역산업재해문제연구회

32. 단체명 : 태백민주시민회

약칭 : 태민회

소속 단체 :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회원

존속 기간 : 1990.7.1 ~ 1995년

주요 활동 지역 : 태백시

법적 상태 : 임의단체

조직 체계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강령 :

결성 과정 :

주요 활동 : 광원수입 반대 운동, 석탄산업합리화정책 반대운동, 대체산업촉구운동
문화운동 (한울림 문화동아리)
성명서 발표 -광부생존 압살하는 석합정책 철폐하라! 1990-07-08 공동

발표

한보탄광노사분규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성명서 발표 -현정권과 한보탄광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990-07-12 공동 발표

성명서발표 -즉각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1990-07-27

공동발표

주요 활동가 : 박무봉 , 백형근 , 조호성, 홍진표, 전문주 , 원응호

관련 자료 : 팜플렛 < 태백민주시민회 창립대회 >

<창립선언문>

현대 산업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생활에 편익을 가져다주었고 이러한 발달 속에서 긍지를 느껴왔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이라는 큰 물결 속에서의 실질적 인식을 소홀히 하여 온 것,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하여 80년대 전반에 걸쳐 기존의 진부한 인식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었고, 90년도는 이러한 토대를 발판으로 더욱 고양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여러 지역들에서 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서 보듯이 그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분주히 뛰는 모습은 우리 태백 시민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태백의 현실은 여타지역보다 더욱 열악한 경제실정과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잇따른 폐광소식과 세계 제일의 재해발생, 그리고 진규폐의 위협이 광산노동자로 하여금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노동 현실의 문제라든가,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과 생활이 점차 궁핍화 되어 가는 경제현실, 문화공간의 절대적 부족과 교육환경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제반 환경 현실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태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쇠는 궁극적으로 우리 태백 시민들의 응집된 힘이라고 봅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각고의 결론을 거쳐 이번에 태동하게 될 “태민회”는 어느 소수인에 의해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요, 시민들의 장소인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참된 자유,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될 자명한 진실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필연적 역사적 산물로써 “태민회”의 창립을 선포합니다.

1990. 7. 1

< 한보탄광 막장농성에 대한 성명서 - 성명서 발표 일자 미상 1990년 7월경 추정 >

한보탄광의 여섯 시민을 구해냅시다.

지난 6월 18일부터 한보 탄광조합원들은 단체 협약의 올바른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습

니다. 6.20일 한보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중재안을 거부하고 단체협약갱신협상마저 결렬되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 윤석창은 전체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일방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발, 항의하자 노조 위원장은 행방을 감추어 버리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작업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7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회사와 협상재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유인물을 통하여 비대위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계속 대화를 회피해왔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7월 7일까지 매일 1,000여명씩 작업을 거부하고 항의 집회를 가져오던 중 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의원인 김봉석, 김강희, 신성만, 권순택등 4명과 조합원 김석수, 김해동등 2명이 항 입구에서 500미터 지점에 위치한 북부사갱 우하반 채탄막장에 들어가 항을 봉괴시키고 외부와 완전 차단된 채 공기파이프로 대화만이 가능한 상태로 요구조건의 수락을 주장하며 농성중입니다. 이렇게 매우 위협하고 가슴아픈 상황에서 우리 태백민주시민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입장-

1. 현재의 사태로 번져질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부, 시청, 경찰 등 관공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한다.
1. 사용자측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협상을 재개하라.
1. 위의 사항들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을 때 태백민주시민회는 10만 태백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1. 한보탄광은 한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백시민전체의 문제입니다.

33. 단체명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태백시지부

약칭 : 태백진정추

소속 단체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존속 기간 : 1992-1995

주요 활동 지역 : 태백

법적 상태 : 반합법

조직 체계 : 총회, 운영위원회, 지부장, 사무국장, 부서장

강령 :

광산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활동과 노동자, 서민의 일상적인 투쟁 속에서 정치세력화를 이뤄 내며 여러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목적으로 한다.

결성 과정 :

민중당의 법적 해산 후 후속 조직으로 전국적인 “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민중당 태백시지구당의 열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태백시지부를 1992년 6월 5일 결성식을 갖고 6월 21일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표로 조용일을 선출.

주요 활동 :

기관지 “태백진보의소리” 발간 (창간 1992년 7월 2일)

주요 활동가 : 조용일, 장형만, 유태호, 김옥재

관련 단체 : 민중당 동지회

관련 자료 :

34. 단체명 : 정선지역발전연구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2.5-현재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고한읍,남면 탄광지역 일원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소장 1명, 비상근 연구원(지역활동가 4~5명)

강령 :

결성 과정 :

1992년 삼척탄좌 해고 노동자 성희직씨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민중당 후보로 강원도 의회 의원에 당선된 직후, 성희직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자들이 결성한 단체임. 최초에는 '성희직 도의원 부설 정선지역발전연구소'로 2명의 상근 체제로 정책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1994년 7월 탄광지역 현안과 생존권 문제를 직접 다루자는 취지에서 정선지역발전연구소로 독립적 명칭을 사용함.

1995년 지역살리기 투쟁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며 특별법 법제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2000년 사북항쟁 명예회복 추진, 정책 자료 제작 등 지역현안 해결과 관련된 실무 핵심부서로 활동해 왔음. 또한 지역 복지단체인 '정선자활후견기관' 운영주체로 선정되어 2000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강원랜드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방안 등 각종 연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주요 활동 :

성희직 강원도의원 정책활동 지원 및 후원모임 운영

지역의 생존권 투쟁의 실무 기획부서로 95년 3.3 투쟁 참여

사북노동항쟁 명예회복 촉구 지원활동 등

주요 활동가 : 김창완(1대 소장), 정운환(2대 소장), 심규호

관련 단체 : 없음

관련 자료 :

「성희직 도의원 관련 유인물」, 1992~2002

「운동 투쟁 자료집」, 1995~

「지역발전연구소 연혁 및 홈페이지 자료」, 2002

35. 단체명 : 사북항쟁동지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9-현재

주요 활동 지역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한읍, 남면 일원

법적 상태 : 공개

조직 체계 : 동지회장 1명, 총무 1명, 회원 42명

강령 :

결성 과정 :

1980년 4월 소위 '사북사태' 관련자들이 20년 가까운 침묵을 깨고 99년 '사북항쟁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촉구 활동을 시작함. 그 배경은 사회 민주화가 일정부분 진행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2000.4. 정선지역발전연구소에서 발행한 '1980년 4월 사북' 자료집과 '먼지 사북을 묻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기폭제가 되어 활동을 본격화 함. 이후 당시 연행, 고문을 받았던 관련자 40여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방문, 1인 시위, 고문관련 퍼포먼스, 대학가 순회 강연 등의 활동을 펼쳤음. 2000년 당시 지도부 2명이 명예회복 신청을 제출하였고, 2002년에는 추가로 1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2004년 말 명예회복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명칭을 '사북항쟁 동지회'로 바꿨으며 2005년 8월 지도부 2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음.

주요 활동 :

80년 4월 사북노동항쟁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활동, 기념식 정례 개최

주요 활동가 : 이원갑, 신 경, 윤병천, 박노연 등 30명

관련 단체 : 없음

관련 자료 :

「1980년 4월 사북」, 자료집, 정선지역발전연구소, 2000.

「먼지 사북을 묻다」, 이미영 감독, 2000,

「탄광촌의 삶과 애환」, 사북청년회의소, 2002

「기념식 관련 자료-진정서,청원서,활동보고 등」, 20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태백·정선

발행일: 2005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